

부산을 빛낸 인물

20세기 이전 인물편

서 문

2002년 우리 부산은 세계도시로서의 진면목을 새롭게 다지는 대규모의 국제행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왕성하게 펼쳐졌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 결실을 거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부산시민 모두의 선진적 시민의식이 엮어낸 결실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결실은 외형적 규모에 걸맞는 그 저력의 기반을 굳건히 할 때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민간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선도하는 부산의 정체성 확립사업의 하나로 부산을 빛낸 인물을 발굴하고 선열들의 업적과 정신을 선양하여, 시민 모두의 올곧고 건전한 시민정신의 지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로 삼고자 그 첫 작업으로 20세기 이전 부산을 빛낸 인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물질문명에 매몰되어 가는 인간의 참 모습을 되찾고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선진도시 부산, 세계도시 부산을 다져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의 참모습을 가꾸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을 위하여 정성을 모아 주신 선정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 12

부 산 광 역 시 장

안봉영

발 간 사

부산발전의 밑거름을 구축하신 선열들을 발굴하여 그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여 미래지향적 시민정신을 창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성 함양의 귀감을 정립코자 지난 2001년 5월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선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폭 넓게 수렴하여, 그 결과에 대한 시민 공개검증을 거친 후 20세기 이전 부산을 빛낸 인물을 최종 선정하여 이렇게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개여론 수렴과 검증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좀더 정확하고 엄정한 선정을 위한 충심에서 이루어진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부산의 정체성 확립과 글로벌시대의 경쟁에서 우리의 위상을 한 차원 격상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즈음에 부산을 자리잡게 한 대표적인 선열들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지향적 시민정신의 기틀을 다지는 사업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산을 빛낸 인물 발간을 계기로 부산의 정신사를 정립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 시민의식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조사에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옥고를 보내 주신 집필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2002. 12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 위원장 김임식

차 례

☐ 서문 / 부산광역시장 안상영

☐ 발간사 /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장 김임식

1. 최치원(崔致遠) / 5

2. 정 서(鄭 敍) / 14

3. 장영실(蔣英實) / 23

4. 송상현(宋象賢) / 33

☐ 노개방(盧蓋邦) / 39

☐ 조영규(趙英圭) / 41

5. 정 발(鄭 撥) / 44

☐ 이정헌(李庭憲) / 53

6. 윤흥신(尹興信) / 58

7. 임란 동래 24공신(功臣) / 63

8. 수영 25의용(義勇) / 81

9. 사명대사(四溟大師) / 95

10. 박인로(朴仁老) / 114

11. 이 선(李 選) / 127

12. 변 박(卞 璞) / 136

13. 안용복(安龍福) / 144

14. 이안눌(李安訥) / 156

15. 조 엄(趙 曦) / 168

16. 강필리(姜必履) / 176

17. 정현덕(鄭顯德) / 184

☐ 집필위원 명단

☐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1. 최치원(崔致遠)

해운대의 유래

사람은 땅의 정기를 받아 태어나고, 땅은 사람으로 인하여 이름을 얻게 된다. 한반도 동남쪽 끝 바닷가의 한 모퉁이에 있는 해운대는 천년 전 신라의 학사 최치원이 머물며 자취를 남긴 곳이다. 지금도 동백섬 동남쪽 해변에는 “해운대(海雲臺)”라 새긴 글자가 남아 있는데, 최치원이 쓴 글씨라고 전해온다.

신라말의 최치원, 그는 신라가 낳은 훌륭한 최치원 영정 한 국제인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12세의 나이에 당시 세계문화의 중심지였던 당나라로 건너가 18세의 나이에 그곳의 고위관리 등용시험인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고, 여러 관직을 거치면서 문필로 명성을 날렸다. 28세의 나이에 고국 신라로 돌아와서는, 후삼국이 들어선 어지러운 정국 속에 조국 신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고심에 찬 진언을 올리는 한편, 신라와 당나라를 왕래하며 외교문제의 조정에 힘썼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혼란에 빠진 당나라에서도 뜻을 펴지 못하였고, 부패한 신라 조정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랬기에 일을 해볼 만한 나이에 바다와 산을 찾아 소요하며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최치원이 자연에 소요하며 은둔하였던 자연이나 심경에 대하여는 후인들의 추측이 무성할 뿐 아무도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해운대는 최치원의 그 고심과 사연을 추억하는 곳이다. 대를 이어 해운대를 찾았던 사람들은 최치원의 행적을 고상하게 기념



해운대 석각 부산 해운대 동백섬

하기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의 사연을 최치원의 처지에 비겨 스스로 위안을 찾기도 하였다. 해운대는 최치원으로 인하여 이름을 얻었고, 그랬기에 이곳은 세상의 시비 영욕을 벗어나서 각기 가진 시름을 묻어두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던 그런 장소가 되었다.

신라 소년 최치원

최치원은 857년(헌안왕 원년)에 신라의 서울 경주에서 태어났다. 경주의 최씨는 본디 신라 육촌의 하나인 본피부(本彼部)에서 비롯하였다. 최치원의 고택은 고려중엽까지 황룡사 남쪽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최치원의 아버지는 견일(肩逸)인데, 그 선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는 밝혀진 것이 없다. 최치원은 868년(경문왕 8)에 12세의 나이로 배를 타고 당나라에 들어갈 때, 그의 부친이 당부한 말을 중신토록 잊지 못하였다. 그는 나중에 지은 글에 당시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옮겨 놓았다.

제 나이 열 두살 때 집을 떠나 서쪽으로 갔습니다. 배를 탈 적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타이르시기를, ‘십 년 안에 진사(進士)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 하지 말라. 나도 아들을 두었다 아니하리라. 가라! 부지런히 하여 네 힘을 게을리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한 말씀을 가슴에 지녀 감히 잊지 못하고, 머리를 묶어 매고 송곳으로 찢러가며 부모님의 뜻을 받들 것을 기약하여, 다른 사람이 백번 하면 나는 천번을 하여, 중국에 온 지 6년

만에 영광스런 이름을 방의 꼬트머리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치원이 중국에 들어갈 무렵 신라에서는 왕족 자제를 뽑아 당나라에 보내어 학문을 익히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들 건당숙위 학생들은 신라 조정과 당나라 조정의 편의를 제공받아 그런 대로 유학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최치원이 숙위 학생의 자격으로 당나라에 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뒷날 최치원이 당나라의 서쪽 장안에 유학하던 시절의 생활을 회고하여, “장안의 옛적 고생을 생각한다면 어찌 차마 고향의 봄을 허송하리”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매우 고단하였음이 분명하다.

당나라로 건너간 최치원은 18세 되던 해에 당나라의 과거에 급제하고 당나라의 낙양(洛陽) 땅으로 옮겨 살았다. 당나라는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추천해 주지 않으면 벼슬자리에 나갈 수 없었다. 아무리 재능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리 이국의 소년을 선뜻 관직에 추천해 줄 인물은 흔치 않았다. 최치원이 그때 지은 시에는

갈림 길 먼지 속에 이리 날리고 저리 굴러
파리한 말 혼자 타고 고생이 얼마던가?
고향 길이 좋은 줄 모르지 않지마는
돌아간다 하더라도 집이 가난한 걸

이라 하여 탄식을 숨기지 않았다. 만리 이국 땅에서 어린 나이로 떠돌며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막막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20세가 되던 해에 중국 남방에 있는 선주(宣州) 소속의 고을 율수현(溧水縣)의 현위(縣尉) 벼슬에 임용되었다. 율수

현은 중국의 남방 양자강 남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고을이었다. 만리 타국에서 온 20세의 소년 최치원은 이 조그만 고을의 행정을 돌보면서 여러가지 아름다운 미담을 남겼다. 지금도 전하는 율수현지에는 당나라 때 신라인 최치원이 현위로 부임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중국 송(宋)나라 때부터 전해오는 《쌍녀분기 雙女墳記》는 최치원이 율수현의 쌍녀분이라는 고분에 글을 지어 조문한 내력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그 무렵 당나라는 국운이 기울어 가는 시기여서 변란이 그치지 않았다. 최치원이 부임한 중국의 강남지방도 황소(黃巢)라는 자가 일으킨 반란으로 인하여 전란에 휩싸여 있었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황소의 난을 평정하기 위하여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고변(高駢)을 파견하였다. 고변은 본디 문학에 조예가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명성이 자자하였던 신라 소년 최치원을 일찍부터 주목하고 있었다. 고변은 황소의 난을 평정하는 책임을 맡게 되자 자신을 도와 민심을 무마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책임을 맡을 종사관으로 최치원을 차출하였다.

최치원은 고변의 막하에서 4년 동안 서기의 업무를 전담하여, 여러가지 공사의 문서들을 전담하여 기초하였다. 그 중에도 881년(당 회종 2) 7월에 지어 돌린 격문은 기세가 등등하였던 황소의 기세를 꺾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천하의 백성들이 각기 제 생업에 힘쓰며 제 분수에 만족하여 평화를 누리는데, 부질없는 영웅의 공명심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살육하게 하여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는 무슨 명분으로든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이 격문의 요지였다. 격문 가운데 “천하의 사람들이 이미 너를 죽이고자 하거니와, 지하의 귀신들도 함께 너를 죽이고자 의논하였노라”라는 구절을 읽고는 난을 일으킨 황소조차도 섬뜩하여 침상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자고로 전쟁이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행위이고, 권력을 쟁취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편

저편 할 것 없이 전란의 와중에 생명을 잃고 생업을 잃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은 어김없는 진실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최치원은 천하에 명성을 떨쳤고 오래잖아 황소의 난도 평정되었다. 고변은 이로 인하여 최치원을 당나라 조정에 청송하였고, 당나라 조정에서는 최치원에게 도통순관(都統巡官) 진중시어사(殿中侍御史) 내공봉(內供奉)이라는 관직을 내리고, 동시에 당나라 대궐에 출입하는 신분표지로서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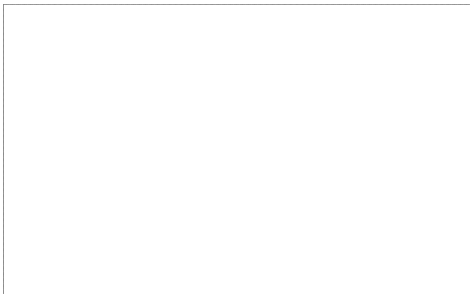
황소의 난이 평정될 무렵 최치원은 그의 식견과 재능을 아끼는 당나라 벼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884년(헌강왕 10) 10월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신라에 보내는 사신의 자격으로 조칙을 받들어 신라로 돌아온다. 신라로 돌아 올적에 최치원과 같이 진사 급제를 하였던 고운(顧雲)이란 사람은, 한편의 글을 지어 최치원을 송별하였다.

듣자니 바다에 세 마리 금자라
 금자라 머리에 높이 높은 산을 이고
 산 위에는 구슬 궁전, 조개 궁궐, 황금의 전각
 산 아래로는 천리 만리 드넓은 파도
 그 곁에 한 점 계림 땅이 푸르는데
 금오산 정기 모여 기특한 인재를 잉태했네
 열 두살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와
 문장으로 중화국을 감동시켰고
 열 여덟에 문단을 횡행하면서
 화살 한 대로 금문의 과녁을 쏘아 맞췄네

나이 12세에 당나라에 들어가, 18세에 천하의 영재들과 겨루어 당당하게 과거에 급제하고, 28세의 나이에 금의환향한 최치원은 당

나라의 젊은 사람들도로서도 부러웠던 것이다. 최치원 스스로도 이런 행색을 형용하여, “무협 열 두 봉우리의 나이에 포의로 중국 땅에 들어갔다가, 은하수 스물 여덟 별자리의 나이에 비단 옷으로 동국에 돌아왔다.”고 하였다. 신라 사람으로 중국에 들어가 당나라의 빈공과에 급제한 사람이 무려 58인에 이른다고 하였지만, 최치원 만큼 젊은 나이에 그만한 식견과 처신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은 전례를 찾을 수 없었다.

학자와 은사의 전형 유선(儒仙)



신라에 돌아온 최치원은 이듬해 정월에 현강왕에게 자신이 그동안 저술한 글을 엮은 책 《계원필경 桂苑筆耕》 28권을 진상하였다. 신라 조정에서는 그에게 조청대부(朝請大夫) 수

최치원 사적공원 부산 해운대 동백섬 정상 병부시랑(守兵部侍郎) 서서원학사(瑞書院學士)라는 직책을 내렸다.

최치원이 조국에 들어왔을 때는 난세였다. 892년(진성여왕 6)에는 견훤이 전주에 근거를 두고 나라를 열어 후백제라 이름하였고, 901년(효공왕 5)에는 궁예가 철원에서 독립하여 나라 이름을 마진국이라 하였다. 이 무렵 수많은 호족들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 신라는 반도의 동남쪽 한 모퉁이만 겨우 보전하는 실정이었다. 최치원은 기울어 가는 신라의 국세를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10가지로 요약하여 왕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그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변방의 한직으로 내쳐 버렸다.

최치원은 충청도 태인과 경상도 함양 등 몇몇 고을을 전전하며 민생을 돌보았다. 그러나 부패한 중앙정부의 권세가의 모함과 질시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최치원은 관직을 내던지고 집안 식구를 이끌고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은거한 뒤로 후학들을 교육하는 한편, 나라안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다니며 노년을 보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문을 나가서는 관과 신발 한짝만 숲 사이에 남겨 놓고는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사람들은 최치원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었다.

최치원은 구름 같이 아름다운 수염에다 옥처럼 고운 뺨을 가졌으며 그가 거처하는 곳에는 항상 흰 구름이 덮고 있었다고 한다. 해인사의 승려들이 그 모습을 그려서 두었는데, 고려시대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최치원이 해인사에 은거하였을 적에 책을 읽고 소요하던 곳이 독서당이다. 독서당 계곡은 동구밖에서 거의 10리에 이르는데, 붉은 절벽 푸른 고개에 소나무 회나무가 창창하고 바람과 물이 서로 부딪쳐서 자연히 쇠소리를 낸다. 최치원은 일찍이 이곳에서 시를 지어 바위에 새겨 놓았는데 날아갈 듯한 필치가 너무도 자유 분방하여 사람들이 모두들 그곳을 가리켜 최공의 제시석(題詩石)이라 하였다. 가야산 홍류동 계곡에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시는 스스로 은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적어 놓았다.

狂奔疊石吼重巒	미친 물 바위 치며 겹겹 산을 뒤흔드니
人語難分咫尺間	지척 사이에도 사람 소리 모르겠네.
常恐是非聲到耳	세상의 시비 소리 들릴까 두려워서
故教流水盡籠山	짐짓 흐르는 물로 산을 온통 가두었네.

최치원이 종적을 감춘 뒤로 가야산의 취적봉(吹笛峰)에서는 매양 달 밝은 밤이면 하늘에서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린다고 하

였다. 혹자는 최치원이 가야금을 뜯는 소리라고 하였는데, 그렇듯이 후세의 사람들은 모두 최치원이 신선으로 되었다고 믿었다. 최치원이 당나라에 벼슬할 적이나 동쪽의 고국에 왔을 때나 모두 난세의 어려운 시기였다. 그런 시대였기에 최치원은 스스로 시대를 만나지 못함을 상심하고 다시금 벼슬하러 나갈 생각이 없어, 산과 숲속이나 강과 바닷가에 소요하고 혼자 방랑하며 대를 쌓고 정자를 만들고 술과 대나무를 심으며 서책을 베개 삼아 풍월을 읊조렸다. 경주의 남산과 의성의 빙산(氷山), 합천의 청량사와 지리산의 쌍계사, 마산의 월영대 등은 모두 최치원이 젊은 후학들을 데리고 노닐던 곳이다.

최치원이 종적을 감춘 지 100여년이 지난 1020년(고려 현종 11) 고려 정부에서는 최치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묘(文廟)에 배향하게 하였다. 문묘는 공자를 모신 사당이다. 동양의 고대 국가에서는 공자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학교마다 공자묘를 세우고 제사를 받들었는데, 이를 문묘라고 하였다. 문묘에 배향되는 인물은 대대로 공자의 학문을 계승한 위대한 학자에 한정되었다. 고려 조정에서 최치원을 문묘에 모시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당대의 후학들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가늠하게 한다.

이렇듯 최치원은 신라 말의 뛰어난 학자요 문인이다. 고려시대 이래 학자들은 최치원을 동국의 문종(文宗)이라 하기도 하고, 동국의 유종(儒宗)이라 하기도 하고, 또 유선(儒仙)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문종이란 문학의 우두머리라는 말이고 유종은 유학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이처럼 최치원이 비록 당나라 말엽과 신라 말엽의 어지러운 시대에 태어나 스스로 가진 경륜과 포부를 실현할 수 없었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일깨움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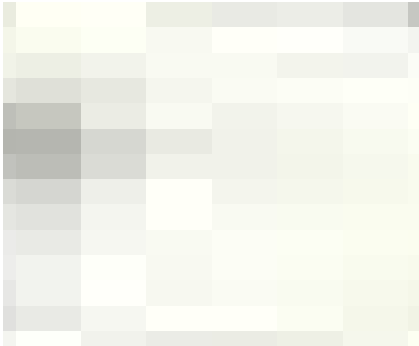
젊은 시절 당나라에 유학하여 중국에서 명성을 떨친 최치원은 당대의 세계문화를 흠뻑 맛보고 고국 신라에 돌아와서는 당대 세계문화의 정수를 신라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국의 고유문화를 중시하여 이를 계승하고자 하였다. 최치원은 신라 화랑도의 장점을 극구 칭송하여 이르기를 우리나라에 고유한 국선(國仙)은 불교(佛敎)와 유가(儒家)와 도선(道仙)의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문묘에 배향되었던 것이고, 그가 떠난 지 겨우 200여년 만에 문인 학자들이 모두 그에게 유선(儒仙)이란 칭호를 붙여 경모해 마지 않았던 것이다.

유선(儒仙)이란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유(儒)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경륜을 표방하고, 선(仙)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초탈을 의미한다. 세상에 대한 경륜과 초탈이 동시에 실현되기 어렵듯이, 이 둘은 합일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젊은 시절 인격과 학문을 닦아 세상을 향한 포부와 경륜을 품고 나아갔다가, 시대의 혼란과 사람들의 질시를 받아 거둬지는 좌절 끝에, 마침내 방랑과 소요로 자취를 감추었던 최치원에게는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말이다.

최치원은 수기치인을 표방하고 입신양명을 통하여 경륜을 실천하려했던 우리나라 유학자의 선구자였고, 또 세속적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깎듯이 끊고 은둔에 과감하였던 은사의 전형이었다. 그랬기에 그를 동국의 문종이라고 일컫고 동국의 유종이라 일컫는다. 이런 인물이 있었기에 해운대는 오늘날도 아름다운 것이다.

■ 경성대 교수 정경주

2. 정 서(鄭 敍)



고려 중기(12세기) 문인이며, 호는 과정(瓜亭)이고 동래 사람이다. 고려 인종(仁宗 : 1122 ~ 1146)의 총애를 받아 중앙정계에서 활약하였다. 의종(毅宗 : 1146~1170) 즉위 후에 죄를 입어 고향인 동래로 유배 되었으며, 명종(明宗 : 1170~1197)

정과정곡비 부산 수영구 망미동 때에 복권되었다. 《잡저》라는 시화집 3권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그가 남긴 〈정과정곡 鄭瓜亭曲〉으로 인해 한국 문학사에 그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다.

가문과 조상들

〈정과정곡〉이란 노래의 작사자인 정서(鄭敍)의 가문과 조상들에 대해서는 《고려사》 등 사서(史書)와 조상들의 묘지명(墓誌銘)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정서의 직접 조상은 동래지방에서 호장(戶長)의 일을 맡아 본 그의 증조부 정문도(鄭文道)이다. 호장은 향리의 우두머리로서 지방관인 수령을 보필하여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토착세력가인데, 대개 신라말 고려초에는 성주(城主)·장군(將軍)으로 불리면서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고 독립적으로 지방을 다스렸던 호족(豪族)이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중앙집권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므로, 호족은 점차 독립적 지위를 잃고 향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러나 동래 지방에서 정문도의 세력은 대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마정에 있는 그의 무덤이 ‘정묘(鄭墓)’라 불리우며 풍수지리상으로 명당으로 꼽히고, 화지공원 내에 자리하여 부산의 명소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동래부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정묘에 참배하고 그를 기리는 시문을 남겨놓은 기록들에서 잘 알 수 있다.

동래 정씨가 지방세력가에서 벗어나 고려의 중앙정계에까지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정서의 조부 정목(鄭穆 : 1040~1105) 때부터였다. 정목은 18세에 청운의 뜻을 품고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올라가, 33세가 되던 1072년(문종 26)에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의 관리가 된 인물이다. 그는 3품의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고 아들 3명이 모두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문벌 가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정서의 부친인 정항(鄭沆 : 1080~1136)은 《고려사》 열전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 있는 인물이다. 정항은 숙종(肅宗 : 1095~1105)때 과거에 급제하여 종2품인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에까지 올랐으며, 중앙정계의 문벌가문과 혼인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에 대한 《고려사》의 인물평에 의하면, 천품이 영리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일 처리를 잘 하였고, 정사를 논평할 때 정당하고 강직하게 발언함으로써 권세가들에게 꺼림을 받았다고 한다. 오랜 기간 임금을 측근에서 모시고 관직생활을 하였지만, 사망했을 때 집에 한 항아리의 쌀도 저축한 것이 없었다. 왕이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30년간 근시(近侍) 직책에 있었고 11년간 교서(敎書 : 임금이 내리는 글)를 짓는 일을 맡아보았는데 그렇게 가난하다니, 그의 청백함이 가당한 일이다.”하고, 쌀 일백석과 베 2백필을 보내 장례를 돕게 했으며, 문안(文安)이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한다.

성장과 좌절

정서는 정항의 7명의 자녀중 네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의 이름은 사문(嗣文)이었는데, 후일 서(敍)로 이름을 고쳤다. 3명의 형들은 어린 나이로 사망했기 때문에 독자나 다름없이 자랐다. 어머니는 왕국모(王國髦)의 딸인데, 왕국모는 헌종(獻宗 : 1094~1095) 말년에 일어난 이자의(李資儀)의 난을 토벌하고, 숙종을 왕위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여 공신이 되었고, 사망한 후에는 숙종의 묘정(廟廷 : 왕의 사당)에 배향(配享 : 신주를 모심)된 인물이다. 정서는 당대 제일의 명문가인 친·외가의 후광을 입고 태어나 아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성장하였다. 출생시기에 대해서는, 그의 부친 정항이 사망하여 묘지명(墓誌銘)을 묻은 해가 1137년이고, 이때 정서의 벼슬이 음서로 관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처음 받는 장사랑 사온승동정(將仕郎司醢丞同正)이었다는 것, 결혼하여 아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약관 20세 전후일 것이라 하며, 1115년 또는 16년 생일 것으로 보는 이가 있다.

정서의 성장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임춘(林椿)의 《서하집 西河集》에 정서의 어릴적 모습을 언급하는 시가 있는데, ‘젓 떨어질 때부터 글을 지었고, 온갖 기교 골고루 겸하였었네’라 하였으며, 《고려사》에도 ‘재능과 기예가 있었다’라 하는 것으로 보아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을 타고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이름 사문(嗣文)이나 서(敍)가 모두 문재(文才)를 발휘하여 가문을 빛내라는 의미와 연관된다는 점에서도 그에게 거는 주변의 기대가 컸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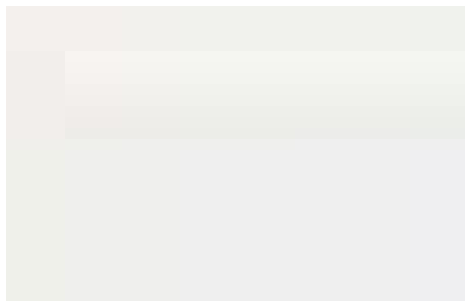
정서는 음서(蔭敍 : 부모의 음덕으로 관리가 됨)로 관계에 진출하고, 당시의 재상이던 임원후(任元厚)의 딸과 혼인하였다. 아내인 임씨는 인종의 왕비 공예태후의 여동생이므로, 정서는 임금의 손아래 동서가 된 것이다. 임춘의 시에 인종이 정서를 만나는 장면

을 묘사하였는데, ‘지존(至尊)께서 불러 만나시니, 태백을 환영하듯 수레를 보내셨네’, 곧 인종이 정서를 부르심이 당(唐)나라 현종이 이태백을 환영하듯이 하였다는 것이다. 인종의 정서에 대한 총애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묘사하는 장면이다.

정서는 인종이 사망하던 1146년 무렵 정5품의 내시랑중(內侍郎中) 벼슬에 있었다. 10년전의 관직이 종9품의 미관말직에 불과하였으니, 단기간의 비약적 승진은 인종의 총애를 받은 결과일 것이다. 정서는 왕실의 왕자들과도 사귀었다. 특히 제2왕자 대령후 왕경(大寧侯 王暕)과 친밀하였는데, 그는 도량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 정서의 처형되는 인종비 공예태후는 왕경을 사랑하여 태자로 삼으려고 하였으므로, 의종은 세자 시절부터 항상 모후를 원망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인종이 사망하고 의종이 18대 왕으로 즉위하였으니, 대령후와 친밀했던 정서의 위치는 불안하게 되었고, 주변의 견제와 모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어울릴 듯하다.

의종은 즉위 후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왕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1151년(의종 5) 환관 정함(鄭誡) 등이 ‘대령후 왕경(王暕)을 추대하려는 역모사건’이 있음을 무고하자, 왕은 평소에 동생과 우애가 없었으므로 모후가 눈치채지 못하게 비밀리에 간관들을 시켜 대령후의 죄를 추궁하게 하였다. 정서 또한 대령후와 친교를 맺고 함께 어울렸으므로 의종이 그를 의심하였다. 이 무렵 대간(臺諫)이 정서를 ‘종실들과 모여서 밤마다 술놀음을 한다’고 탄핵하니, 이에 의종은 대령부를 폐쇄하여 경(暕)의 왕자 지위를 박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였으며, 정서는 고향인 동래로 유배하였다가, 1157년(의종 11)에는 유배지를 거제도로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서가 귀양에서 풀려난 것은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 의종이 시해되고 명종이 즉위한 1170년이었으며, 동래로 귀양보내 진지 19년 만이었다.

유배생활과 정과정곡



중앙정계를 떠나 멀리 떨어진 고향땅에서 유배생활을 하게된 정서가 동래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잘 알려진 바 없다. 농사 짓는 농부로서 참외밭을 돌보면서 곤궁하게 살았다고

정과정 옛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

보는 이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실각해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향리에서 대대로 축적한 경제력에 의존하여 여유롭고 자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동래 정씨 일가가 부산 일대에서 대대로 거주해 온 유력자 가문임을 생각하면 후자의 견해가 옳을 듯하다.

정서는 동래현의 남쪽 10리쯤 되는 곳에 정자를 짓고, 참외를 심고 자연을 벗삼아 세월을 보내면서 왕의 약속을 믿고 부름을 기다렸다. 정서가 귀양살이를 떠날 때 왕이 그에게 이르기를 “이번 일은 조정의 공론으로 부득이 해서 한 일이니, 가 있으면 곧 소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정서는 왕의 부르심을 학수고대하였으나 세월만 흘러가고 좋은 소식이 없자, 거문고를 타며 서글픈 노래를 불렀다. 정서는 스스로 과정(瓜亭)이라 호를 지었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그가 지은 노래를 작자의 호를 따서 ‘정과정곡’이라고 불렀다.

《고려사》〈악지 樂志〉에는 정과정곡이 작사 작곡된 전후 사정을 간략히 적은 다음에 이제현이 한문으로 번역한 한시(漢詩)를 실고 있다.

억군무일불점의(憶君無日不露衣) 님 생각하는 눈물 옷깃
적시지 않은 날 없었어라

정사춘산촉자규(政似春山蜀子規) 봄밤 깊은 산중의
두견새야! 내 신세도 꼭 너 같구나!

위시위비인막문(爲是爲非人莫問) 묻지 말아라!
사람들아 지난날 나의 잘못을.

지응잔월효성지(只應殘月曉星知) 다만 내 가슴 알아주기는
저 조각달과 새벽 별 뿐이리라!

그런데 같은 내용이 16세기에 편찬된 성현의 《악학궤범 樂學軌範》에 〈삼진작 三眞勺〉이란 이름의 우리말 가사로 실려 있다. 전반부 내용은 같은데, 중·후반부에 많은 내용이 더하여지고, 감탄사와 운율이 적절히 어울려서 우리말 노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내 임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더니
산점동새 난 이숫흐요이다	두견새와 나와는 비슷합니다 그러
아니시며 거츠르신들 아으	아니며 거짓인 줄을 아 —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지새는 새벽달과 새벽 별만이
아르시리이다	아실 것입니다
넋시라도 님은 흐디 너저라 아으	넋이라도 임과 한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아 —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어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물헛 마리신더	말짱한 말씀이었구나
슬웃븐더 아으	죽고만 싶은 것이여 아 —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저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 님하 도람드르샤 괴오쇼셔	맙소서 임이시어, 돌려 들으시어
	사랑하소서

이 노래 말에 나오는 님은 정서 자신을 귀양보낸 의종일 것이라 한다. 자신을 멀리 내친 국왕을 그리는 마음이 애절히 표현된 정과정곡은 그래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 : 충신이 임금님을 사모하는 노래)라고도 불린다. 이 노래를 지은 시기는 동래에서의 귀양살이가 끝나가는 시점, 곧 거제도로 유배지를 옮기기 이전인 1157년(의종 11)경으로 본다. 이 해는 의종의 첫 왕자가 출생한 정축년으로 전국에 대대적 사면령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정서를 부른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정서는 기대가 실망으로 뒤바뀐 슬픔을 가눌 길 없어,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불러 쓸쓸하고 외로운 심사를 달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려진 노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멀리 퍼져나갔고, 점차 귀족층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궁중의 연회 때 연주되는 노래로 자리잡게 되었다.

‘정과정곡’의 문학사적 위치

정서의 정과정곡은 고려·조선시대 문인과 학자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춘이 ‘앞길을 비춰줄 보배를 이제야 턱 아래서 찾은 듯하다’는 평가를 하였고, 고려말 이제현이 이를 한역하여 《고려사》〈악지〉에 실었으며, 조선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金時習)도 정중승 적거동래 대월무금(鄭中丞 謫居東萊 對月撫琴)이란 시를 지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성호(星湖) 이익(李瀾)은 ‘정과정곡’이 오래 남아 전승되길 바라는 마음과, 학문과 덕행을 갖춘 신하들이 간악한 무리의 참소 등으로 쫓겨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염원의 시를 남겼다.

정서는 어느 곳에 정자를 세웠던가
화성과 옥당 부근인가
멀리 붉은 해 돋는 푸른 바닷가라네

.....

악보 따라 부르는 소리 비상감만 더해가네
 바라노니 이 곡조 천만년 전해지길
 얼마나 많은 사람 계면조로 방황할까

이처럼 문인들 사이에서 정과정곡이 회자된 이유는, 그것을 짓게 된 동기가 크게 감명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귀양지에서도 임금을 향한 사모의 정을 간절히 노래한 ‘정과정곡’은 충절을 중요 덕목으로 내세우는 고려·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익히고 배워야 할 필수 교양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실각되어 멀리 귀양을 떠난 유배객들이 자신과 정과정을 동일시하고, 그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심중을 토로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보는 〈정과정곡〉은 옛 선인들이 추구하고 갈망했던 바람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임금을 사모하는 충절의 의미도 퇴색되었고, 정과정을 노래하던 악곡도 전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과정곡은 한국 문학사에서 그 위치와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말로 전하는 고려가요 가운데 작자가 확실하고 제작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유일한 노래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훈민정음으로 적혀 있는 몇 안되는 노래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작자가 동래출신이라는 점도 부산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정감을 돋우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노래가 800년 이상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미치면, 자칫 일실(逸失)할 뻔하였던 우리 무형문화재의 보존이란 차원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문학이나 한시가 우리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될수록 한글 문학은 그 찬란한 빛을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서의 지난날 아픔을 되새기고 그의 문학을 기리려는 사람들이, 옛날 정서가 참외를 심었던 장소를 역사현장으로 보존하려는 노

력을 추진하여, 토곡의 연산 1동에서 8동을 지나는 길을 과정로라 하고, 연산 9동 수영천 가까이 있는 학교 이름을 과정초등학교라 하였다. 그리고 정서가 개경을 향하여 북방요배를 하였다고 생각되는 수영구 망미동에 정과정비를 세워, 역사와 문화에 대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서에게 있어서 죄 없이 밀려난 20년의 유배생활은 말할 수 없는 개인적 불행이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점철된 나날이었겠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그의 노래 정과정곡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우리 문학의 정수를 일깨워 줄 것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명구가 그 의미를 더욱 새롭게 한다. ■ 부산대학교수 정용숙

3. 장영실(蔣英實)

장영실, 그는 부산이 낳은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이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과학자하면 금속 활자·자격루 등을 만든 장영실(蔣英實)을 떠올린다. 그는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한 인물이다. 장영실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 과학자의 길을 걸었는가?

《세종실록》권61, 1433년(세종 15) 7월 조에는 ‘행사직(行司直) 장영실은 그 아버지가 원의 소항주(蘇杭州) 사람이고,



장영실 영정

어머니는 기생[官妓]이었는데, 공교(工巧)한 솜씨가 보통 사람에 비하여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시었다’라고 하였고, 권65, 1434년(세종 16) 7월조에는 ‘영실은 동래현 관노인데, 성품이 정교하여 항상 궁궐 내의 공장(工匠) 일을 맡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 《아산장씨족보》에는 8대조인 시조 장서(蔣壻)는 고려전기 송나라에서 건너 왔으며, 아버지는 고려말 정3품 전서(典書)를 지낸 장성휘(蔣成暉)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자료인 《세종실록》과 《아산장씨족보》에서 장영실의 출신에 관한 기록은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자료 중에서 어느 기록이 역사적 정확성을 갖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세종실록》과 《아산장씨족보》를 통해 추정한다면 장영실의 선대(先代)는 중국인이었음이 분명하다. 장영실은 아버

지 장성휘와 동래현의 기생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이로 인해 동래현의 노비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관청의 노비는 아주 미천한 신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천인 신분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관노 신분인 장영실이 어떻게 관직에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장영실의 개인적 능력에서 비롯되고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귀하게 인정한 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장영실은 공교한 솜씨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하거나 성품이 정교하여 궁궐 내의 공장을 맡았었다고 한다. 장영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능력을 인정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교한 솜씨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것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왕실에서 관직생활을 하기 이전 즉 동래현의 노비로 있을 때부터 이미 발휘하였다. 따라서 장영실은 동래현의 노비로 있을 때부터 어떤 물품을 만들어내는 과학적 재능이 정말 탁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영실은 과학적 재능으로 동래현 노비에서 일약 왕실의 관리로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장영실의 과학적 재능은 널리 알려져 태종과 세종에게 전해졌다. 《세종실록》세종 15년 9월조에 ‘태종이 그를 보호하였다. 나도 역시 그를 아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태종과 세종이 장영실을 얼마나 총애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왕이 관청의 노비를 보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느 정도의 과학적 재능으로는 불가능하였다. 이렇게 장영실은 탁월한 과학적 재능만으로 태종과 세종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장영실은 관의 노비라는 억압된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과학적 재능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아울러 얻었다.

태종과 세종의 보살핌 속에서 장영실의 과학적 재능이 널리 알려진 시기는 대략 태종 후반 혹은 세종 초기였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관직과 역할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433년(세종 15) 세종이 장영실을 무관직인 호군(정4품)에 임명하려고 여러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기록에 의하면, 1422년(세종 4)·1423년(세종 5) 무렵에 왕실의 기관인 상의원(尙衣院) 별좌(別坐 : 종5품)에 임명하고자 이조판서 허조(許稠)와 병조판서 조말생(趙末生) 등과 의논하였다고 한다. 상의원은 궁궐 사람들이 입는 옷, 특히 임금의 옷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이다. 그렇다고 장영실은 왕실의 옷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도 세종이 과학기술자인 장영실을 상의원 별좌란 관직에 임명한 것은 그를 왕실의 가까이에 두고 새로운 과학기술품을 만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장영실은 세종 초기 세종의 의도에 따라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일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여하튼 노비출신인 장영실은 종5품의 파격적인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후 1425년(세종 7) 이전에 무관직인 사직(司直 : 정5품)으로 전직되었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433년(세종 15)에는 호군, 그리고 대호군에 임명되었다. 장영실은 세종대의 중반에 이르러 여러 차례 승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의 과학적 재능의 발휘와 무관하지 않다.

장영실은 1421년(세종 3) 세종의 명령으로 명(明)나라에 파견되어 천문기기와 관련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 명나라에는 원(元)대의 발달된 과학기술 자료들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었다. 따라서 장영실은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과 자료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는 장영실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실현케 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장영실은 명나라에서 돌아온 이후 1422년(세종 4) 천문기기의 제작을 지시 받으면서부터 과학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

었다. 즉 장영실의 과학적 재능은 명에서 돌아온 이후 1422년(세종 4)부터 1442년(세종 24) 사이에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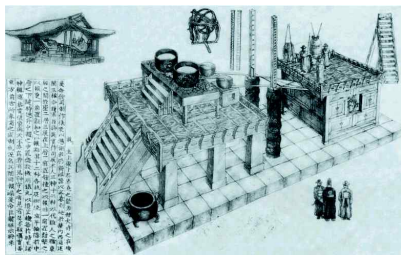
장영실에 의해 만들어진 과학기술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시계’이다. 물시계는 이미 1398년(태조 7)에 만들어진 ‘경루(更漏)’가 있었다. 이는 고려말기의 물시계와 같은 형식으로 장영실이 물시계를 만들기 이전의 제품이다. 따라서 경루는 장영실과 관련이 없다.

《연려실기술》과 《세종실록》에 의하면 장영실은 1423년(세종 6) ‘청동물시계’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청동물시계는 《연려실기술》에서는 시간을 알리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세종실록》에서는 중국의 체제를 참고하여 주조한 경점(更点)의 기(器)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발명은 중국의 물시계를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시점에서는 새로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동물시계는 간혹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시계가 시각을 표시해 주면 옆에서 관리가 시각을 확인하고 직접 종을 쳐서 시각을 도성 곳곳에 직접 전달해야만 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장영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433년(세종 16)에 새로운 자동 물시계를 완성하였다. 즉 그것은 우리나라 시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자격루(自擊漏)’이다. 자격루는 김빈(金鑓)과 함께 2년이나 걸려 만든 것이다. 《세종실록》과 김돈의 《보루각기》에 의하면 ‘이 날(7월 1일)부터 비로소 새 물시계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전에 쓰던 물시계가 정밀하지 못하여 세종께서 물시계를 고쳐 만들도록 명령하였다. 물을 공급해 주는데 쓰는 용항아리[播水龍壺]는 4개인데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물을 받는데 쓰는 용항아리[受水龍壺]는 두 개인데 물을 갈아 넣을 때에 바꾸어 쓴다. ... 밤의 잣대는 예전에는 21개였는데, 갈아 쓰는 데에 번거로워 다

시 수시력(授時曆)에 의거하여 낮과 밤의 장단에 따라 두 절기를 요약하여 잣대 하나를 쓰니 모두 12개이다. 간의(簡儀)를 참고하여 털끝만치도 틀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격루는 청동제 자동물시계를 만든 후 꼭 10년만의 일이다. 이 자동물시계는 경회루 남쪽에 세워진 보루각(報漏閣)에 설치되어 1434년 7월 1일부터 국가의 표준시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자격루는 공학적으로, 부력에 의해 얻은 힘으로써 1차적으로 시보용 시간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것으로 기계적인 2차 구동 신호를 발생시켜 12시 시계와 밤시계의 시보장치를 동작하게 만든 자동시계 장치라는 것이다. 이로써 조선은 새로운 완벽한 정밀기계 장치의 자동 표준시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은 장영실과 김빈의 자격루를 가리켜, 그 시계 장치가 움직이는 것이 귀신과 같아서 보는 이마다 감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극찬하고 있다. 그 자동 장치가 거의 완벽하였던 것 같다.



보루각 자격루
복원 그림

세종실록 보루각기를
근거로 남문현 교수가
복원함

정말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발명품을 동래(부산)의 노비 출신 장영실이 만들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장영실은 세종 16년 갑인자로 불리는 금속활자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다. 갑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태종대의 계미자 등의 활자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세종은 이러한 활자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장영실은 세종의 명령에 의해 이천 등과 함께 1434년(세종 16) 갑인년에 무려 20만자의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갑인년에 만들었다고 하여 이를 갑인자라 부른다. 갑인자는 동시에 많은 서적을 인쇄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영실이 만든 갑인자는 세종대 이후 많은 서적을 인쇄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조선전기 학문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갑인자로 인쇄한 서적들은 조선전기에 인쇄된 여러 서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금속활자 인쇄물로 평가되고 있다.

장영실은 탁월한 과학적 재능으로 세종의 총애를 받아 대호군(종3품)으로 승진하였다. 노비출신으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높은 관직이다. 이후 장영실은 세종의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 1438년(세종 20) 1월에 옥루(玉漏)를 만들었다. 옥루는 글자 그대로 임금님의 물시계인데, 천상시계(天象時計)이다. 김돈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여러 자동시계들은 모두 사람의 손이 조금씩 가야 하는데, 장영실의 옥루는 저절로 치고 저절로 운행하는 것이 마치 귀신이 시키는 듯하여 사람마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겨서 그 연유를 측량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는 장영실이 만든 옥루가 가진 과학성 즉 새로운 자동시계장치의 발명을 예찬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다.

세종은 경복경 천추전(千秋殿) 서쪽 왕의 침실 바로 옆에 함경각(欽敬閣)을 세우고, 그곳에 특별히 옥루를 설치하게 했다. 이러한 세종의 뜻은 장영실이 만든 옥루를 그만큼 흠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종은 아마도 새벽이나 아침에 옥루의 시간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것이다.

함경각에는 또 자동시계의 배경으로 농촌의 4계절의 광경을 그린 화폭을 세우고, 선녀가 방울을 들고 나타나는 모양, 사람·동물·나무 등을 나무로 조각하여 농촌의 자연을 재현하는 등 여러 가지 움직이는 모습을 한 인형이 나타나고 사라지게 만들었다. 장영실의 옥루는 임금님의 시계로서의 감동을, 보는 사람에게 신기함을 표출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세종대에 표준시계인 자격루, 천문시계인 혼천의, 그리고 천상시계인 옥루 등의 세가지 자동시계를 갖추게 된 것이었다.

장영실의 옥루는 그 후 100년이 넘게 신기한 자동시계로 왕들

의 사랑을 받아오다가 명종 초에 경복궁의 실화로 불타 없어졌다가 1554년(명종 9) 장영실이 남긴 설계도에 의해 복원되었는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장영실의 과학적인 재능을 생각하게 한다.

장영실은 자격루를 만드는 동안에도 여러 종류의 천문관측기구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다. 1432년(세종 14) 정인지와 정초가 연구하여 정리한 천문고전 자료를 바탕으로 장영실은 이천(李蕝)과 함께 먼저 나무로 만든 간의(簡儀)를 완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영실은 청동으로 여러 의상(儀象)을 부어 만드는 일에 착수하여 7년만인 1437년(세종 19)까지 여러가지의 기기를 완성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시계인 앙부일구(仰釜日晷), 휴대용 해시계인 현주일구(懸珠日晷)와 천평일구(天平日晷), 지남침을 쓰지 않아도 남북이 스스로 정해질 수 있게 만든 정남일구(定南日晷), 밤낮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인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등이 그것이다. 앙부일구란 가마솥 또는 대접 모양의 그릇이위를 향해 있는 모양을 한 해시계란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영실은 물시계인 자격루와 옥루, 금속활자와 천문관측기구 등의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자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악기와 측우기 등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대호군 장영실은 1442년(세종 24) 그의 감독하에 만들었던 왕이 타는 수레 즉 승여(乘輿)가 부러지는 사건 때문에 불경죄로 의금부에 투옥되었다. 세종의 배려가 있었지만 결국 장형을 받은 이후 파면되었다. 이는 조선 세종대의 과학기술을 선도했던 인물이 너무 허무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아쉬운 순간이었다. 이후 장영실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언제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정말 위대한 과학자가 태어난 시기도 알 수 없고, 사망한 시기도 알 수 없이 너무나 허무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은 아쉽울 뿐이다. 다만 자격루와 옥루 등을 비롯한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

기술품들은 장영실을 역사의 무대에서 계속 살아 숨쉬게 한다. 그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세종 24년 이후에도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명품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말 철저했던 신분제 사회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과학적 재능 하나만으로 관의 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한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장영실은 그의 과학적 재능도 재능이지만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세종의 의지와 맞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즉 그의 뛰어난 과학적 재능과 함께 그의 과학적 재능을 이해한 세종이 있었기에 그는 과학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한편 장영실의 후손과 각계 각층의 인사들은 장영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과학선현 장영실 선생 기념사업회(서울)’를 결성하였고, 또 ‘장영실과학문화상’을 제정하여 그를 헌창하고 있다. 근래에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에 있는 장영실의 묘역을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1984년에는 추모 기념비를 제막하였다. ■ 부산대 교수 이종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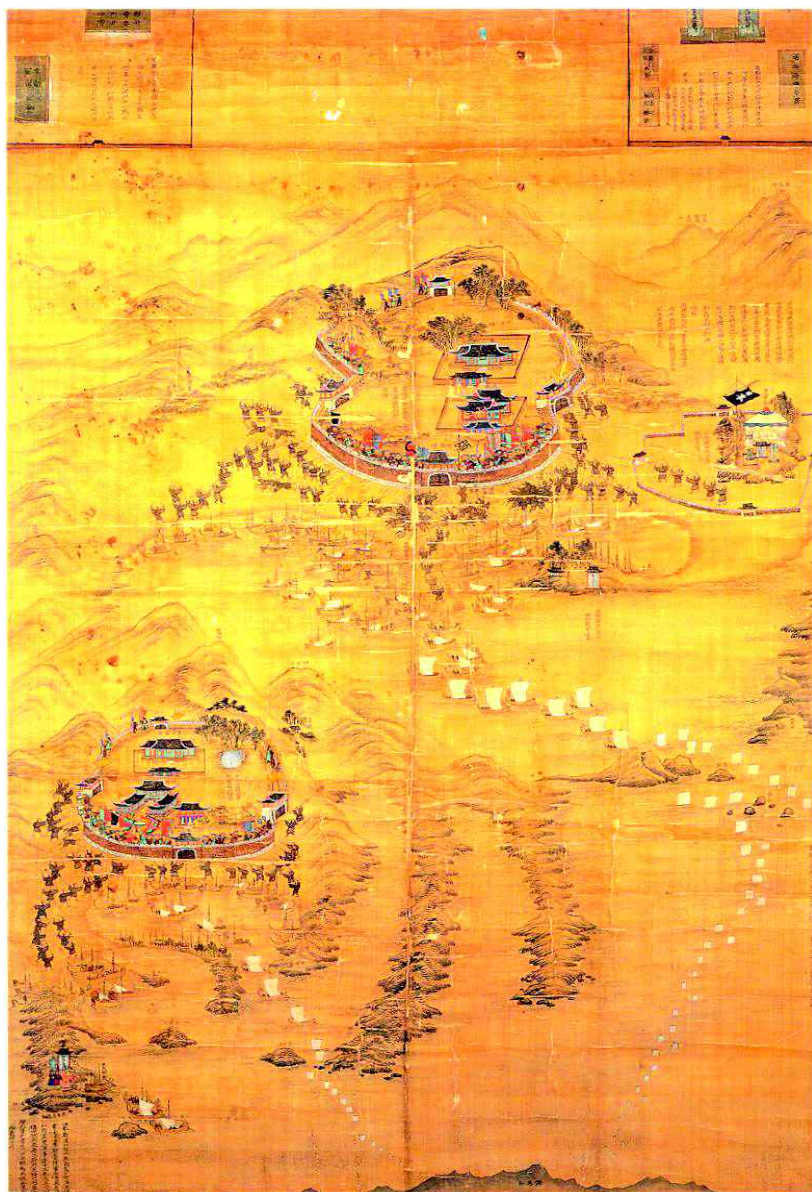
장영실 묘역

충남 아산시



충렬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임진전란도

서울 규장각 소장

4. 송상현(宋象賢)

1592년 4월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상 미증유의 큰 전란이었다. 왜군이 부산포에 침입하여 수도 서울을 함락할 때까지 연도(沿道)의 수령(守令)·방백(方伯)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침략하는 적군에 맞서 싸워야 할 관군(官軍)을 지휘하는 장수들마저도 미리 겁을 집어 먹고 한번 싸워 보지도 않고 주어진 국토 방위의 임무를 팽개치고 달아난 일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 오로지 끓어오르는 충의심(忠義心)을 분발하여 최후까지 적과 싸우다 장렬한 최후를 마친 동래 부사 송상현은 우국충절의 귀감이라 할 것이다.



송상현 동상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송상현의 자는 덕구(德求)요, 호는 천곡(泉谷)이며 본관은 여산(礪山)으로 청주사람이다. 그는 1551년(명종 6) 1월 8일에 송화현감(松禾縣監) 복흥(復興)을 아버지로 하고, 안동 김씨(安東金氏)를 어머니로 하여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유달리 총명하여 이미 십여세의 어린 나이에 경사(經史)에 통달하였고, 책을 불과 세번만 읽어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였다. 겨우 나이 열다섯에 승보시(陞補試)에 장원하니 고시관(考試官)이 그 문장을 읽어 보고는 놀라서 “이 아이는 수재이다. 뒷날 반드시 큰 재목이 될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그가 지은 시문(詩文)은 반드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사귀는 이들은 모두 한 때의 영민하고 준수한 사람들이었다.

마침내 스무 살이 되던 해에는 소과(小科)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고, 6년 후 1576년(선조 9)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 正字)에 보임(補任)되었다. 이어 1578년에는 저작(著作)이 되고, 1579년에는 박사(博士)로 승진하는 한편 추천을 받아 승정원 주서(承政院 注書) 겸 춘추관 기사관(春秋館 記事官)에 임명되었다가 임기가 만료되자 외직으로 나가 경성판관(鏡城判官)이 되었으며, 1583년에는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들어와서 예(禮)·호(戶)·공(工) 3조(三曹)의 정랑(正郎)을 역임하였다. 1584년과 이듬해 1585년에는 종계변무사(宗系辨誣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두 번이나 명나라의 수도 북경에 다녀왔으며 1586년에는 지평에서 은계도 찰방(銀溪道察訪)에 좌천되었다가 이듬해에 다시 들어와서 지평이 되었다. 1588년에는 다시 외직으로 황해도의 배천군수(白川郡守)로 나가서 삼년만에 돌아와 충훈부(忠勳府)의 경력(經歷),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하고 1591년 8월에는 마침내 동래부사에 임명되었다. 때는 실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개월 전이었다.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침략 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쓰시마 도주(對馬島主)를 시켜 조선의 내정을 정탐하는 한편 양국간의 수교를 요청하고, 또 명나라 정벌을 위해 일본군이 조선을 통과할 수 있게 길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조선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도요토미는 조선 침공의 뜻을 굳히 고서 군사를 징발하고 병선을 제조하는 등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조선은 당쟁으로 말미암아 지배층이 분열되어 정치는 어지럽고 국방은 허술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쓰시마 도주의 주선으로 모처럼 일본에 파견되어 그 곳의 동정을 살피고 돌아온 황윤길(黃允吉)·김성일(金誠一) 등 통신사 일행의 서로 엇갈린 정세 보고는 결국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쪽으로 기울어져 국방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때에 동래부사로 부임한 송상현은 오로지 성심과 신의

로써 백성을 다스리고 직무를 수행하여 수령의 직분을 완수하는 동시에 만일 왜적이 국토를 침범하여 전쟁이 났을 때는 결사보국(決死報國)을 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동래부사에 부임한 후 그의 막역한 친구로 정산현감(定山縣監)에 재직중이던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에게 보낸 시(詩)에 잘 나타나 있었다고 한다.

마침내 4월 13일에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거느리는 왜군 제1진이 부산에 침입함으로써 드디어 임진왜란은 터지고 말았다. 이튿날 14일 새벽부터 시작된 한 나절의 전투에서 부산진성은 어이없이 무너지고 부산첨사 정발(鄭撥)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적과 싸우다가 적이 쏜 탄환에 맞아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이때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은 적의 상륙에 이어 정발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영(水營)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경상좌병사 이각(李珣)은 적병이 부산에 상륙한다는 보고를 받고 울산 병영(兵營)으로부터 동래성에 달려왔으나 부산진성이 함락되자, 겁을 집어먹고는 어쩔 줄을 몰라하면서 말로는 밖에 나가서 적을 막는다 핑계하고 성을 빠져나와 소산역(蘇山驛 : 금정구 선동)으로 퇴진하려 하였다. 이에 동래부사 송상현이 함께 성을 지키기를 간청하였으나 그는 듣지 않고 “나는 스스로의 진영(陣營)이 따로 있으며, 이곳은 나의 관할 지역이긴 하지만 이 성을 지키는 것은 그대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도망하고 말았다. 수사와 병사는 한도의 수륙군을 지휘하는 주장(主將)으로서 적을 막아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병이 오기도 전에 국가의 요새(要塞)를 이와 같이 버리고 달아났으니 싸움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부산진성을 함락한 왜군은 이긴 기세를 타고 14일 오후부터 동래성으로 진격하였다. 평소에 칼 한 번 손에 잡아 본 일이 없는 문관 출신의 동래부사 송상현은 개연(慨然)히 성과 운명을 같이



동래부 순절도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

할 것을 굳게 결심하고 군사와 민중들을 불러 모아 성을 끝까지 사수하기로 하였다. 적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 앞서 취병장(聚兵場 : 옛 농주산, 현 동래경찰서 자리)에 군사들을 집결시킨 후 100여 명의 군졸들을 시켜서 목패(木牌)에다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 [戰則戰矣, 不戰則假我道]는 글을 써서 남문 밖에 세워 두고 돌아갔다. 이에 대하여 송상현은 역시 목패에다 “싸워서 죽는 것은 쉽지만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 [戰死易 假道難]고 써서 적진에다 던졌다. 이것은 송상현이 막강한 적을 눈 앞에 두고 자신의 결사 항전의 뜻을 내어 보인 것이었다.

이에 적은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황령산 밑과 서대로(西大路), 그리고 취병장에서 일제히 남문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날 어두울 무렵에는 벌써 성이 세 겹이나 포위되었건만 송상현은 군사들을 독전(督戰)하면서 하룻밤을 버티었다. 이튿날 15일 새벽이 되자, 적은 성의 후면 높은 곳에서 성안을 내려다 보면서 함성을 지르고 조총을 난사하니, 벌써 성 안의 민심은 흥흥하여 호곡(號哭)소리가 터져 나오고 성중의 민중들이 이리로 몰리고 저리로 몰려 아비규환(阿鼻叫喚)의 상태로 변하였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적은 동북쪽 성벽을 허물고 난입하여 닥치는대로 쏘아 죽이고 베어 죽이니 양산군수 조영규(趙英圭), 조방장(助防將) 홍충관(洪充寬), 교수 노개방(盧蓋邦) 등 허다한 사람들이 모두 굶히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항거하다가 죽었으며, 무기를 갖지 못한 민중들은 혹은 몽둥이를 들어 치기도 하고, 혹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벗겨 던지면서 적과 처절한 싸움을 전개하였다.

당시 부사 송상현은 남문에서 힘겨운 독전을 계속하다 조수처럼 밀려오는 적군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곧 갑옷 위에 조복(朝服)을 받쳐 입고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이 호상(胡床)에 꼳꼳이 앉으니 우뚝하기 산악과 같았다. 이 때 적 중에 다이라(平調益)라는 자가 있어 일찍이 통신사를 따라 왔다가 송부사에게 후한 대접을 받은 일이 있었으므로, 이에 보답하기 위해 눈짓으로 몸을 피하여 위기를 모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조용히 호상에서 내려와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하여 국왕에게 정중히 하직의 예를 올렸다. 예를 마치자, 다시 손에 붓을 잡고 “고성월운(孤城月暈), 열진고침(列鎭高枕), 군신의중(君臣義重), 부자은경(父子恩輕)” 이란 시 한수를 적어 멀리 고향에 보냄으로써 그의 아버지에게 하직하자, 적병들은 칼을 휘두르면서 미친 듯이 달려들어 마침내 그들의 손에 비장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 때 그의 나이는 42세였다. 좌우에 벌여서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군관 송봉수(宋鳳壽)·김희수(金希壽)와 향리 대송백(大宋伯) 등도 적병과 격투를 벌이다 죽었으며, 첩실(妾室)로 따라왔던 금섬(金蟾)도 사흘동안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적을 꾸짖고 욕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당시 그의 아버지에게 지어 올렸다는 시의 내용을 대충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孤城月暈	외로운 성은 달무리 지듯 포위되고
列鎭高枕	이웃한 여러 진은 잠든 듯 고요하네.
君臣義重	임금과 신하 의리 무거운 것이오매
父子恩輕	아비와 자식 은정 가벼이 하오리다.

사면이 적에게 둘러싸인 외로운 성 중에서 힘이 다하도록 싸웠으나 끝내 전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군신의 의리를 살려 죽기

로 결심한 한 선비의 충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송상현의 이와 같은 죽음은 그의 강개(慷慨)한 천품과 평소에 익혀 온 충군(忠君)·애국(愛國)의 유교적 윤리에 입각한 굳은 신념에 바탕을 둔 선비 정신의 발현(發現)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부사 송상현을 죽이고 동래성을 함락한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소오 요시모치(宋義智) 등은 송상현의 순충의절(殉忠義節)에 감탄한 나머지 부하들을 시켜서 관을 마련하여 시체를 수습하고 성 밖에 묻어 묘표(墓表)를 세워 주는 동시에 그에게 가해한 자를 찾아 내어 의로운 사람을 해쳤다고 죽이기 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에 보이고 있으니, 그의 나라를 위한 순절은 침략자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송상현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후 그 순절의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드디어 1594년에는 나라에서 이조판서를 추증(追贈)하고, 이어 1681년에는 좌찬성(左贊成)의 가증(加贈)과 충렬(忠烈)의 시호가 내려졌다. 한편 동래에는 1605년의 송공사(宋公祠)에 이어



송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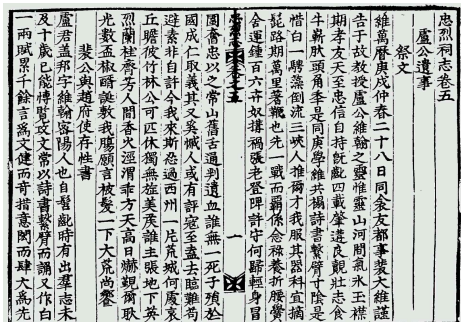
부산 동래구 복천동

1624년에 충렬사(忠烈祠 : 송공사의 사액 후 명칭), 1652년에는 안락서원(安樂書院 : 충렬사를 여기에 이전), 1742년에 송공단(宋公壇)이 연달아 세워져서 몇 백년을 두고 송상현을 추모하고 그의 충절을 기려왔다. 이러한 사이에 송상현은 이 고장을 충렬의 고장으로 명성을

드높여 이 지방 부산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한 잇을 수 없는 인물로 확실히 인식되어지기에 이르렀다. 그가 순국한 지 400년이 훨씬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산에서 추모의 열기가 조금도 가시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할 것이다.

□ 노개방(盧蓋邦)

노개방의 자는 유한(維翰)이고, 본관은 풍천(豐川)이니 1563년(명종 18)에 유학(幼學) 일(駟)의 아들로 밀양 중봉리(中峰里)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하여 매우 어렵게 지냈지만,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하여 이미 열 살이 되기도 전에 능히



노공유사

충렬사지 권 4

많은 책을 읽고 글을 익혔으며, 늘 시서(詩書)를 손에 놓지 않고 송독(誦讀)하였다.

그 후에 백일양부(白一兩賦) 누천여언(累千餘言)을 지었는데, 그 글이 힘차고 기발하며 뜻을 둔 것이 크고도 호방(豪放)하여 선배들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 지방에서 재주가 뛰어난 선비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 그는 아버지를 섬김에 효성을 다하고, 벼를 사림에 믿음과 성실성이 있으며, 어떤 일에 이르러서는 조금도 구차스럽지 않고 경개(耿介)하여 지조를 지키니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됨을 높이 평가하였다.

드디어 공부한 보람이 있어 26세 되던 1588년(선조 21) 3월에 실시한 식년문과(式年文科)의 병과(丙科)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연로(年老)한 까닭에 고향인 밀양에 가까운 동래교수(東來敎授)로 임명되었다. 교수는 고을 향교의 유생(儒生)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예절을 지도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서 그는 여기에 부임하자 오직 직무에 충실하여 열심히 유생들을 가르쳐 유화(儒化)를 크게 떨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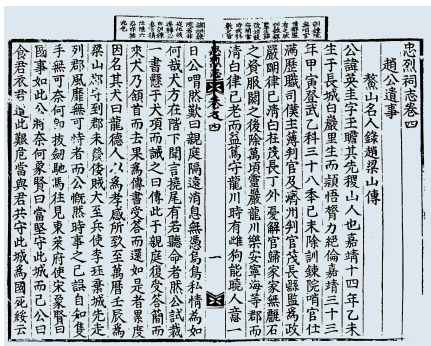
1592년 4월, 마침 아버이를 뵈오러 고향 밀양에 간 사이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말았다. 밀양에서 전란이 일어났다는 급보에 접한 그는 황급히 동래로 달려와서 향교에 도착하니 이미 선성(先聖 : 공자)의 위패(位牌)는 성내의 정원루(靖遠樓 : 동래객사)로 옮겨지고 문묘(文廟 :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는 텅 비어 있었다. 이에 그는 성의 남문을 두드리면서 대성통곡하니 부사 송상현(宋象賢)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이를 의롭게 여겨 잠깐 성문을 열어서 그를 들어오게 하였다. 그는 즉시 정원루에 나아가 모셔 둔 위패 앞에 예를 올리고는 그 자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서 있었다. 마침내 성이 적에게 함락되자,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굶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니 이 때 그의 나이 경위 서른 살이었으며, 함께 있었던 유생 문덕겸(文德謙) 등도 모두 죽임을 면치 못하였다. 한편 밀양에 있던 부인 이씨(李氏)도 후에 적을 만나자, 남편의 홍패(紅牌 : 문과 급제자에게 주는 붉은 종지로 만든 증서)를 가슴에 안고 높은 언덕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몸을 더럽히지 않고 죽으니 남편은 충의로운 사람ियो, 아내도 열녀였다.

노개방은 일개 향교의 교수로서 한 고을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수령도 아니요,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도 아니었다. 더구나 말미를 받아서 아버이를 뵈기 위해 고향에 돌아갔다가 그 곳에서 전란을 맞았으니, 설사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당시의 편의에 따라 피란을 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흉봉(凶鋒)을 무릅쓰고 적에게 포위된 성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항거하다 죽었으니, 이는 정말 의리를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긴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국가에서는 그에게 도승지(都承旨)를 추증하고 동래 충렬사(忠烈祠)와 밀양 중봉서원(中峰書院)에 배향하여 그를 기리고 추모하였다.

□ 조영규(趙英圭)

조영규의 자는 옥첨(玉瞻)인데, 후에 국헌(國獻)이라 고쳐 불렀다. 그 선대는 직산(稷山) 사람으로 1535년(중종 30)에 전라도의 장성(長城) 백암리(白巖里)에서 아버지 수의부위(修義副尉) 준(準)과 어머니 파평윤씨(坡平尹氏) 사이에 태어났다.



조공유사

충렬사지 권 4

그는 어려서부터 남보다 총명하고 완력(腕力)이 뛰어났으므로 나이 스무살이 되던 1554년에는 붓을 꺾고 무과에 응시하여 급제 함으로써 무관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처음에 훈련원 참외(參外)로 발탁되었는데, 임기가 만료되자 사복시의 판관(判官)·주부(主簿)에 승진되었다가 외직으로 나가 제주판관(濟州判官)과 무장현감(茂長縣監)이 되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해 고향에 돌아와서 복상(服喪)하였다. 삼년 상을 마치자, 다시 벼슬길에 올라 전라도의 만경(萬頃)·영암(靈巖)·낙안(樂安)과 평안도의 용천(龍川), 그리고 경상도 영해(寧海) 등 여러 고을의 수령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비록 궁마(弓馬)로써 벼슬길에 나섰지만 평생에 자신의 몸 다스리기를 유학을 공부한 선비처럼 하였으며, 관직에 있을 때는 청렴결백과 절용검소(節用儉素)를 생활의 신조로 삼아 어버이께 드리는 맛있는 음식 외에는 단 한 가지의 물건도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다.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노모에 대한 효도를 더욱 극진히 하여 임지(任地)를 옮길 때마다 언제나 모시고 다녔는데, 오직 용천군수에 재직했을 때 만은 이곳이 변경 지방에 있는 고을이라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였다. 용천은 집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매양 어머니께 자주 문후(問候)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르고 있던 개가 주인의 효심(孝心)에 감화된 나머지 수천 리의 먼 길을 왕래하면서 편지를 전달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올 정도로 그의 어머니에 대한 효성은 지극하였다.

1592년(선조 25)에 그는 양산군수에 재직하고 있었다. 4월 13일에 왜군이 부산을 침범했다는 급보를 접하자, 성을 지키면서 싸우고자 하여도 군사와 병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적을 맞아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판단하고 얼른 말을 몰아 송상현(宋象賢)이 부사(府使)로 있는 동래로 달려갔다. 동래에 도착한 그는 송부사를 만나 “나라의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공은 장차 어찌하시렵니까?” 하니 송부사는 “마땅히 이성을 죽음으로써 지킬 따름입니다.”하였다. 이에 그는 곧 말을 받아서 “내 또한 한번 죽을 일이 있지만 그 장소를 얻지 못했으니, 청컨대 공과 함께 지키다가 죽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송부사는 그의 손을 잡고 크게 기뻐해 마지 않았다. 이어 그는 “나는 이미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늙으신 어머님께서 양산군에 계시니 즉시 돌아가서 뵙고 작별한 후에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급히 돌아와 눈물로 어머니를 하직하고, 아들 정로(廷老)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너의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죽음에 나아가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할머니를 모시고 빨리 고향에 돌아가라.” 하면서 무인(武人)답게 군사를 피하는 방법까지 일러주었다.

그가 송부사와의 약속대로 동래성에 돌아오니 이미 부산성은 적에게 함락되었고, 동래성 마저도 벌써 포위되어 있었다. 이에 그는 칼을 빼어 들고 말을 달리며 눈을 부릅뜨고 크게 소리치면서 성을 향해 돌진하니 적군도 그 위세에 눌려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잠시 길을 띄워 주었으며, 이 틈에 송부사도 잠깐 성문을 열어 그를 맞아들였다. 이에 그는 송부사와 함께 하루 낮밤을 힘껏 싸우며

버티다가 마침내 성이 함락되자,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하여 임금에게 신하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올리면서 “신은 살아서 능히 적을 토벌하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죽어서는 저 장순(張巡)을 본받아 여귀(厲鬼)가 되어 적을 죽이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최후를 맞으니 이 때 그의 나이 58세였다.

한편 그의 아들 정로는 할머니를 모시고 장성 고향에 돌아가 있다가 동래성이 적에게 함락될 때의 참상(慘狀)을 전해 듣고는 아버지의 시신(屍身)이라도 수습하기 위해 곧 동래로 달려 왔다. 그러나 온 성내에 시체가 썩은 뼈만 가득 쌓여 있을 뿐 누구의 것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드디어 초혼(招魂)하여 돌아가서 허장(虛葬)을 치른 후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와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다 하여 토실(土室)을 지어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으며, 20년을 하루같이 애모(哀慕)하다가 죽었다.

생각컨대 양산군수 조영규는 동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또 동래성을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자신의 힘으로 양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안전한 다른 곳으로 물러나 자신을 보전하고 후일을 기약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에게 포위된 동래성에 자진해서 찾아와 결사 항전한 것은 오로지 무인으로서 다져 온 참다운 충의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나라와 겨레만이 있을 뿐 자기 개인의 목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참으로 값진 죽음이요, 거룩한 죽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가에서는 그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여 1669년에는 송준길(宋浚吉)의 건의로 정려(旌閭)를 명하고, 그 부자를 위해 충효문(忠孝門)을 세웠으며, 숙종 때는 호조참판을 추증하였다. 한편 동래 충렬사를 비롯하여 장성 모암서원(慕巖書院)과 양산 충렬사에도 배향하여 그를 기리고 추모하였다. ■ 부경대 명예교수 이원균

5. 정 발(鄭 撥)



정 발 동상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에서 북쪽으로 잠시 가다보면 초량 윗길과 아랫길이 나뉘는 지점에 삼각공원이 있다. 그 삼각공원 입구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왼손에는 활을 든 채,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있는 동상이 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뛰어나갈 듯, 왼발의 당찬 힘이 느껴지는 이 동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釜山鎭城)을 사수하다 순절한 부산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 : 1553 ~ 1592) 장군이다.

가문과 행적

정발의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자고(子固), 호는 백운(白雲)이다. 그의 집안은 고려 때 정진후(鄭珍厚)가 군기운(軍器尹)에 봉해진 이후 대대로 재상을 배출한 가문이다. 그의 선조인 정희계(鄭熙啓)는 조선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개국을 보좌한 공로로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양경(良景)이다. 정양경의 손자가 한성판윤(漢城判尹)인 정지례(鄭之禮)이며, 정지례의 손자는 돈령도정(敦寧都正)인 정세현(鄭世賢)이다. 정세현의

아들이 정명선(鄭明善)이며, 그는 간성군수(杆城郡守)를 지냈다. 정명선은 큰 아버지인 정세호(鄭世豪)에게 양자로 입양되고, 관찰사 남궁숙(南宮淑)의 딸과 결혼한다. 정발은 1553년(명종 8) 정명선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정발은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말과 웃음이 적어 선비다운 품행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소학(小學)의 한 구절인 ‘거처(居處)하면 공경함을 다한다’는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평생 동안 그것을 마음에 지니고자 하였다. 이렇듯 글을 좋아한 그는 어린 나이에 사서오경(四書五經)에 통달할 정도였으며,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지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과거에 급제하여 봉양하려 하였다.

1577년(선조 10) 25세 되던 해 정발은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고 곧 이어 해남현감(海南縣監)에 임명되었다. 해남현감으로 부임한 지 3년만에 그의 명성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그가 임기를 마치고 조정으로 돌아오자 오랑캐가 종성을 침입하니 그때 그는 막하(幕下)에 나아가 난을 평정하였다. 그후 정발은 거제현령(巨濟縣令)이 되었다가 다시 조정에 들어와 비변사(備邊司)의 낭관(郎官)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하루는 대신들이 모여 앉아 정발을 불러 붓을 잡게 하고 불러주는 내용을 적게 하였다. 무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발은 아무리 어려운 글이라도 쓰지 못하는 것이 없이 물이 흐르듯 써 내려가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를 칭찬하였다. 이때부터 대신들 사이에서도 그의 명성이 자자하였다. 그는 비변사의 낭관을 겸임하며 위천군수(渭川郡守)로 임명되었다가 임기가 만료되자 승진하여 훈련원부정(訓練院副正)으로 들어갔으며, 사복시(司僕寺)로 승진하여 내승(內乘)을 겸하였다. 이때 왜침의 위협이 조정에 보고되자 1592년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인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승진되고, 일본과의 전운이 점차 짙어가

던 무렵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부산진의 사령관인 부산진첨절제사(釜山鎭僉節制使)에 임명되었다.

부산진첨사로 떠나려던 정발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어머니에게 하직하며 눈물로 말하였다. “소자가 벼슬을 구한 것은 본래 아버지를 봉양코자 한 것이었으나 이미 임금의 신하가 되었으니, 또 마땅히 나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충효는 두 가지를 온전히 다할 수 없사오니 원컨대 어머님께서는 소자를 염두에 두지 마옵소서.” 어머니는 울음을 거두고 등을 어루만지면서 훈계하여 말하기를, “가거라 내가 충신이 되면 내가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하였다. 정발은 무릎을 꿇어 가르침을 받고 아내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가 있을 때와 같이 어머니를 섬기시오.”하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왜적으로부터 부산진성을 지켜라!

부산진에 부임한 정발은



부산진 순절도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곽을 보수하는 등 방어태세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1592년(선조 25) 4월 13일 오후 5시경 마침내 왜적이 부산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왜적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조선 침략 선봉 제1군 18,700여명은 700여척의 병선으로 부산포를 내습하였다. 황령산 봉수대에서는 이 위급한 사실을 보고하는 연기가 급박하게 피어올랐다. 황령산 봉수대는 부산지역에서 서울로 연결된 직봉(直峰) 중의 하나이

다. 급박한 소식을 접한 정발은 세척의 전함을 거느리고 급히 바다로 나가 보니 왜적의 배가 이미 절영도(絶影島 : 지금의 영도) 앞바다에 가득하였다. 왜적의 배와 정발이 이끄는 아군 사이에 작은 접전이 벌어졌다. 정발은 계속 싸울 것을 명하고 급히 성 안으로 물러나 조정에 사람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결사항전태세를 갖추고 성 밖의 집들을 모두 불태울 것을 단호히 명령하였다. 이는 적군과 부딪쳐서 싸우기에 편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동루에 올라 성을 지킬 준비를 갖추게 하니 전쟁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된 성 안의 사람들이 심하게 동요하였다. 정발은 악사에게 누대(樓臺) 앞에서 통소를 불게 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성 안의 사람들은 점차 평정을 되찾아 갔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진성의 민호(民戶)는 300여호로 군민(軍民)을 모두 합해도 왜적의 대군에 비교가 되지 않았으며, 병력이라고 해야 고작 1000여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날(4월 13일) 적군은 상륙하지 않았고 절영도 전방에 머물며 공격을 하지 않은 채 13일 밤을 선상에서 보냈다. 그러나 일몰 무렵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의 막료인 대마도 도주 종의지(宗義智)가 약간의 군사를 이끌고 상륙하여 부산진성 부근의 경계상황을 직접 정탐하고는 배로 돌아가 부산진성의 방비가 엄중하다는 것을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일본군은 ‘가도(假道)’를 요구하는 글을 목판에 써 성밖에 세웠다. 정발은 이 요구를 묵살하고 전투를 불사하기로 굳게 결의하여 전투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당시 부산진성은 경상좌도 해안지방에 설치된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의 진영 가운데 제1의 진영이었다. 그리고 부산포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된 왜관(부산포왜관)은 일본인들의 거주가 유일하게 허용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다수의 일본인들이 체류하기도 하였으므로 제1군의 대마도군(對馬島軍)은 부산

의 지리에 비교적 익숙해 있었다.

이튿날(4월 14일) 새벽 왜적은 부산포의 우암(牛岩)에서 세 부대로 나누어 포안(浦岸)에 배를 붙여 성을 공격하였다. 절대 다수의 적군은 조총을 발사하며 성으로 쳐들어 왔다. 당시로서는 신무기인 조총의 요란한 소리와 화약 냄새가 부신훈성 안을 가득 메웠다. 이에 성안의 군·관·민은 사방에서 사력을 다해 적을 저지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서문(西門)이 쉽게 돌파되지 않자 적군은 성의 후방인 북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마침내 왜적은 북쪽 성벽을 넘어 성으로 난입하였다.

이때 정발은 군민(軍民)을 지휘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쉬지 않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북돋웠다. 이에 성안의 군·관·민은 더욱 분발하여 항전하여 삼시간에 성안은 피아의 시체가 쌓여 세 곳의 작은 언덕이 만들어질 정도였다.

얼마 후 성안에 있는 조선군의 화살이 다 떨어지자 한 부장이 정발에게 다가와서 그를 만류하며 성을 도망쳐서 구원병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발은 “대장부는 싸우다가 죽을 뿐이다. 다시 성을 버리자고 말하는 자는 내가 목을 벨 것이다.” 라고 꾸짖고는 군사들에게 “나는 마땅히 이 성의 귀신이 되리라. 떠나고 싶은 자가 있거든 떠나라.”고 호통치고는 다시 힘이 빠져 기진맥진한 군민을 격려하였다. 정발의 외침소리를 들은 군사들은 모두 울며 자리를 떠나지 않고 힘껏 싸웠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무기가 바닥나자 왜군에 맞선 조선군의 장렬한 육탄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성 안은 점점 아비규환으로 변해갔다. 아무리 굳센 항전의 결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왜군의 물량 앞에서는 수많은 희생자가 쌓여갔다. 치열한 접전이 얼마나 계속되었을까,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을 맞고 정발은 순절하고 말았다. 정발의 죽음으로 조선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지고, 마침내 성은 무너지고 말았다.

정발에게는 애향(愛香)이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 18세였다. 정발의 전사 소식을 듣자 달려가 통곡하며 그의 시체 옆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정발의 종인 용월(龍月)도 왜적에게 대항하며 싸우다 죽었다. 왜적은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기세를 몰아서 곧 바로 동래(東萊)로 향하였다. 당시 왜적의 만행은 일본측의 기록에 ‘성중의 군대는 물론 부녀자, 어린 아이 심지어 개 고양이까지 모두 죽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참혹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후 황신(黃愼)이 통신사로서 일본에 들어가자 왜적의 장수 평조신(平調信)이 정발의 충절과 용기를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군사가 처음 바다를 건너서 부산성중에서는 크게 좌절되었습니다. 만약 성이 더욱 견고하고 군사가 많았다면 우리가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며 임진왜란시 가장 용감한 장수는 부산의 흑의장군(黑衣將軍)이라고 하였다. 이는 정발이 흑색 전투복을 입고 진두에서 용감하게 싸운 늠름한 기상을 보고 부르게 된 것이다. 또한 조선에 왕래하는 일본인들은 “귀국의 장수 가운데서 부산의 흑의장군이 가장 두렵다.”고까지 하였다.

이렇듯 부산진성 전투는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왜적을 맞아 처음 치른 싸움으로서 조선군은 군사와 무기 면에서 왜적과 비교하여 현저히 열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발을 중심으로 뭉친 성안의 군·관·민들은 결사 항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정발은 품체가 준엄하며 정숙하였다. 그는 군대의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독서를 하였다. 그가 임진란 때 순절을 하게 된 것은 일시적으로 비분강개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소 그의 품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그의 첩 애향과 종 용월이 그를 따라 죽은 것과 성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 항전하다 최후를 마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순절이 자신들의 성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발의 인품에 감화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정발의 묘는 현재 그의 선영인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에 있다. 그의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되어 있다.

다시 태어난 정발



정공단 전경

부산 동구 좌천동

정발이 순절한 이후 사람들은 그의 거룩한 죽음을 기리는 일을 시작하여 1622년(광해군 14)에 부산 진성의 군사들이 그의 의열을 추모하며 만들었고,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정발의 무공이 널리 알려졌다. 그 후 선위사(宣慰使) 이민구(李敏求)가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의 위패를 모신 송공사(宋公祠)에 사액을 내릴 것과 이곳에 정발을 함께 배향할 것을 조정에 청원하였고 그 청원으로 1624년(인조 2)에 송공사는 충렬사(忠烈祠)로 바뀌고 정발도 송상현과 함께 모셔지게 되었다.

정발의 활약상이 알려지자 조정은 그에게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추증되고 1681년(숙종 7)에 동래부사 조세환(趙世煥)이 상소를 올리자 좌찬성(左贊成)을 가증하여 충장공(忠壯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1683년(숙종 9)에는 경연 신하들이 다시 상소하는 글을 올려 그의 집과 마을 입구에 그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업적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였다.

1761년(영조 37)에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 박재하(朴載河)가 충장공 정발 전망비〔釜山殉節碑〕를 세우면서 스스로 비문을 기록

하였다. 이 비석 전면에는 ‘충장공정발전망비(忠壯公鄭撥戰亡碑)’라는 여덟자가 새겨지고 뒷면에는 정발이 1592년 4월 14일(음력) 군·관·민과 함께 부산진성에서 왜적을 맞아 싸운 그날의 전황과 전적을 적어 놓았다.

이후 1766년(영조 42) 당시의 부산첨사 이광국(李光國)이 임진왜란 때의 부산진성 옛터에 정발과 함께 전투에 나선 군사와 일반민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정공단(鄭公壇, 부산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0호, 부산시 동구 좌천동)이다. 이때의 정공단에는 중앙에 ‘鄭公壇’(정공단)이란 세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고, 단의 서쪽에 별단이 남향으로 마련되어 임진왜란 당시 정발의 참모로 전사한 이정헌(李庭憲)을 모시고 있다. 또 단의 동쪽에는 서향으로 하나의 단을 마련하여 정발의 첩열녀 애향을 모셨다. 그리고 서편 남쪽에는 동향으로 부산진 전투에서 순사한 여러 군사와 민간인을, 남쪽 계단 아래에는 정발의 종이던 용월의 단이 동향으로 마련되어 있다. 지금 부산 동구 좌천동 가구거리의 뒷길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길을 걷다 보면 사당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발의 순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공단이다.

1906년 정발의 사당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여기에 반대하여 부산항에 거주하는 민(民)들이 의정대신 참정대신에게 청원서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 당시 제사는 부산진성이 함락된 음력 4월 14일 부산진첨사영에서 거행하였다. 그러나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관제(官制)가 개혁되어 첨절제사 제도가 폐지되자, 지방민들이 정성을 모아 향사계(享祠稷)에서 제물을 마련하여 제사를 올렸다.

1907년 순종이 남쪽 지방을 순행하다가 지방민의 정성으로 제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가늠하게 여기고는 이곳에 하사금을 내리니 그 하사금은 정공단의 유지와 제향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 주민들에게 지방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크게 북돋아 주었다. 그러나 1910년 일제의 한반도 강제점령으로 제단의 제사가 모두 금지되었다. 하지만 향사계원들은 유지 관리에 힘쓰면서 제사는 일제의 눈을 피해 계속 올리고 있었다 하니, 아마도 일본군에 맞서 죽음으로 향전한 정발의 역사적 의미는 일제 강점기를 겪는 백성들에게는 더욱 절실하였으리라.

정공단의 본래 제단은 현재보다 아래쪽에 있었고, 현재의 제단 위치는 부산진 육영학숙(釜山鎭育英學塾)의 건물이다. 정공단에 육영학숙을 둔 것은 여기에 모셔진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오늘을 살아가는 학생들의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부산진 육영학숙에서는 민족사상에 투철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육영학숙과 정공단은 일제 고등경찰의 사찰대상이 되어 오다가 1942년 일본 천황의 생일날 육영학숙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정공단은 폐쇄당하였다. 이때 정공단에 설치된 비석은 뽑혀지고 귀중한 비품과 제기들은 일본경찰에 의해 압수되었으니, 정발은 일본에 의해 두번 죽임을 당한 셈이다.

그러나 1945년 광복을 맞은 그해 11월 25일 지방 유지들이 충장공 정발 장군 영전에 광복을 알리는 제사를 지내고 육영학숙 강당에서 정공단 향사계를 재조직하여 정공단의 위치를 육영학숙 자리로 옮겨 모시기로 했다. 이 공사는 1948년 5월에 시작하여 그해 말에 마무리하였다. 이때 이전에 세워졌던 비석을 되찾아서 별단으로 쌓아 뒤쪽에 안치하고 새롭게 비단(碑壇)을 쌓고 비석을 세웠다. 1958년 4월에는 제단관리를 부산진향우회가 맡아 정공단보존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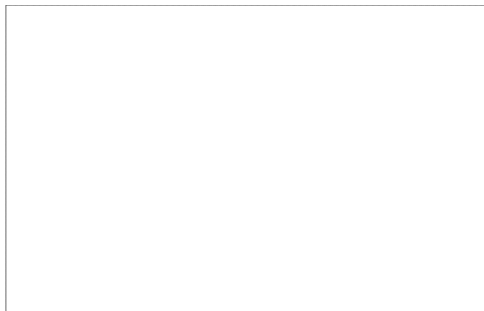
현재도 정발 장군은 부산의 출입구이자, 우리나라의 관문인 부산항과 부산역을 바라보며 우뚝 서 있다. 그 모습은 부산, 나아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그의 간절한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서 부산진첨사로서 자

신의 직무를 다하다 거룩하게 순절하였다. 우리가 현재까지 그의 죽음을 기리며 받들어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이정헌(李庭憲)

이정헌의 집안과 임진왜란 때의 활약상

왜군의 침입 조짐이 점점 높아가던 어느날, 부신진첨사(釜山鎭僉使) 정발(鄭撥)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그는 무과에 급제하여 일하던 중 조방장(助防將)으로 임명받았으나 말이 병이 들어 목적지에 늦게 도착한 이유로



정공단(중앙)
이정헌단(우측 첫째)

부산 동구 좌천동 정공단

파면을 당했다고 아뢰면서, 왜군의 침략이 눈 앞에 닥쳤는데 어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호소하였다. 정발은 그의 기개를 높이 여겨 그의 뜻을 받아들여 정발의 옆에서 보좌하며 부산진성 전투에서 정발과 함께 장렬히 순절하였는데 이가 곧 이정헌 이었다.

이정헌(1559~1592)은 본관이 공주(公州)로 자(字)는 수경(守卿)이다. 그의 집안은 고조부인 임파현령(臨波縣令) 이진(李珍) 때부터 경북(慶北) 영주(榮州)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할아버지 이함(李咸)은 1513년(중종 8)에 생원(生員)이 되었고, 아버지 이석간(李碩幹)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일찍 성균관(成均館)에 유학하였으나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여 학업을 그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조정에서 낭관직(郎官職)을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황기(黃岐)의 집에 은거하였다.

이렇듯 이정현의 집안은 증조 이후로는 벼슬하기를 좋아하지 않아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집안에 있으면서도 효도와 우애로서 집안을 이어갔고 관아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규율을 특히 엄격히 하였다. 그리하여 군수가 어긋난 일을 하면 이정현 집안을 두려워할 정도였다. 그의 아버지 이석간은 부사 조세영(趙世英)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사별하고 눌재(訥齋) 이홍준(李弘準)의 외손인 연안(延安) 이씨(李氏) 집안인 이린(李麟)의 딸과 재혼하였다. 이정현은 이석간과 이린의 딸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1559년(명종 14)에 태어났다. 그의 형은 기장현감(機張縣監)을 지낸 이정견(李庭堅)이다. 이정현은 어릴 때부터 의연한 기상과 곳곳한 절개가 있어 과거 공부를 할 때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정현은 문화(文化) 유씨(柳氏) 집안인 유만령(柳萬齡)의 딸과 결혼하여 3남 1녀를 두었다.

1591년(선조 24) 봄 일본에 갔던 통신사가 돌아와 왜군이 가까운 장래에 조선에 침입할 것이라 전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조정은 왜적이 침입할 것을 경계하여 무사를 필요로 하게 되어 무과를 중시하였다. 이때 이정현은 문과과거 준비를 그만 두고 그 해 가을 무과에 급제하여 10월에 영문(營門)에 부임하였다. 그 때 조정에서는 왜군의 침입을 경계하여 무신(武臣)을 조방장으로 임명하여 전국에 나누어 파견하고 성(城)을 쌓고 수리·보수하였다.

조방장(助防將)이 남으로 내려오니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정현의 용맹과 지체가 뛰어남을 칭송하였다. 이에 조방장은 이정현을 참모로 임명하여 일을 함께 수행코자 하니 이정현은 곧 바로 이 일을 허락하고 짐을 꾸려 떠나려고 하는데, 말이 병이 나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한 이유로 파면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정현은 돌아가지 않고 부산진성으로 달려가 사실을 고하니, 정발은 그를 참모의 예로 대우하고 군대의 일을 의논하며 한 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1592년 4월 13일 왜적장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조선 침략 선봉군인 제1군의 대군 18,700여 명의 군사가 700여 척의 병선으로 부산포 앞바다인 절영도(絶影島 : 지금의 영도) 부근에서 정박하고 공격은 개시하지 않았다. 다만 고니시 유키나가의 막료인 대마도주 종의지(宗義智)가 약간의 군사를 거느리고 상륙하여 부산진성의 경비 상황을 정탐하였다. 그리고 그의 휘하 장수인 평조신(平調信)을 시켜 왜군이 내침한 이유를 말하고는 ‘가도(假道)’ 즉 길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글을 목판에 적어 성밖에 세웠다. 이때 부산진첨사 정발은 가도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전투를 불사한다는 군은 결의를 하고 전투태세를 공고히 하였고, 이정현은 정발의 지시를 받아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전투태세를 점검하였다.

이튿날인 4월 14일 왜적은 부산포의 우암(牛岩)에서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진을 치고 배를 포안(浦岸)에 붙여 차례로 상륙하여 성을 공격하였다. 절대 대수의 병력을 가진 왜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하고 몰밀 듯 성안으로 몰려 들었다. 성안의 군·관·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죽음을 각오하고 항전하였다. 총탄이 터지는 소리, 화살이 나는 소리, 단말마의 비명과 여기저기서 쓰러져 가는 병사들. 처절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정현은 최후의 일각까지 정발과 함께 용감히 싸우다 순절하였다. 이 때 그의 나이는 43세였다.

묻혀 있던 이정현 다시 살아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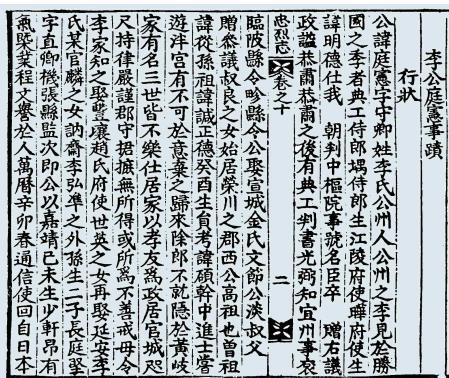
이정현은 정식 직책을 가지고 부산진성에 부임한 인물은 아니다. 따라서 군대의 명부나 전사자의 명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왜적에 대항하여 선봉에서 싸우다 순절했지만 그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채 당시 죽은 많은 백성들과 함께 묻혀져 있었다.

이후 1742년 이정헌의 손자인 이회일(李會一)과 이정일(李挺一) 등이 지나간 책을 정리하던 중 집안에 있던 낡은 상자를 발견하여 그 속을 살펴보니 이정헌이 그의 형에게 보낸 편지 2통과 1599년 10월 25일 이정헌의 형인 이정견이 조카와 함께 이정헌을 위해 초혼제를 올린 제문, 그리고 이정헌 큰 아들의 글이 들어 있었다.

그 내용은 1593년경 정발의 종이 왜적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부산진성 전투에서 이정헌이 정발과 함께 용감히 싸우다가 순절한 사실을 상세히 전하면서 이정헌의 생사가 확인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의 시체는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 있었으므로 찾을 수가 없었다는 내용 등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담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정헌이 죽은 지 150여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니, 그 뒤 관찰사(觀察使) 심성희(沈聖希)는 그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조정에 아뢰었다. 이 보고를 받은 임금은 이정헌을 기특하게 여겨 대신에게 의논케 하니 여러 대신들은 이정헌이 국토를 지킬 직책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순절하였으므로 증직하고 그의 집 대문과 마을 입구에 의롭고 충성스러운 행동을 표시하여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이정헌에게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 兼經筵參贊官)을 증직하고 그의 순절을 표창하였다.

1760년(영조 36) 동래부사 홍명한(洪名漢)이 이 지방사람과 의논하



이정헌공 사적

충렬사지 권10

여 이정현을 송공단에 추향하였으나, 그 뒤 이정현은 동래성에서 전사하지 않았다 하여 출향되었다가 1766년(영조 42) 당시의 부산첨사 이광국(李光國)이 임진왜란 때의 부산진성 옛터에 정발과 함께 전투에 나선 군사와 백성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그것이 바로 정공단(부산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0호, 부산시 동구 좌천동)이다. 이때의 정공단에는 중앙에 ‘鄭公壇’(정공단)이란 세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고, 단의 서쪽에 별단이 남향으로 마련되어 여기에 이정현을 모셔 묻혀질 뻔한 그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게 하였다.

한편 이정현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부산진에 첨사가 부임하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죽는 일이 계속 생겼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성을 자성대로 옮기게 하고 옛 성터의 연못에서 나온 수많은 시신의 뼈들을 모아 자성대 밑에 묻었다. 이후 이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의 꿈에 이정현이 나타나 부산진을 지키다가 전사하였으나 조정에는 그 공로를 아는 사람이 없어 섭섭해서 호소하려고 부산진 첨사의 꿈에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 말도 하기 전에 죽었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날부터 마을에 유행병이 발생하여 갑자기 하루에 40여명씩 죽어갔다. 이에 꿈을 꾸는 노인이 이상하게 여겨 당시의 동래부사 홍명환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다. 홍명환은 즉시 이정현의 공로를 조정에 알려 좌승지의 관직을 내리게 하고 직접 이곳에 와서 제사를 크게 지내니, 그 후로는 무사하였다고 한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맞아 항전하다 장렬하게 순절하였지만, 이름과 행적을 알 수 없어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의 애통한 마음을 대신 전해주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 동아대 강사 손숙경

6. 윤흥신(尹興信)

윤흥신의 장렬한 죽음



윤흥신 석상

부산 동구 초량동

1592년(선조 25)
4월 13일 왜적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小
西行長)가 이끄는 조
선 침략선봉군은 700
여척의 병선을 거느
리고 ‘가도(假道)’를 요
구하며 부산포를 내
습하고 다음날 부산
진성을 함락시켰다.

4월 14일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그 기세를 몰아 군사를 나누어 인접 지역의 서평포(西平浦)와 다대진(多大鎭)을 공격하였다. 그 선봉군이 다대진을 포위했다. 다대진 첨사 윤흥신(? ~ 1592)은 절대다수의 병력인 왜적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때 휘하의 한 군사가 윤흥신에게 다급히 말하였다. “머지 않아 적이 대거 침공해 올 것이니 피하는 것 밖에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흥신은 크게 화를 내며 부하를 꾸짖으며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뿐이다. 어찌 차마 떠나겠는가?”

그 다음날인 4월 15일 적의 대군이 침략하니 윤흥신은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병사와 함께 부산진성의 승리로 기세 등등한 왜군을 상대하여 싸웠다. 그는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 윤흥제(尹興悌)와 함께 적군과 맞서 격렬한 전투를 거듭하였으나 구름처럼 몰려오는 왜군의 내습으로 군사는 뿔뿔히 흩어졌다. 하지

만 윤흥신은 끝까지 성을 떠나지 않고 더욱 용기를 내어 왜적에게 대항하다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이에 성도 함락되고 말았다.

왜적은 상륙 이후 경상도 해안지역의 요충인 부산진과 다대진을 점령함으로써 조선군의 해안 방어세력을 누르고 내륙 침략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비록 성은 함락되고 적을 저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성을 사수하려 했던 기개의 인물이었다.

윤흥신은 본관이 과평(坡平)이며 인종(仁宗) 때의 외척으로 권세를 누렸던 윤임(尹任)의 아들이다. 그는 1582년(선조 15) 벼슬이 진천현감(鎭川縣監)에 이르렀으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다고 하여 파직된 뒤 외직으로 관직에 다시 진출하여 1592년 다대진 첨사로 부임하였다.

뒤늦게 알려진 윤흥신

다대진의 전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당시 서평포·다대포·부산포 등이 모두 지금의 부산영역이지만, 다대진은 부산진보다 군사적 비중이 낮고 규모도 작으며 당시로 보아서는 외떨어진



윤공단

부산 사하구 다대동

곳이라서 상황을 잘 전할 수 없었던 것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당시 다대진 첨사였던 윤흥신에 관한 기록도 임진왜란이 끝난 1604년(선조 37) 6월 25일에 공포된 선무공신록권(宣武功臣錄券)에 원종(原從) 1등 공신으로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업적이 이렇게 묻혀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윤흥신이 임진왜

란 때 왜적과 싸워 순절한 사실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이지만 확실히 드러난다.

《선조실록 宣祖實錄》에는 다대진 첨사 윤홍신이 순절한 기록을 ‘윤홍신은 왜적에 항거하여 싸우다가 죽었다’고 적고 있고,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 懲毖錄》에는 ‘다대진 첨사 윤홍신은 힘써 싸우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선조 때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구사맹(具思孟)의 《조망록 弔亡錄》에는 윤홍신이 왜적을 맞아 싸운 내용이 간략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이책에서는 윤홍신을 특별히 기록하고 주석을 달았다.

왜적이 성을 포위하자 힘껏 싸운 끝에 이를 물리쳤다. 이튿날 대군의 왜적이 쳐들어오니 군졸은 모두 도망하였는데, 윤홍신은 홀로 남아 온종일 활을 쏘다가 성이 함락되자 죽었다

고 기록하고 덧붙여 그를 애도하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인조 때의 학자 신령(申靈)이 쓴 《재조번방지 再造藩邦志》에는 ‘도적이 병사를 나누어서 서평포·다대포를 함락케 했다. 다대진 첨사 윤홍신은 힘껏 싸웠으나 피살되었다.’고 한다. 그 뒤 1764년(영조 40) 당시 동래부사 강필리(姜必履)가 지은 〈윤공사절기 尹公死節記〉에는 다른 글에 씌어진 윤홍신과 관련된 기록을 모두 인용하여 임진왜란 당시 그의 행적을 적었다. 그와 동시에 다대진 첨사였던 윤홍신의 전공이 밝혀지지 않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진왜란 당시 부산진성에서 순절한 이정헌(李庭憲)의 행장(行狀)에도 ‘적이 먼저 부산을 함락하고 군사를 나누어 동래 및 여러 포진(浦鎭)을 함락시키니 다대진 첨사 윤공이 죽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윤홍신의 순절 사실은 분명했지만 조엄(趙巖)이 동래부

사로 부임하기 이전까지는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1757년(영조 33) 조엄이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충렬사(忠烈祠)를 참배할 때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과 부산진 첨사 정발(鄭撥), 그리고 여러 이서(吏胥)와 노비까지 모셔져 있는데 윤흥신만이 빠져 있는 사실을 의아하게 여겼다. 이 사실을 안 조엄은 윤흥신의 사적(史蹟)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읍지 邑誌》를 꼼꼼히 살펴보고 다대포를 직접 방문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 윤흥신에 대한 기록과 당시의 전황을 들려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후 1761년(영조 37) 그가 영남감사(嶺南監司)가 되었을 때, 경상도 내에 효열과 충절이 두드러진 사람을 포상할 것을 예조(禮曹)에 상소할 때 윤흥신의 증직(贈職)을 청원하였다.

그 뒤 1762년 조엄이 통신사로 일본에 갈 때 이해문(李海文)이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그 때 조엄이 이해문에게 윤흥신의 사적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해문은 일본에서 돌아와 다대진 첨사가 되었을 때, 1766년(영조 41) 다대포 성안(지금의 다대초등학교)에 윤공단(尹公壇, 부산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9호)을 세우고 해마다 음력 4월 15일에 제사를 첨사영에서 올렸다. 이해문은 단(壇)을 설치하고도 순절비를 세우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조엄에게 윤공의 사적을 써 줄 것을 간청하니 당시 조정의 부제학(副提學)으로 있던 조엄이 ‘다대포첨사 윤공 전망사적서’(多大浦僉使 尹公 戰亡事蹟敍)를 쓰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윤흥신이 임진왜란 당시 장렬히 순절한 내용을 적은 글들을 상세히 인용하며 그를 추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1766년 윤흥신은 송공단(宋公壇 : 당시는 동래읍 성내 이외의 부산진 전사자도 송공단에 모셔져 있었음)에 추향되었고 1772년(영조 48)에는 충렬사에 추향되었다. 그러나 이해문은 순절비를 세우려다 이를 이루지 못한 채 임지인 다대포를 떠났다.

그런 가운데 조엄은 윤홍신 첨사 순절비에 관한 뜻을 아들 조진관(趙鎭寬)에게 전하고 1777년(정조 원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조진관은 헌종(憲宗) 때 이조판서(史曹判書)가 되었고, 조진관은 그의 부친 조엄의 뜻을 받들어 동래부사 홍종응(洪鐘應)에게 부탁하여 1841년(헌종 7) 비로소 윤공단에 윤공의 순절비를 세웠다. 현재 서 있는 비의 전반부 글은 조진관 자신이 적은 것이며, 후반부 글은 홍종응 부사가 첨가하여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래의 제단과 순절비는 다대성 안(현 다대초등학교)에 있었는데 1970년 부산시에서 현재의 다대동 뒷산으로 옮겼다. 제단 중앙에 있는 비석 정면은 ‘僉使尹公興信殉節碑(첨사윤공홍신순절비)’라 새겨졌고 뒷면에는 윤홍신의 사적이 12행으로 기록되어 있다. 1976년에는 부산시에서 비석의 단을 개축하여 홍살문을 세우고, 1978년에는 재실 1동을 짓고 석축공사를 하였다. 현재 제향은 음력 4월 15일 동민(洞民) 중심으로 올려지고 있다.

부산진역에서 남쪽으로 가다보면 첫번째 갈림길의 삼각공원에 다대첨사 윤홍신 장군석상이 있다. 이 석상은 전체가 화강암으로 조성되어 있다. 대석에서 삼각 피라밋 형의 정상으로 크고 작은 인물 석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한가운데 투구와 갑옷을 입고 이제 막 칼을 뽑으려는 자세의 사람이 임진왜란 때 다대진에서 순사한 윤홍신 장군의 상이다. 그리고 그 왼쪽에 칼을 들고 후리치려는 자세의 사람이 윤홍신의 아우 윤홍제 상이다.

윤홍신은 대군의 왜적을 보고 위태로움을 느껴 성을 떠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남아 있는 적은 수의 병사를 거느리고 끝까지 항전하며 목숨을 바쳐 살신성인한 의로운 인물이다. ■ 동아대 강사 손숙경

7. 임란 동래 24공신(功臣)

24공신(功臣)의 별전청(別典廳)과 충의단(忠義壇)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왜군이 맨 먼저 쳐들어온 것이 임진년이 되는 1592년(선조 25) 4월 13일(음력)이었다. 그날 오후 5시경에 700여척 병선으로 부산항으로 들어온 왜군은 이튿날인 4월 14일에는 오늘날의 동구 좌천동에 있었던 부산진성을 넘어뜨리고, 그 이튿날인 4월 15일에는 오늘날의 동래구에 있었던 동래성, 오늘날의 사하구에 있었던 다대포성을 넘어뜨리고 이곳을 병참기지로 삼으면서 그들 일부가 주둔하는 한편 부산항으로는 계속 제2군, 제3군, 제4군……. 많은 병력들이



임란 동래 부산 동래구 충렬사
24공신 공적비

상륙해 왔고, 상륙한 왜군은 북상해 갔다.

불시의 침범이었다. 침범의 첫발이 내디더진 이곳은 첫 싸움터가 되었고 첫 싸움에 공을 다투는 왜병은 처참한 살육(殺戮)에의 아귀(餓鬼)가 되어 있었다.

남녀노소의 구별없이 죽음으로 희생된 이곳 사람은 까닭없이 희생된 부모 형제에 대한 저주에의 분노는 불길로 치솟았다. 그 분노는 복수에의 의지로 바뀌면서 의병으로 규합되어 갔다.

그렇게 의병으로 적을 치려는 이곳(당시는 동래지역으로 오늘날의 부산지역) 젊은이들은 곽재우(郭再祐)나 권응수(權應銖) 휘하에 들어간 이도 있고 동래출신 의병장 김정서(金廷瑞)나

김일덕(金一德) 휘하에서 분전한 이도 있었다.

이 이외 조직적인 군사체제에서 벗어난 단신으로 또는 상황에 따른 집단으로 적을 치는 의병활동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러한 의병활동은 임진왜란(정유재란 포함) 7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 토적(討賊) 활동이 두드러진 이를 임진왜란 후 녹권(錄券)으로 신고 보니 동래지역 출신만도 66인(人)이나 되었다.

이 66인을 부사(府使) 이안눌(李安訥 : 1608년 2월 부임, 1609년 7월 퇴임)이 여러 부로(父老)에게 공의(公議)로 물어 공적이 현저한 19인을 골라 복호문(復戶文)과 보장(報狀)과 효유문(曉諭文)을 함록하여 포충록(褒忠錄)이라 이름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19인이 원통함을 호소하여 5인을 더 첨가하니 24인이 되었다.

부사 이안눌은 순찰사에게 상신하여 이 24공신에게는 밭 1결(結)씩을 급여하고 각 호(戶)에 노(奴) 1구(口)를 허락하고 나라에서 부과하는 부역(賦役) 일체를 면제케 할 것에 대해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별도의 청(廳)을 설치하고 생존자와 이미 죽은 사람의 자손을 대우하고자 하였으나 이안눌 부사는 별도의 청을 설치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안눌 부사에서 65년 뒤 동래부사로 부임한 어진익(魚震翼 : 1674년 8월 부임, 1676년 7월 퇴임)공이 조정의 명으로 그 동안의 장부를 되살피고 후손을 방문하여 근원을 되찾는 한편 청사(廳舍)를 세워 춘추로 수계(修禊 : 고사를 지냄)토록 하였는데 이 청사를 별전청(別典廳)이라 하였다. 별전공신 24위(位)를 별전청에서 제사지내게 된 것은 이것이 시초가 된다.

별전청을 세운 뒤 임상원(任相元 : 弘藝文提學을 거쳐 예조판서에 이름)공이 어진익 부사의 요청으로 청사건물에 관해 쓴 것이 별전청서(別典廳序)라 하여 충렬사지(忠烈祠志) 부록(附錄)2의 별전공신에 실려 있다. 그에 의하여 임상원공은 어진익 부사가 별전공신의 후손에게 한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조정(朝廷)은 여러분을 후대(厚待)한다. 여러분의 선인의 공을 미루어 여러분에게 은총을 내림이니 더욱 힘쓸 것이며 여러분은 선인의 의령을 따라 독실한 사람되기를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조부나 부고(父考)가 다 동래사람이라 오래 이곳에 살아 집의 문이 서로 연결하였으니 인족(姻族)이 아니면 향당(鄉黨)이라 이른바 세의(世誼)가 있고 은혜가 있음이니 난을 당하여 ……….” 라고 하였다.

어진익부사가 별전청을 세운 곳은 지금의 동래구 안락동의 충렬사 경내였다. 그동안 보수와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충의단(忠義壇)이란 이름이 되었다. 이 충의단에서는 24공신의 공적을 기리는 제향이 춘추로 올려졌다.

1978년에는 충렬사의 정화사업이 시작되었다. 정화사업을 시작하자 충의단이란 이름으로 모셔진 24별전공신은 충의단에서도 제향이 올려지고 충렬사 본전에서도 모심을 받고 있어 이중적 제향이라 하여 충의단을 없애기로 했다. 없애면서 그 충의단 비석을 충렬사 서쪽 상등성이에 묻었다. 묻고는 나지막한 작은 비석으로 “충렬사 정화공사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나누어 제사 함은 사리에 어긋나므로 충의단 24공신의 비를 여기에 묻어둡니다. 1978년” 고 새겼다.

충렬사 정화공사를 마치고는 충렬사 서쪽 산등성이에 임란 동래 24공신 공적비(壬亂東萊二十四功臣功績碑)를 세웠다. 그 기에는 다음과 같은 비기가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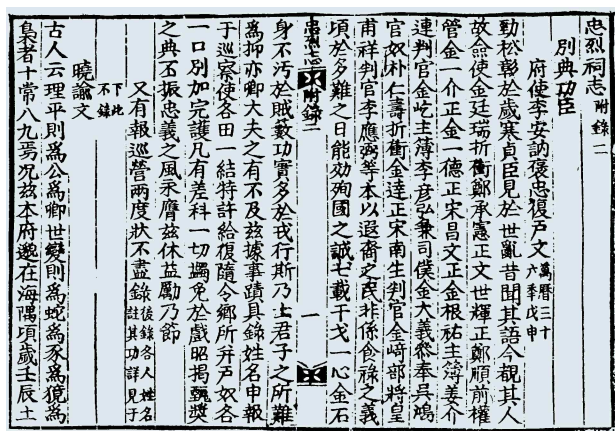
이 동래공신은 당초 충렬사 안락서원 옆의 충의단(忠義壇)에 모셨으나 1978년 충렬사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충렬사 본전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이분들은 향토수호의 귀감이며 후세의 사표(師表)로 삼고자 1988년 5월 14일에 이 비를 건립하였다.

24별전공신의 증직(贈職)관명과 성명과 공적

24별전공신을 《충렬사지》 〈부록 2〉를 중심으로 증직된 관직과 성명, 그리고 공적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여기 기록한 증직 관명은 맨 처음 주어진 증직이 되는데 이는 이안눌 부사에서 65년 뒤에 동래부사로 부임한 권대재(權大載 : 1674년 6월 동래부사로 부임, 그해 8월 퇴임) 부사가 이안눌 부사의 24공신의 녹권(錄券)을 살피어 어전(御前)에서 동래의 공신들을 견록(甄錄 : 밝혀서 기록함)할 것을 상주한 바 임금께서 윤허하신 뒤 조정에서 권대재 부사의 후임인 어진익부사에게 표상의 길을 열라는 명이 내려지고 어진익 부사의 장계가 조정으로 올려진 그때 24공신의 증직이 있었던 그 증직명인 것으로 본다.

이때의 증직 이후 1736년(영조 12)에는 두번째의 가증(加贈)이 있었고 1769년(영조 45)에는 세번째의 가증이 있었다.



별전공신

충렬사지 부록 2

① 첨사(僉使) 김정서(金廷瑞)

김정서의 관명을 첨사라 하였는데 첨사는 각 군사진영(軍事鎮營)에 속했던 종3품 무관직인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말한다.

김정서는 임진년 4월 15일 이후 창의(倡義 : 국난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킴) 모병(募兵)하여 역전(力戰)으로 적을 토벌하고 소산역(蘇山驛 : 현, 금정구 선동지역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역)에서는 기계를 설치하여 돌을 실어와서 밤을 타서 적진에 쏟아부어 적의 사상자가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또 망우당(忘憂堂)곽재우(郭再祐)와 함께 화왕산성(火旺山城)을 지켰다. 그 뒤 다대포첨사영(多大浦僉使營)의 절충(折衝)이 되었다가 1600년(선조 33) 9월 임기가 끝나 퇴임하였다.

1736년(영조 12)에는 장례원 판결사(掌隸院 判決事)로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통정대부 병조참의(通政大夫 兵曹參議)에 증직되었다.

김정서를 동래출신 의병장이라 하여 별정공신 중의 송창문(宋昌文), 김근우(金根祐), 강개련(姜介連), 김대의(金大義), 송남생(宋南生), 이응필(李應弼) 등이 김정서진(金廷瑞陣)에 종군하였다.

언양읍(彦陽邑)이 되는 삼남면(三南面) 작천정(酌川亭)에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분들의 후손이 새긴 마애석각(磨崖石刻)이 있는데 그곳에 새겨진 의사 10사람 가운데 김정서도 새겨져 있다.

그 석각에 김정서의 기록은 본관이 강릉(江陵)이고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직명은 호군(護軍)이다. 삼남면 가천리(加川里)에 사는 김문범(金文範)이 마애석각을 하는데 간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마애석각은 일제 강점기가 되는 1926년 임란 당시의 공신의 후손들이 원모계(遠慕契)를 조직하여 역시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마애석각을 새긴 것이다. 말하자면 일제 관헌(官憲)의 매서운 눈길 아래 이 석각이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② 절충(折衝) 정승헌(鄭承憲)

정승헌의 증직명을 절충이라 하였는데 절충은 절충장군(折衝將軍)이라는 말로서 조선왕조 때의 무관위계로 정3품 당상관이 된다.

정승헌은 임진년 4월 15일 이후 스스로 병사를 모아 처음에서 끝까지 적을 치기에 온 힘을 다했다.

임금이 난리를 피해 서쪽으로 옮겨간 뒤 전란으로 연락의 길이 막히자 변방의 정황을 임금이 머물고 계시는 행재소(行在所)에 장계를 올렸다. 임금(선조)께서는 이를 가상히 여겨 금의(錦衣)를 벗어 하사하시고 임금께서 효유방문(曉諭榜文 : 임금이 백성을 타이르는 글)을 써주어서 이 방문을 품안에 품고 동래로 돌아와 백성들을 깨우쳤던 바 적에 포로로 잡혀든 백성들이 떼지어 돌아왔다.

1736년(영조 12)에는 장례원 판결사(掌隸院 判決事)로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가증(加贈)으로 통정대부 병조참의(通政大夫兵曹參議)에 증직되었다.

③ 정(正) 문세휘(文世輝)

문세휘의 증직을 정(正)이라 하였는데 정은 조선왕조 때 상서원(尙瑞院), 봉상시(奉常寺), 사옹원(司饗院), 군자감(軍資監) 등 정3품 아문(衙門)의 대부분에 있던 으뜸벼슬로 품계는 정3품 당하(堂下)였다.

문세휘는 임진년 4월 15일 이후 창의로 모병하여 역전 토적한 사실과 1736년(영조 12)에는 장례원 판결사로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증직되었음을 충렬사지 부록2의 별전공신이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해운대구지》(1994년 刊) 인물란에 의하면 문세휘(1562~1639)의 자(字)를 세평(世平), 호는 백수재(百修齋)라 하고 임진

왜란에 동래성이 함락되자 의병장 김정서(金廷瑞) 등과 함께 흩어진 군사 수백인을 모아 적에 대항하였고 정유재란에는 망우당(忘憂堂)곽재우(郭再祐)를 따라 화왕산성(火旺山城)을 지키며 전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2등에 녹훈(錄勳)되었다고 했다.

동래구 반송동 산 7번지에 묘소가 있고 묘소 아래 운송재(雲松齋)의 상의단(尙義壇)에 모셔졌다. 묘비도 갖추어졌다. 묘갈명(墓碣銘) 일부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공은 천품이 탁월하여 큰 절조가 있었고, 못 서적을 두루 읽어 괴벽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사귀에 소소한 예절에 구애되지 않았으므로 선배와 어른들이 원대한 재목으로 기대하였다.

임진왜란에 왜적이 대거 침입하여 우리의 각처 진영이 함락하자, 공은 붓을 던지고 분연히 일어서서 흩어져 도망한 군졸 수백인을 수습하여 의병장 김정서(金廷瑞) 등과 더불어 힘써 싸워 적을 격파하니 군사의 사기가 비로소 진작되었다.(중략)

공은 자질이 유위(有爲)하여 국난에 달려들어 적과 싸웠으니 다른 벼슬아치처럼 삶을 탐하고 죽음을 피하는데 급급하였던 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다만 여러번 전쟁을 거치면서 문헌이 모조리 없어져서 공의 학문과 실질적인 공부와 충의의 큰 절의를 장엄할 수 없음이 한스럽다.(후략)

④ 정(正) 정순(鄭順)

정순의 증직 정(正)은 앞에서 말한 문세휘와 한가지로 조선왕조 때 정3품 아문(衙門)에 있던 으뜸벼슬로 품계는 정3품 당하(堂下)였다.

정순은 임진년 4월 15일 이후 이 나라를 침범한 왜군과 여러 차례에 걸쳐 싸워 왜군을 무찔렀다.

1736년(영조 12)에는 장례원 판결사로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가증(加贈)되었다.

⑤ 권관(權管) 김일개(金一介)

김일개의 증직 명칭인 권관은 조선왕조 때 변경의 작은 진보(鎭堡)에 두었던 수장(守將)이다.

김일개는 임진년 4월 15일 이후 울산성(蔚山城)을 지키는 수진(守陣)에 종군하였고 의병을 모집하여 처음에서 끝까지 적에 맞서 싸웠다.

1736년(영조 12)에는 장례원 판결사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통정부 병조참의에 가증되었다고 충렬사지 부록2가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장군지》(2001년 刊)의 인물란은 김일개를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김일개의 자는 여강(汝剛), 호는 송미(松楣), 본관은 김해이다.

증조부인 김보문(金寶文)공이 기장현 하북면 예림방(지금의 정관면 예림리)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예림리에서 김일개 등 삼형제가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김일개, 김일덕(金一德), 김일성(金一誠) 삼형제는 흩어진 병졸을 규합하고 의병을 모아 싸움터에 나섰다. 삼형제는 제각각 병력을 나누어서 참전하기로 했다.

김일개는 화철령(火鐵嶺 : 기장현과 울주군의 경계가 되는 채)고개 너머에 진을 치고 밤중에 김일개는 앞면에서, 김일성은 뒤에서 급습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소식을 들은 울산지역의 의병들이 김일개 진영으로 몰려들었다. 김일개, 김일성 두 형제의 군사는 태화강까지 진격하여 울산의 의병장 서인충(徐仁忠 : 뒷날 부산진첨사가 됨), 박봉수(朴鳳壽 : 임진 4월 23일 울산에서 의병진영이 조직될 때 대장이 됨) 군사와 합세했다.

김일성이 치밀한 작전으로 서인충과 박봉수의 정예부대는 산속에 매복하고 김일성의 부대는 이석송(李石崇)부대와 함께 전위부대로 진격했다. 김일개 부대는 후위로 진격하면서 마구 북을 울려 배

에 타고 있는 왜구를 유인했다. 왜군들이 육지로 올라 추격해 오자 매복된 의병들이 협공을 가해 왜군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이때 울산에는 가군수(假郡守) 김태허(金太虛)가 있었다. 가군수는 김일성의 전략에 감탄하고 군무는 김일개 형제와 의논했다. 그러는 가운데 김일개의 군사는 관군(官軍)으로 편입되어 김일개가 주장이 되고, 동생 김일성은 둘째형 김일덕이 의병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동래로 가서 김일덕을 도왔다.

김일개 장군은 1597년(선조 30) 12월 12일부터 다음해 1월 4일까지 제1차 도산성(島山城)전투에 참전하고 1598년(선조 31) 9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2차 울산전투(鶴城전투라고도 함)에도 참전했다. 조선군 별장 김경서(金景瑞 : 초명은 김응서 1595년에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됨)의 4,500명의 군사가 동래 온정(溫井)과 동래성에 있던 왜적에 대항했을 때도 김일개의 군사는 김경서의 군에 합세한 바 있었다. 그때의 전투는 동래성과 울산성에 있는 왜군의 보급망과 연락망을 차단시켜 왜군을 고립케 하는 작전으로 큰 전과를 보였다. 김일개는 67세로 별세했다.

⑥ 정(正) 김일덕(金一德)

김일덕의 정(正)이란 증직명은 먼저 말한 문세휘, 정순의 정과 같다.

김일덕은 임진 4월 15일 이후 본현의 대장(代將)이 되어 의병을 모아 적을 쳤다.

1736년(영조 12)에는 장례원 판결사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통정대부 병조참의로 가증(加贈)되었다고 충렬사지 부록 2의 별전공신이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장군지》(2001년 刊)는 임란공신을 밝힌 자리에서 김일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는 여경(汝卿), 호는 죽간(竹澗)으로 김일개(金一介)의 친동생

이다. 오늘날의 기장군 정관면 예림리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 때 기장현의 대장으로 형 김일개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곳곳에서 왜군을 무찔렀다. 기장 죽성리에 있었던 두모포(豆毛浦) 만호영이 무너진 뒤 두모포를 중심으로 해서 왜군을 무찔렀다. 김일덕의 의병들은 밤중에 북을 치면서 이곳저곳에서 함성을 지르고 공격하면 왜적은 갈피를 못잡고 배를 이용하여 도망쳤다. 그렇게 적이 도망칠 때 잠복해 둔 김일덕의 군사들이 도망치는 적을 쳤다.

이들 김일덕에 속한 의병들은 기장출신 의병장인 문세휘(文世輝), 김정서(金廷瑞), 이석숭(李石崇) 등과 합세하여 적을 치면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군수품과 짐수레 등을 탈취하는 등 교란작전을 벌였다.

이렇게 왜군에게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주면서 기장현의 대리장수 역할을 했다.

여기서 덧붙일 말은 김일개, 김일덕의 막내동생인 김일성(金一誠)의 얘기다. 김일성도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크게 싸워 그 공이 컸다.

김일성은 울산에서 싸우다 순찰사 박진(朴晉)과 뜻이 맞지 않아 단기로 동래성으로 돌아오다가 왜군에 부딪쳐 싸우게 되었다. 그 싸움에서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된 김일성은 일본으로 끌려가 7년 만에 탈출하여 고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김일성은 나라에서 벼슬을 제수하려 해도 받지 않고 은거하면서 학덕을 닦고 후학을 가르쳤다.

김일개, 김일덕 형제는 별전공신에 들어 있으나 김일성은 빠져 있다. 이는 적과 싸움에는 죽음이 있을 뿐인데 포로가 된 것을 평소에 부끄러워 한 그 정의감에 누를 끼칠 수 없어서의 일이라 한다.

⑦ 정(正) 송창문(宋昌文)

송창문은 임진년 7월부터 동래부의 의병장 김정서(金廷瑞) 진영에 종군하면서 공을 크게 세웠다.

1736년(영조 12)에는 장례원판결사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가증(加贈)으로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⑧ 정(正) 김근우(金根祐)

김근우는 임진년(1592) 7월부터 동래부의 의병장 김정서의 진(陣)에 의병으로 종군하였다. 무술년(1598)에 감군찰원위관(監軍察院委官) 주(朱)장군이 거느리는 바 초탐장(哨探將 : 적의 형세를 탐지하는 장수)으로 도원수(都元帥 : 전쟁 때의 최고위 군직)의 글을 받아 적의 형세를 탐지하였고 또 명(明)나라 장수 만세덕(萬世德)의 유왜문(諭倭文)을 받은 사실과 그가 활약한 자취가 아직 후손의 집에 남아 있다.

1736년(영조 12)에는 사도시첨정(司導寺僉正)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가증되었다.

⑨ 주부(主簿) 강개련(姜介連)

강개련의 증직명 주부는 조선왕조 때 여러 관서에 두었던 벼슬 이름이다.

강개련은 임진년 5월 12일부터 동래부 의병장 김정서진영에서 종군하였다.

1736년(영조 12)에는 사재감첨정(司宰監僉正)으로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도 가증이 있었을 것이나 후손을 찾을 수 없어 직첩(職牒)을 알 수 없다.

⑩ 판관(判官) 김흠(金屹)

김흠의 증직명 판관은 조선왕조 때 지방관직으로 수령의 보좌역이었다.

김흠은 임진년(1592) 4월 15일 이후 기장현 대장(代將)인 김일덕(金一德)진영에 종군하여 큰 공을 세웠다.

1736년(영조 12)에는 선공감 부정(繕工監 副正)에 증직되었고, 1769년(영조 45)에는 어모장군 훈련원정(禦侮將軍 訓練院正)에 가증되었다.

⑪ 주부(主簿) 이언홍(李彦弘)

임진년(1592) 4월 15일부터 기장현 대장(代將)인 김일덕 진영에 종군하였다. 여러 차례 적을 쳐서 적의 머리 13급(級)을 바쳤다. 계묘(癸卯)에 관찰사 이용순(李用淳)이 전후의 군공(軍功)을 논계(論啓)하여 특명으로 면향(免鄕)의 교지(敎旨)를 입었다.

1736년(영조 12)에 선공감 부정(繕工監 副正)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가증되었다.

⑫ 겸사복(兼司僕) 김대의(金大義)

김대의의 증직명 겸사복은 궁중에서 승여(乘輿)·마필(馬匹)·목장(牧場) 등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그 일을 겸한다는 뜻이다.

김대의는 임진년 5월 12일부터 의병장 김정서 진영에서 종군하였다.

1736년(영조 12)에 군자감 판관(軍資監 判官)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어모장군 훈련원정(禦侮將軍 訓練院正)에 가증되었다.

⑬ 참봉(參奉) 오홍(吳鴻)

오홍의 증직명인 참봉은 조선왕조 때 원(園), 능(陵), 내의원(內醫院), 사재감(司宰監) 등에 두었던 벼슬이름이다.

오홍은 임진년 4월 15일부터 기장현 김일덕 대장 진영에 종군하면서 여러 차례 적을 쳐서 공을 세웠다.

1736년(영조 12)에는 장례원 사평(掌隸院 司評)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통훈대부 장악원정(通訓大夫 掌樂院正)에 가증되었다고 《충렬사지》 〈부록2〉의 별전공신에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장군지》(2001년 刊)의 내 고장 인물에서는 오홍의 본관을 해주(海州)라 하고 기장현 하서면(下西面) 연구동(蓮龜洞)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동래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종제 오춘수(吳春壽)로부터 듣고 의병을 모집했다. 그동안 기장읍성도 왜군에 의해 함락되었다. 오홍 의병장은 기장읍성부터 수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춘수와 함께 의병을 독려하여(1592년) 4월 20일 기장현의 관문인 기장읍 서부리 용수계곡에 의병들을 매복시키고 동민들에게는 한 사람이 몇 개의 횃불을 들게 하여 동서부와 대라리를 점령하고 있던 적병을 기습했다. 밤중에 수많은 횃불을 들고 수많은 의병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습격하는 양 가장하자 적병들은 도망치다가 어두운 밤에 사라골 골짜기에 떨어져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이 전투가 임진왜란 때의 기장전투의 첫 전과였다.

오홍 의병장은 울산으로 출진하여 때마침 회야강이 홍수로 범람하고 있는 것을 틈타 덕계천에다 허술한 다리를 가설해 놓고 적이 위장된 다리로 도망하도록 유인한 뒤 협공을 가해 적군이 홍수속에 빠져들게 했다.

오홍 의병장은 또 기장현 두모포에서 적병이 군량미를 비축한 뒤 울산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군이 점유하고 있는 선창을 급습하여 적을 치면서 군량미를 빼앗았다.

1596년에는 그 당시 순천(順天)부사로 있던 오응승(吳應昇) 장군에 가담했다. 오응승 부사와는 혈족관계도 있으나 평소에도 친교가 있었다. 순천에서 오동량(吳東亮)장군과 연합하여 운봉(雲鳳)전투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정유년 정월 초순에 시작된 정유재란 때인 정월 23일 밤에는 의병을 이끌고 남원성 밖으로 적병을 급습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오희의병장은 장열한 전사를 했다. 그때가 나이 32세 되는 1597년 1월 24일 인시(寅時)였다.

⑭ 관노(官奴) 박인수(朴仁壽)

박인수는 관아(官衙)에 속해 있는 노비 즉 관노였다.

박인수는 임진년 4월 15일 이후 동래현의 관아사람이 모두 흩어져 무너질 때 끝까지 관을 배반하지 않고 적에 대항하면서 지켰다.

1736년(영조 12)에는 전연시 참봉(典涓寺 參奉)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군자감 주부(軍資監 主簿)에 가증되었다.

⑮ 절충(折衝) 김달(金達)

김달의 증직명을 절충이라 하였는데 절충은 절충장군(折衝將軍)이란 말로써 조선왕조 때의 무관위계로 정3품 당상관이 된다.

김달은 임진년 4월부터 의병장 권응수(權應銖)의 진영에서 종군하였다.

1736년(영조 12)에는 장례원 판결사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통정부 병조참의에 가증되었다.

⑯ 정(正) 송남생(宋南生)

송남생은 임진년 9월부터 의장병 김정서의 진영에서 종군하였다.

1736년(영조 12)에는 장례원 판결사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가증되었다.

⑪ 판관(判官) 김기(金琦)

임진왜란으로 동래성이 무너져 흩어져도 관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적과 맞서 싸우며 절개를 지켰다.

1736년(영조 12)에는 선공감 부정(繕工監 副正)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어모장군 훈련원정(禦侮將軍 訓練院正)에 가증되었다고 《충렬사지》 〈부록2〉의 별전공신이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부산북구향토지》(1998년 刊)는 문화유적과 유물에서 북구 만덕동에 있는 김기의 묘비에 새겨진 묘갈명(墓碣銘)을 인용하여 자는 화경(和卿), 본관은 광주(廣州)라 하였다.

그는 나면서 충의(忠義)로움이 하늘에서 뿌리박은 듯하였고 영민하고 비범함이 남보다 뛰어났다고 하고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으나 판관(判官)으로서 끝내 직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의병과 더불어 힘을 모아 적을 토벌하였다고 했다.

⑫ 부장(部將) 황보상(黃甫祥)

황보상의 증직관명을 부장이라 하였는데 부장은 조선왕조 때 오위(五衛)에 소속된 무관을 말한다.

황보상은 임진왜란 이후 모두가 흩어져 무너질 때 끝내 관을 배반하지 않고 적과 싸와 절개를 지켰다.

1736년(영조 12)에는 사재감 첨정(司宰監 僉正)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가증되었다.

⑬ 판관(判官) 이응필(李應弼)

이응필은 임진년(1592) 9월부터 의병장 김정서의 진영에서 종군하였다.

1736년(영조 12)에는 선공감 부정(繕工監 副正)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어모장군 훈련원정에 가증되었다.

위에서 밝힌 19인 공신 경력은 《충렬사지》 〈부록2〉의 별전공신록에 기재된 것을 중심으로 하였고 덧붙여 말한 것은 출전을 개별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위의 19인공신의 《포충록(褒忠錄)》이 밝혀지자 원통함을 호소하는 바 있어 5인의 공신을 더 첨가하였다. 그 5인은 다음과 같으나 미처 경력을 기록할 기회를 잃어 그 경력이 《충렬사지》에도 빠져 있다. 이 5공신을 더해서 별전공신은 24인이 된다. 경력이 미비한 그대로 5공신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㉔ 수문장(守門將) 송계남(宋繼男)

송계남의 증직 관직명 수문장은 성문 또는 관아(官衙 : 관청)의 출입문을 지키는 장수를 말한다.

송계남은 임진왜란 초부터 절개를 지켜 적과 싸와 공을 세워 남의 귀감이 되었다.

1736년(영조 12)에는 사도시(司導寺) 첨정(僉正)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도 가증이 있었을 것이나 후손을 찾지 못해 그 가증의 결과를 알 수 없다.

㉕ 겸사복(兼司僕) 이복(李福)

별전공신에 천거될 때는 공신으로서의 공적이 컸을 것이나 기록이 누락되어 오늘날 그 공적을 알 수 없음이 안타깝다.

1736년(영조 12)에는 군자감 판관(軍資監 判官)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도 가증이 있었을 것이나 자료를 얻지 못하고 있다.

㉖ 부장(部長) 오춘수(吳春壽)

《충렬사지》 〈부록2〉의 별전공신록에는 부장 오춘수란 기록만 있을 뿐 그 경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오춘수도 뒤에 추가 천거된 5인으로 그 공적 기록이 있었을 것이나 누락되어 있다.

1736년(영조 12)에는 사재감 첨정(司宰監 僉正)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도 가증이 있었을 것이나 자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장군지》(2001년 刊)에 의하면 기장현 하서면 출신의 병장 오홍(吳鴻)의 사촌동생이 오춘수(吳春壽)로서 오춘수는 1573년 동래읍 북면 노포동에서 태어났는데 자를 죽강(竹崗)이라 했다고 하고 있다.

《기장군지》는 오홍이 동래성이 함락된 것을 안 것은 사촌동생 오춘수를 통해 알게 되고, 오홍이 기장읍성을 수복할 때 오춘수도 함께 의병을 거느리고 싸웠다고 했다.

그리고 사명당 유정(惟政)이 서생포(西生浦)에서 가토오기요마사(加藤清正)와 만나는 등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인 1598년(선조 28) 3월 13일 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㉓ 첨정(僉正) 김복(金福)

김복의 증직을 첨정이라 한 첨정은 조선시대 때 돈령부(敦寧府), 내의원(內醫院), 군기사(軍器寺) 등에 속했던 종4품 벼슬이다.

김복도 별전공신으로 뒤에 추가된 5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큰 공적을 남겼고, 또 그 공적이 입증되고 기록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록을 잃고 있다. 아쉬운 일이다.

1736년(영조 12)에는 선공감 부정(繕工監 副正)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는 어모장군 훈련원정에 가증되었다.

㉔ 겸사복(兼司僕) 송의남(宋義男)

송의남도 부사 이안눌이 공의(公議)를 거쳐 19인의 별전공신을 정하였다가 주위 여론을 따라 다시 5인을 선정한 그 5인 속에 드는데 이안눌 부사가 공적을 적은 것을 갖추고 있었으나 채록(採錄)을 놓치고 말았다.

20세기 이전 부산을 빛낸 인물

1736년(영조 12)에는 군자감 판관(軍資監 判官)에 증직되고
1769년(영조 45)에도 가증(加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자료를 얻
지 못하고 있다. ■ 향토사학자 최해군

8. 수영 25의용(義勇)

임진왜란 당시의 동래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의 7년 사이 2차례에 걸쳐 왜군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온 전쟁을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이라 하는데 1597년 제2차 침범을 따로 말할 때는 정유재란(丁酉再亂)이라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남해안 지방에는 왜구(倭寇)들의 약탈이 잦았다. 왜구란 일본 서부지역 연해(沿海)의 왜인들이 집단으로 배로 들어닥쳐 우리 연해지역을 노략질해 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해적행위(海賊行爲)로 재물을 탐내는 약탈일 뿐 국토를 탐하거나 주민을 복속(服屬)케 하려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침략성을 띠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러한 국부적인 왜구의 해적행위를 넘어서서 조선 중기로 들어서면서 일본은 국력을 내걸고 우리나라를 침범할 기미를 보였다. 조선정부는 군국기무(軍國機務)를 장악하는 비변사(備邊司)라는 합좌기관(合坐機關)을 설치하여 외적침범에 대비했지만 선조대에 들어서서는 지배계급인 양반층 위정자간의 당파싸움으로 국가의 위기상황마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한 예를 조선정부가 1590년 3월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로 황윤길(黃允吉)을 정사(正使)로, 김성일(金誠一)을 부사(副使)로 보냈는데 다음해 정월 일본의 답서를 가지고 돌아온 답서에는 침략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정사 황윤길(서인)은 왜가 반드시 침략할 것이라고 한 반면 부사 김성일(동인)은 왜가 침범할 동정은 볼 수 없었다고 상반된 보고를 하였다. 이같은 당파적 엇갈림과 함께 조정의 의견도 통일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이율곡(李栗谷)같은 이는 정세 판단에서 오는 시국타개책으로 10만 양병설(養兵說)을 주장한 바 있었으나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배계층인 양반사회의 기강은 극도로 해이해지면서 인심의 동요는 심해지고 있었다.

한편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대륙침공을 위해 전국의 영주(領主)에게 출전인원수(병사)를 할당하여 침략군 편성을 마치고 있었다. 그 편성은 1번대(番隊)에서 16번대가 육군이고 따로 수군을 조직하였다. 그 가운데 조선을 침공할 군사는 제1번대에서 제9번대까지로 제1번대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이하 6명의 장수가 거느린 18,700명, 제2번대가 가토요기요마사(加藤清正) 이하 3명의 장수가 거느린 22,800명, 제3번대가 구로다나가마사(黒田長政) 이하 2명의 장수가 거느린 11,000명 등 제9번대까지 합하면 침략군은 총 158,700명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체계를 갖춘 침략군은 1592년(선조 25) 4월 13일(음력) 제1번대 고니시 유키나가군 1만8천7백명이 선발대가 되어 7백여척의 병선(兵船)으로 오후 5시경[申時] 부산으로 들어닥쳤다. 우리쪽 특히 부산·동래로 보아서는 예기치 못한 불시의 일이었다. 오늘날의 동구 좌천동에 있었던 수군진영인 부산수군첨사영은 군·관·민이 합심하여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14일 새벽 6시경에는 적군이 상륙하여 부산진성으로 일제히 공격해 왔다. 성안의 아군과 성밖의 왜군 사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왜군의 군세가 워낙 컸다. 중과부적이었다. 부산진성의 군·관·민은 목숨을 다한 항전이었으나 12시경 성은 무너지고 그 모두는 전사(戰死)로서 순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산진성을 넘어뜨린 왜군은 그 여세를 몰아 동래성으로 치달아와서 성을 포위하였다가 15일에는 본격적인 공격을 가해 왔다. 아군은 동래성에서도 선전을 하였으나 동래성 역시 15일에 무너지고 말았다.

다대포의 다대포수군첨사영성도 동래성과 거의 같은 때 무너졌다.

부산과 동래를 함락시킨 제1번대 고니시 유키나가군(小西行長軍)은 양산→청도(淸道)→대구→인동(仁同)을 거쳐 북상하였고, 4월 18일에는 제2번대인 가토오기요마사군(加藤清正軍)이 22,000의 병력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하여 동래→언양→경주→영천을 거쳐 북상하고 뒤이어 제3번대인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의 군이 11,000의 병력을 이끌고 다대포를 거쳐 김해로 상륙하여 김해→성주→무계(茂溪)→지례(知禮)를 거쳐 북상해 갔고, 나머지 번대들도 상륙하여 북상하였다.

북상한 왜군은 20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개성과 평양, 그리고 함경도까지 60일이 채 못돼 점령한 왜군으로 이 강토는 적에 짓밟히는 운명에 놓였다. 침략의 관문이었던 부산의 해안은 왜의 군수기지가 되었고 동래지역은 왜군이 점령한 적지(敵地)로 바뀌었다.

그런 가운데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라가 짓밟힘을 보다 못해 일어나는 구국구족(救國救族)에의 창의병(倡義兵)이었다.

영남에서는 유림 곽재우(郭再祐)·김면(金沔)·정인홍(鄭仁弘) 등이, 호남지방에서는 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 등이, 호서에서는 조헌(趙憲) 등이, 함경도에서는 정문부(鄭文孚) 등이, 의병을 일으켜 항전하였다.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宜寧)에서 거병하여 의령, 창녕 등지에서 적을 물리치고 진주(晋州)에서 김시민(金時敏)과 함께 적병을 격퇴했다. 조헌은 충청도 옥천(沃川)에서 일어나 청주의 왜병을 축출하고 금산(錦山)의 왜병을 공격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문부는 함경도에서 활약하여 경성(鏡城), 길주(吉州) 등을 회복하고 관동지방의 적을 축출하였다.

이 밖에 크고 작은 의병의 연이은 봉기는 왜군의 군사활동에 치명타(致命打)가 될 뿐 아니라 계속 확대되는 의병으로 침략의지를 꺾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이 의병을 모으고 또는 모여들어 자치적 군대조직을 형성하여 적을 추격 토벌한 의병활동은 왜적을 이 강토에 발붙일 수 없게 했다.

왜적이 침범하는 첫 길목이자 왜적의 주둔지가 된 동래지역(현 부산지역)에도 의병이 일어나고 있었다. 동래지역에 있었던 조직적인 큰 의병으로는 김정서(金廷瑞)를 의병장으로 한 김정서진영이 있었고 김일개(金一介)를 의병장으로 한 김일개진영이 있었다. 이 밖에 문세휘(文世輝)진영과 김일덕(金一德)진영도 있었다.

이들 의병조직 이외에 지역민으로 조직되어 지역을 지킨 의병조직으로는 ‘수영 25의용’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의 수영

수영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을 줄여서 수영(水營)이라 했는데 이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울산 개운포(開雲浦)에서 오늘날의 수영으로 이설(移設)되기 이전은 수영을 남촌(南村)이라 하고 남촌 동쪽의 바다를 해운포(海雲浦)라 했다.

그런데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울산 개운포에서 동래 남촌으로 옮겨진 연대(年代)를 《동래영지 東萊營誌》, 《영남진지 嶺南鎭誌》, 《여지도서 輿地圖書》는 모두 그 연대를 알 수 없다 하고, 《울산읍지 蔚山邑誌》와 《징비록 懲毖錄》은 선조대(宣祖代)라고만 했는데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만이 1592년(선조 25)이라고 했다.

《증보문헌비고》에 기록된 선조 25년은 4월에 임진왜란이 일

어난 해이다. 그래서 사학자 사이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에 어찌 좌수영을 옮길 수 있었겠느냐고 한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를 믿는다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4월 이후에는 수영을 이전할 수 없었을 것이니 이전을 했다면 1월에서 3월 사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 도중에 임진왜란을 맞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징비록》은 그때의 좌수사 박홍(朴泓)은 왜적의 형세가 대단한 것을 보고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다.

그러나 《징비록》이 도망쳤다는 박홍은 4월 17일(왜적이 쳐들어 온 것은 13일 오후 5시경) 이른 아침에 왜적 침입의 장계를 조정에 올렸다. 조정이 맨 처음 왜침을 안 것은 박홍의 장계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좌수영의 이전 도중에 임진왜란을 맞은 것으로 여겨진다. 좌수영의 군장(軍長)이 자기 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만일 오늘날의 수영에 좌수영이 완전히 옮겨져 있었다면 박홍이 직무유기를 감수하고 달아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도망한 박홍은 평양으로 몽진(蒙塵)하는 선조를 호송하다가 성천(成川)에서 우위대장(右衛大將)이 되고 1593년에 전사했다.

그리고 《징비록》에 박홍이 성을 버렸다고 했는데 수영에 그때 성이 있었을까? 그때의 국내사정으로 보아 성을 먼저 쌓아놓고 좌수영을 옮길 여유는 없는 상황이었다. 좌수영을 옮겨 놓은 뒤 그 성의 인력(人力)으로 성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징비록》에서는 어느 성을 말했을까? 그 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관방조 關防條〉에 나오는 해운포영(海雲浦營)인 만호영(萬戶營)으로 정덕 갑술(正德 甲戌 : 1541년)에 처음 석성(石城)을 쌓았을 둘레 1,036척 높이 13척의 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만호영성은 아주 좁다. 오늘날 수영에 얼마간 남아

있는 성은 임진왜란 훨씬 뒤인 1652년에 쌓은 것으로 둘레 9,190척, 높이 13~16척이다.

그런데 1522년(중종 17)과 1544(중종 39)에 수군진관(水軍鎭管)을 개편했는데 그때의 진영 가운데 해운포영의 이름이 없다. 이 기록은 해운포영이 폐진이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니 1514년에 쌓은 해운포만호영성은 비록 있었다 하더라도 폐진이 되어 허물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 남촌에 수군진영이 들어서서 수영이 되었으나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왜적은 침략과 주둔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황 속에서 목숨을 잃은 지방민도 많았다.

수영 25의용 일어나다

부산진성과 동래성이 무너지고 이땅이 왜군에 짓밟히자 혈기방장한 젊은이는 분연히 일어났다. 내 고장을 짓밟고 있는 왜적을 내 손으로 무찌르려는 것이었다. 수영(오

수영 25의용사 부산 수영구 수영공원 늘날의 수영구 전역에 해당함)을 중심으로 한 동래의 스물다섯 젊은이는 죽음으로 내 강토 지키기를 다짐했다. 이 스물다섯 젊은이가 수영 25의용(義勇)이다.

이 지역의 지리 지세에 소상한 지역 의병이었다. 효과적 토벌을 위해 스물다섯 사람은 군사체제로 조직되었다. 그렇다고 일시적 토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계속 상륙하고 복상하는 왜군의 동태로 보아서는 장기전 전법이 되어야 했다.

작전계획은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 갔다. 바람길을 이용하여

바닷가에 매어 둔 적선의 닻줄을 밤을 타서 끊어 바람길 따라 배가 떠내려 가게 하고, 횃불을 적의 주둔지에 던져 솟아오르는 불길에 우왕좌왕하는 적을 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쳤다.

그러한 전법은 혼자가 감행할 수도 있고 몇몇의 힘으로 치를 수도 있고 전원의 합동 토벌일 수도 있었다. 의병이 밀어닥칠거란 허위정보를 보내 출동하는 왜군을 잠복한 25의용이 협공을 가하기도 하고, 25의용이 주둔군을 산으로 유인해서 산위에 준비해 둔 바윗돌을 굴러 적군을 쓰러뜨렸다. 상륙하는 적군에게는 협곡으로 길을 열어 주었다가 화살로 협공을 가했다.

정규군이 모두 흩어지고 없다 해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란 군제(軍制)는 존재해 있었고 군의 수장(首長)인 좌수사(左水使)는 계속 임명되고 있었다.

좌수사가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25의용은 임명된 좌수사의 거쳐까지 찾아가서 맞이 하였고 그 도중에서 적을 맞아 싸우기도 했다. 1593년 3월경에도 신임 좌수사를 장기(長鬢)에서 모셔오면서 수륙으로 적을 쳤다.

그렇다고 25의용은 국가의 녹을 먹는 관군이 아니었다. 가족과 생계를 돌보면서 내강토를 지키는 의병이었다. 그러자니 유격전(遊擊戰)인 경우가 많았다. 의용들은 지리 지세에 소상한 만큼 효과적 전법을 쓸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게 7년간이었다. 7년 그 사이 스물다섯 사람 그 모두가 순국으로 목숨을 잃었다.

25의용의 업적이 드러난 것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난 얼마 뒤인 1609년(광해군 원년)에 동래부사 이안눌(李安訥 : 재임기간 1608. 2 ~ 1609. 7)이 지방사람의 청원에 따라 25인의 공적을 살펴 〈정방록 旌榜錄〉에 실어 충절의 사실을 밝히면서 그 의용의 집 문에 의용(義勇)의 두 글자를 쓴 편액(扁額)을 걸게 하여 포상한데 있었다.

그 당시 〈정방록〉에 실린 수영 25의용의 성함은 다음과 같다.

김옥계(金玉戒), 이희복(李希福), 정인강(鄭仁疆),
최한련(崔汗連), 최송엽(崔松葉), 최한손(崔汗孫),
최수만(崔守萬), 최막내(崔莫乃), 박지수(朴枝樹),
최말량(崔耑良), 김팽량(金彭良), 김달망(金達亡),
박응복(朴應福), 김덕봉(金德奉), 심남(沈男),
이실정(李實貞), 이은춘(李銀春), 김허룡(金許弄),
정수원(鄭壽元), 주난금(朱難金), 박림(朴林),
김종수(金從守), 신복(辛福), 김진옥(金進玉)
이수(李壽)이다.



수영 25의용비 부산 수영구 수영공원
상하였다.

수영 25 의용단(義勇壇)

수영 25의용에 대해서는 이안눌 부사가 <정방록>에 올리고 의용(義勇)이란 편액을 걸게 하였을 뿐 아니라 순조 때의 동래부사 오한원(吳翰源 : 재임기간 1806~1809)은 25의용에게 부역(賦役)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글을 찬술(撰述)하여 포

그 이후 1853년(철종 4)에는 경상좌수사 장인식(張寅植)이 25의용을 모실 단(壇)을 지금의 수영구 수영동 366번지 일원에 세웠다. 그 단의 중앙에 의용단비(義勇壇碑), 그 아래에 25인 개개의 비를 배설하고 재실(齋室)인 의용당(義勇堂)을 세웠다.

이 단을 세우는데 쓰이는 비용은 자진해서 참여한 사람이 많아 부역으로 백성을 소란케 하지 않았고, 제사도 관(官)의 폐를 끼치지 않았다. 제주(祭主)는 역대의 경상좌도수사(慶尙左道水使)가

되었고, 향사(享祀)는 매년 춘추 2회에 거행되었는데 음력 3월과 9월의 정일(丁日)을 파제일(罷祭日)로 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인한 관제개혁으로 좌수영이 폐지되자 그 후는 수영면(水營面)의 면장이 주재하였으나 일제강점기 일본인 면장이 부임하고부터는 수영기영회(水營耆英會)에서 주재하게 되었다.

1972년 6월 26일에는 수영 25의용단이 부산광역시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었다.

1974년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의용단의 정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중앙에 義勇諸人碑(의용제인비 : 높이 150cm, 넓이 60cm)라 새긴 의용비가 세워지고 양쪽에 새로 새겨진 25인의 의용제인(諸人)인 개개의 비가 줄지어 세워졌다.

2000년에는 대대적인 정화사업이 이루어졌다. 25의용의 위패를 모신 의용사(義勇祠)가 전통 사우(祠宇)로서 격을 갖추고 내삼문의 영회문(永懷門), 외삼문인 존성문(存誠門)과 관리사인 전사당(典祀堂)이 세워지면서 담장도 새로 축조되었다. 또 종전에는 북쪽 중앙에 세워졌던 의용제인비(義勇諸人碑)는 자리를 본전(本殿)인 의용사에 넘겨주고 서쪽에 세워진 의용제인 개개의 비석 첫머리에 세우고 이름이 새겨진 개개의 비는 의용사 남쪽 넓은터에 동서(東西)로 배치되었다.

25의용의 단합과 작전지

그러면 수영 25의용이 죽음을 맹세하고 왜적을 토벌할 작전과 함께 단합을 꾀한 곳은 어디였을까? 그것을 《남구향토지 南區鄉土誌》(1985년 刊)가 ‘수영느티나무’란 이름으로 밝히고 있다.



수영 무민사 선서바위 앞에 세워진
수영의 무민사

이 책에 의하면 “수영동 옛 수영성 남쪽 한 구석 3평 남짓한 성곽의 바위틈에 거목(巨木)인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나무를 일명 ‘가림나무’로 불리는 부산광역시 보호수 제9호이다. 나무 아래에는 최영장군(崔瑩將軍)의 사당이 있다. 수령(樹齡) 500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에는 왜병을 물리친 의병(義兵) 25인의 넋이 함께 깃들어 있다고 전해 온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수영성을 공격해 왔다. <중략> 이때 왜군의 잔학함을 보다 못한 25명의 성민들은 의병을 조직하였다. 이들 의병은 이곳 느티나무 바위에 몸을 숨기고 왜군 격퇴작전을 세웠다. 치밀한 작전계획을 짠 의병들은 최영장군 사당에 들러 전승(戰勝)을 기원한 뒤 반격(反擊)에 나서 7년 동안 기습작전으로 왜적을 토벌했다.

이런 연유로 25인의 의병이 맹세한 바위를 선서(宣誓)바위라 하며 그 거목을 의병들의 단합광경(團合光景)을 가리어 주었다 하여 ‘가림나무’라 하고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최영장군 사당은 오늘날 수영동 507~9번지에 있는 무민사(武愍祠)이다. 이 무민사 바로 뒤에 아주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가 25의용이 왜적을 토벌하여 나라 지키기를 죽기로 맹세한 선서바위이다. 이 선서바위는 그 날을 증명하듯 오늘날에도 그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25의용이 모인 단합의 자리이자 작전계획을 짜는 자리를 주둔하고 있던 왜군에게 들키지 않도록 가려 준 가림나무의 원

줄기 원기둥은 10여년 전에 노쇠로 말라 없어졌다. 없어진 그 원줄기 밑뿌리에서 가지가 솟아 땅밑에서 새 줄기를 뻗어올린 애처로운 가지가 작년까지만 해도 몇 줄기를 뽑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주위에서 버린 쓰레기가 섞인 흙과 돌자갈로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였는데 2002년 가을에 자생의 대나무, 잡초, 잡목에 묻혀 그 애처로운 가지의 존재마저 찾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쌓인 흙과 돌자갈을 파헤치고 가지가 원줄기가 된 그 줄기를 찾아내어 정성으로 자생의 생명이 이어가도록 했으면 한다.



선서바위와 가림나무터 부산 수영구 정성으로 자생의 생명이

그리고 가림나무라 한 이 나무를 남구향토지는 느티나무라 했는데 그 실은 느티나무와 같은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팽나무로 이 지역에서는 포구나나무라 불리는 나무로 보인다.

이 나무는 오래 전에는 이 주위에 여러 그루 있었다고 하는데 한 그루가 남아 홀로 된 가림나무의 벚을 만들어 주고자 주위에 소나무를 몇 차례 심었지만 번번히 말라죽었다. 옛 사람의 이런 정성은 25의용을 기리는 뜻에서 온 것이었으나 오늘날의 모습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유향소(留鄕所)가 동래부에 올린 보고문

1608년(선조 41) 유향소(지방관장을 보좌하던 자문기관)가 25의용을 동래도호부에 청원한 청원서를 보면 당시의 25인의 업적을 알 수 있다. 그 보고서 원문을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문서의 첫 머리에 ‘조사보고하는 일’이라 하고 있다. 이

로 보아서는 동래도호부에서 이러한 일에 대해 조사·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유향소가 문서로 보고한 것 같다.

수영주민 김옥계(金玉戒：金玉啓 두 갈래 기록이 있음) 등 25인이 진정서 안에 연명되어 있는데 그들은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바닷가의 보잘 것 없는 백성으로서 지푸라기 같은 답답한 심정을 구중궁궐에 호소할 길 없어 탄식을 해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임진년 4월 흉악한 왜적들이 크게 날뛰어 먼저 부산을 함락시키고 동래로 쳐들어 왔을 때 많은 생목숨들이 적의 창칼에 희생되었습니다. ……

그런데 수사(水使) 이교시(李敎是)는 장계를 올려 경주로 후퇴하고 전세는 불리하여 군대가 다 흩어진 후에도 그들은 (25의용) 오장이 타는 듯한 비분강개함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의 왜적의 목이라도 베어 국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계획으로 산에 올라 적과 싸웠습니다.

같은 해 11월경 새 수사 이교시를 맞아 오는 도중에 적을 토벌하였고, 계사년(1593년) 3월경 또 새 부사 이수행(李隨行)이 장기(현 경북 長鬐) 땅에서 군대를 모아 올 때 화살을 메고 종군하면서 해상과 육지의 싸움터에서 분전한 것들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대개 그들은 동래 사람으로서 적이 처음 쳐들어 올 때 가산이 다 탕진되어 온전히 살아갈 가망이 없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에 대한 충절을 굳게 지켜 죽을 각오로 방패와 창을 어깨에 메고 비분강개하는 마음으로 적을 토벌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닷가가 되어 임금님 교화가 미치지 못하여 나라 위한 충정이 부질없이 티끌 속에 버려져 원통하였습니다마는 실적을 공문에 첨부하라는 지시에 따라 여론을 수집해 본즉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충성심을 떨쳐 무기를 들고 끝

까지 종군한 공로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뒤에 기록하오니 밝게 살피시어 논상(論賞)을 시행해 주옵소서.

만력(萬歷) 36년(1608년) 11월 11일.

유향좌수(留鄕座首) 정(鄭 : 서명)

별감(別監) 송(宋 : 서명), 박(朴 : 서명)

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의 좌수영 수사는 이유의(李由義 : 재임 기간 1592 ~ 1593. 4), 이수일(李守一 : 재임기간 1593. 4 ~ 1596. 4), 이운룡(李雲龍 : 1596. 4 ~ 1600. 12)이다.

보고서에 수사 이교시(李敎是) 또는 새수사 이교시 또는 이수행(李隨行) 등으로 나오는 수사는 이들이 아닌가 한다.

김씨 집에 내린 〈정방록 旌榜錄〉

유향소에서 25의용을 동래도호부에 보고한 것이 1608년인데 동래부에서 각 의용의 가정에 포창하는 〈정방록〉을 동래부 부사가 내린 것도 1608년(만력 36)이다.

25의용 가운데 〈김가정방록 金家旌榜錄〉(金玉啓의 집에 보낸 정방록)의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세상이 잘 다스려질 때는 높은 벼슬을 하다가 세상이 변해지면 뱀이나 돼지, 승냥이나 올빼미가 되는 것이 열에 아홉이다’고 하였다.

하물며 이곳 수영은 멀리 바다 한 귀퉁이에 위치하여 지난 임진년 영내의 백성들이 왜적의 수중에 함몰되어 악랄한 위협에 복종하면서 얼룩덜룩한 왜놈의 옷을 입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왜놈의 말을 하는 것도 참으로 괴이함이었다.

김옥계(金玉啓) · 정인강(鄭仁疆) · 최송엽(崔松葉) · 최수만

20세기 이전 부산을 빛낸 인물

(崔守萬)·박지수(朴枝樹)·김팽량(金彭良)·박응복(朴應福)
·심남(沈男)·이은춘(李殷春)·정수원(鄭壽元)·박림(朴林)
·신복(辛福)·이수(李壽)·이희복(李希福)·최한련(崔汗連)
·최한손(崔汗孫)·최막내(崔莫乃)·최말량(崔堯良)·김달망
(金達亡)·김덕봉(金德奉)·이실정(李實貞)·김허룡(金許弄)·
주난금(朱難金)·김종수(金從守)·김진옥(金進玉) 등은 이에
비분강개로 중군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왜적을 토벌하면서 7
년전쟁에 금석같은 한 마음으로 용맹과 절의를 떨쳐 나라에
몸을 바침으로써 그 공로가 현저하고 뛰어난 충의가 넘람하
였으니 ‘거센 바람이 불어서야 역센 풀을 알 수 있다’ 함은
이를 두고 이름이로다.

이제 널리 공론을 수집하고 실제 업적을 조사해 보니 모
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여 그 빛남이 해나 별 같으므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창함으로써 격려하고 권장하는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

이에 ‘義勇(의용)’의 두 글자를 새겨 25인의 집 대문 위에
달게 하라. 호역(戶役)을 면제하고 공적에 따라 상을 내리는
일은 마땅히 순찰사(巡察使)에 보고하여 시행하겠으니 그대들
은 잘 알고 그대들의 절의를 더욱 힘쓰면서 길이 영광을 받
을지어라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수영 25의용의 활동과 충절은 김가
정과 비슷하였을 것이다. ■ 향토사학자 최해군

9. 사명대사(四溟大師)

사명대사(四溟大師)는 법호를 유정(惟政), 호를 송운(松雲), 중봉(鍾峯)이라 한다. 그는 1544년(중종 39)에 나서 1610년(광해군 2)에 세상을 떠났다. 속성(俗姓)은 임씨(任氏)이고 자는 이환(離幻)인데 본관(本貫)은 풍천(豐川)이다.

태어난 곳은 경남 밀양시(密陽市) 무안면(武安面) 삼강동(三綱洞)으로 속칭 괴나루 동네이다. 이 고장은 옛부터 예를 숭상하는 고장이라서 이름도 삼강동이였다. 삼강은 충·효·열이니 곧 충으



사명대사 영정

로는 사명대사와 손인갑(孫仁甲), 노개방(盧蓋邦)이 있고 효는 손인갑의 아들 약해(若海)가 있다. 열로서는 노개방의 부인 이씨가 있어 그 이름이 세상에 높다.

밀양시에서 서쪽으로 40여리를 가면 깊숙한 산골짜기에 이른다. 이곳 맨 끝자락 산밑에 괴나루라는 자연못이 있는데 이 동네 이름을 옛날에는 고나리(古羅里)라 했다. 이 동네 아래쪽에는 왕대 숲이 병풍처럼 둘러 있었는데 그 속에 초가집이 서쪽을 향해 앉아 있었으니 이 집이 바로 사명대사가 태어난 곳이다. 이 집에는 뜰안에 소나무, 대나무, 매화들이 심어져 있어 그 골 사람들은 이 집의 가장인 임처사를 합하여 사군자(四君子)택이라 했다.

그의 조부는 이름을 효곤(孝崑)이라 했는데 문과에 급제하고 장악원장(掌樂院長)이 되었으나, 성종 말년에 대구도호부(大丘都護府)의 부사가 되어 전국을 순회하다가 밀양 영남루(嶺南樓)에 이르러 그 골의 인심과 산수를 살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1558년 응규(應奎 : 사명의 아명)가 14세 되던 해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매 한 마리를 사냥하여 시렁에 묶어 놓고 출타했는데 그것을 본 응규는 인간의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고, 대자연을 향해 날고 싶은 욕망을 자신에게 비겨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조부의 훈도에 의해 유학자 유촌(柳村) 황여헌(黃汝獻)에게 배웠으나 이제 조금 더 큰 꿈의 실현을 위해 홀연히 운수객(雲水客 : 스님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이 될 것을 마음먹고 길을 떠났다.

황악산(黃嶽山) 직지사(直指寺)에 입문하여 신묵화상(信默和尚)의 문하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유학의 벗으로서 사암(思庵) 박순(朴淳),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고죽(孤竹) 최가운(崔駕運) 등이 있어 죽마고우로 사귀어 왔으나 모두가 흘러간 시간속에 지나간 꿈이라 생각하고, 머리를 깎고 전등록(傳燈錄 : 조조들의 법맥을 체계화 한 법어집)에 침잠했다. 그러나 앞의 친구들은 물론, 재봉(霽峰) 고경명(高敬命), 허미숙(許美淑), 임자순(林子淳), 이익지(李益之) 등 시회(詩會)의 창화자들도 끝내 잊지 않고 평생을 교류하며 살았다.

1592년(선조 25) 사명이 47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때 대사는 더욱 정진을 위하여 금강산(金剛山) 유점사(楡岾寺)에 들어가 있었다. 왜적은 이 깊은 골짜기까지 쳐들어 왔다. 이때 사명대사는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먹고 쉬고 놀면서 여러 해 동안 지나온 것이 모두가 임금의 덕인 것이다. 그러하니 이런 어렵고, 위태로운 때를 당해서 어찌 앉아서 구경만 한단 말인가.

하고선 곧 승병을 모아 순안(順安)으로 향하니 그 동안 의승(義僧)들이 각처에서 일어나 그 수가 수천명이 되었다.

1592년 4월 14일 왜적은 대군을 이끌고 부산진성을 침공하였다.

부산진첨사(僉使) 정발(鄭撥)은 성안의 백성들과 결사항전하다 순절하고 그 이튿날 잇따라 동래부사(府使) 송상현(宋象賢), 다대진첨사 윤흥신(尹興信)도 항전하다 순절했다. 이때 전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승병은 도처에서 의병과 더불어 봉기하여 적과 싸워 큰 전과를 올렸다.

그 가운데 승군 중 최초로 전투에 참가한 스님은 공주(公州) 청련암(靑蓮庵)의 영규(靈圭)였다. 그는 사명과 같이 밀양 출신으로 서산대사(西山大師) 문하에서 함께 수학한 사이였다. 이때 서산은 팔도십륙종(八道十六宗) 안의 선교종(禪敎宗) 각각 여덟 사람들에게 총섭직(摠攝職)을 주어 전승군을 관장케 했다.

이때 사명은 금강산 표훈사(表訓寺)에 있었는데 승병군단이 평양성의 공격을 앞두고 출발하려 할 때에는 사명이 모은 1,000여명과 서산이 모은 4,000여명을 합하여 무려 5,000여명을 헤아리는 대군단이었다. 이 평양성 공략의 편대는 서산이 주장이 되어 총지휘하고 사명은 부장으로 참모역을 담당했다. 이 싸움에 왜군은 크게 패하여 도망하고 말았다. 이듬해 4월 서울이 수복되어 선조가 환도하게 되었다. 이때 나라에서는 서산에게 국일도대선사 선교도총섭 부종수교 보제등계존자(國一都大禪師 禪敎都摠攝 扶宗樹敎 普濟登階尊者)의 칭호를 내렸다. 그러나 서산은 늙어 묘향산(妙香山)으로 들어가고 이 자리를 사명에게 넘겨 주었다.

지금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는 사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것은 사명이 부산지방에 남긴 공적 때문이다. 그러면 사명이 부산과 연고를 맺은 처음은 언제인가. 《분충서난록 奮忠紓難錄》에 의하면 그는



사명대사비각

부산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서생포(西生浦)에 있는 가등청정(加藤清正)의 진중을 ‘전후 삼차에 걸쳐 탐정했다.’라고 한다. 첫번째 탐방은 1594년(선조 27) 4월 9일이다. 이때에는 사명이 해인사에서 활과 화살을 만들고 군량미를 비축하기 위하여 의령(宜寧)까지 나와 활동할 때이다. 사명이 일차 탐정을 무사히 마치고 ‘의령 본진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는데 그가 서생포로 갈 때에는 경주를 경유하여 울산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되돌아 올 때에는 정확한 행로를 기록한 것이 없다.

또 같은 해 7월, 12월에 다시 탐정의 길을 떠났으나 거처한 곳이나 오고간 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서생포는 울산과 해운대 사이에 있는 요새로 바다를 끼고 있어 왜성으로는 더욱 중요한 기지였다. 그러므로 처음 사명이 갔을 때에는 군사적 경계가 심하여 일부러 먼 경주 길을 우회했을 지 모르나 탐정이 끝나고부터는 경계가 문제시 되지 않아 가까운 서생포→해운대→부산포 길을 두고 우회하는 울산→경주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사명이 부산에 맨 처음 길은 1594년 갑오년 첫 서생포 탐정이 끝날 때라고 추측된다.

서생포진은 부영(釜營)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석장비문(石藏碑文)은 ‘사명이 부영에 들어가서 탐정을 했다.’라고 적고 있다. 서생포진이 부영에 속해 있으면 같은 관할영이기 때문에 더욱이 부산 출입은 용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진성은 감만포, 좌수영성과 삼각관계의 위치에 있다. 이 반경에 당시 있었던 절로는 백산(白山)에 있었던 백산사(白山寺) 뿐이다. 범어사(梵魚寺)가 본산(本山)이라 할지라도 이미 임진년의 왜란으로 불에 타서 승려들이 거처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사명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부산진, 감만포진, 좌수영을 가까이에서 출입할 수 있는 것은 백산사 뿐이었을 것이다. 이 절은 사명이 일본으로 갈 때나 올 때도 모두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백산사가 있는 해변가 주변에는 전선(戰船)을 만드는 선소

(船所 : 지금 수영교 근처의 현대아파트 자리)가 있고, 산 정상에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첨이대(覘夷臺)가 있다. 또 수영강을 마지막으로 하는 수영만에 붙은 산자락에는 감포(甘浦), 축산포(丑山浦), 칠포(漆浦), 포이포(包伊浦) 등 사진(四鎭 : 민락동 옛날 횃집이 있던 돌레)이 있었고 그 건너편에 승당(僧堂 마을 : 지금 올림픽동산 주변)이 있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전쟁의 요새지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명의 거처는 더욱 이 근처에 있는 백산사로 인정된다.

사명의 두번째 부산에서의 흔적은 1601년이다. 사명은 가동청정의 진중을 탐정하고 나서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부산진성의 수축이었다.

말을 내산(萊山)에 묶어 두고 산봉우리에 올라보니
 눈 안에 들어오는 외로운 섬 그 원한 사무치네.
 창과 배로 오랑캐를 평정하지 못하고
 물리서서 허물어진 옛 성에 수루를 세우도다.

立馬萊山最上頂 眼中孤島恨難休
 丈船未試平蠻策 却向荒城建戍樓

이 시는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4도(四道)의 체찰사(體察使)가 되어 부산에 왔을 때 사명이 승려를 시켜 부산진성을 수축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 하도 커서 <유송운수축부성유감 遺松雲修築釜城有感>이라 하여 사명에게 직접 지어 준 것이다. 이때에는 임진·정유 양란을 모두 치루고 왜의 재침을 경계하고 있을 때이다. ‘장선미시평만책 丈船未試平蠻策’이라 했으니 그때 왜적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독한 기운은 비되어 사람의 옷을 적시니
참지의 외로운 솔개는 날지 못하네.
많고 적은 산승들이 몹시 염려되어서
새벽에 나가 북소리 울리고 저녁에 돌아옴을 잊도다.

瘴氣如雨濕人衣 站地孤鷲因不飛
多少山僧長繫念 曉趨鑿鼓夕忘歸

이 시는 한음의 <위축성제승 慰築城諸僧>이란 시인데 이것을 보면 부산진성은 사명의 감독하에 여러 승려가 동원되어 수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체찰사 한음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시는 쓰긴 것이다. 성직자가 이런 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더욱 국가의 장래가 걱정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 부역(賦役)으로 나온 산승들은 어디서 기식하며 일을 했을까. 여기의 총책임자는 말할 것 없이 사명이다. 이같이 많은 승려를 재우고 먹으려면 백산사와 승당마을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욱이 한음과 사명은 서로의 위치가 다르다. 한음은 최고의 벼슬아치이고 사명은 한갓 산승의 신분이다. 그러나 한음이 사명과 산승들에게 시를 써서 위로 했으니 그때 한음의 나라 걱정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잘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시제(詩題)에서 더욱 잘 알 수 있다.

翎原敬岑師 曾修本處山城(영원경잠사 증수본처산성)
今遂松雲來釜山 要我贈一言(금수송운래부산 요아증일언)
我與師有聞 天溪上之約草(아여사유문 천계상지약초)
此爲契(차위계)

이에 의하면 원래 부산진성은 영원 경잠사 스님께서 옛날에 쌓은 일이 있었는데 같은 성직자인 사명이 다시 수축하게 되었다. 일찍이 한음과 사명이 청계에 있을 때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모름지기 무엇인지 도우면서 협조하기를 약속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진성을 승려들과 더불어 수축하는 것이다. 이때 한음의 나이는 40세이고, 사명은 58세였다. 이 두분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인간적이었다. 그것은 다음 시 속에 간직되어 있다.

이곳저곳 산성에서 여러 해 보냈도다.
바다 위에 함께 있어 또한 인연이러니
부질없는 속세일 끝내고 나서
지팡이 하나로 두메산골 찾으리

山城隨處費多年 海上同留亦有緣
準擬世間閑事了 一筇相訪峽中天

부산진성은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옛날 부산진성 서문 양쪽에는 남요인후(南徼咽喉) 서문쇄약(西門鎖鑰)이란 문비(門碑)가 있었다. 이 말은 곧 우리 부산의 ‘남쪽은 나라의 목구멍에 해당되고, 서쪽은 자물쇠로 굳게 잠구어 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렇다. 적어도 한음과 사명은 연령을 초월하고 직위를 뛰어넘어 나라와 겨레의 안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들은 불꽃 튀는 전쟁 속에서도 인간애를 최상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인 한음이 산성을 쌓고 있는 사명에게 지극히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이었다. 이 시를 통해서

두 사람의 우정을 살펴본다면 ‘지팡이 하나로 두메산골 찾으리’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덕형이 이 시를 통해서 보는 사명의 부산사랑은 부산 향토사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1604년(선조 37) 부산진성을 수축하고 2년이 지났다. 그래도 나라 안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명은 1601년~1603년간을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여름 휴가를 얻어 금강산 유점사(楡岾寺), 표훈사(表訓寺)에 있다가 오대산(五臺山)에 입산 중이었다. 사명은 1604년 2월 21일 갑자기 은사 서산의 열반(涅槃) 소식을 듣고 묘향산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비변사(備邊司 : 조선시대 군국(軍國)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아)를 통하여 전교(傳敎)가 강원감사(江原監司)에게 전달되었다. 전교의 내용은 사명에게 대마도(對馬島) 파견의 명이 내려진 것이었다. 그 해 6월 8일 전교를 받고, 6월 22일 서울로 가서 선조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7월 1일 서울을 떠나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이때 사명은 서울에서 부산포까지의 여정을 기행시로 읊었는데 이 시에는 그때의 회포가 잘 담겨져 있다. 이 시는 《사명대사집》 제7권 잡체시(雜體詩) 부에 실려 오늘의 우리에게 그의 심회를 전해 주고 있다. 시작(詩作)의 여정(旅程)은 서울에서 단양(丹陽), 죽령(竹嶺), 작원(鵲院), 김해(金海), 감만(戡蠻)에 이르기까지 객관(客館)에 머물 때마다 쓴 것 같다. 서울에서 맨 처음으로 쓴 시는 <단양전사야회 丹陽傳舍夜懷>이고, 다음은 죽령을 넘어오면서 썼다.

더운 비 처음 개고 고갯길 가을이네,
삼가 임금의 명을 받고 남주로 내려간다.
몸은 백억으로 나눈다는 말 뉘가 허망하다 했는가.
이환이 어느덧 박망후가 되었는데.

庚雨初晴嶺嶠秋 恭承朝命下南州
分身百億誰云妄 離幻翻成博望侯

죽령은 서울과 남도를 경계 짓는 분수령이다. 사명은 이 고개를 넘으면 나라의 명을 완수해야 한다. ‘과연 내가 의무를 관철할 수 있을까’하는 고뇌속에 몸이 하도 바빠서 백억으로 나뉘야 할 형편이다. 불가에서는 석가모니불의 역할이 너무 많아서 그를 일러 백억화신(百億化身)이라 했다. 지금 이환(사명의 자)의 몸도 백억화신이라도 모자란다. 저 한(漢)나라 장건(張騫)이 서역에 사신으로 갔다 와서 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서 박망후(博望侯)에 봉해졌다. 사명도 그렇게 되기를 맹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승주유하작원 乘舟流下鵲院〉이란 시가 있어 부산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권에 들어와서는 〈김해전사야회 金海傳舍夜懷〉가 있고, 〈분성회고 盆城懷古〉가 있다.

가을 풀은 수로왕의 나라요
쇠잔한 언덕은 허후(許后)의 능이로다.
천년 전 흰 구름 그대로 있는데
지는 해 바라보며 누각에 기댄 중이여.

秋草金王國 殘丘許后陵
千年白雲在 落日倚樓僧

하룻밤만 지나면 부산포에 이른다. 부산포는 도일(渡日)의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마지막 중착지이다.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나라의 운명이 사명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이 시가 암시하는 ‘천년백운재 千年白雲在’는 금관국(金官國)의 화려한 한 때를 내 나라 회복에 비유했고, ‘낙일의루승 落日倚樓

僧’은 쓰러져 가는 조국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누대에 의지하여 생각하는 불쌍한 우국(憂國)의 화신 사명의 어깨는 무겁게만 느껴진다.

1604년 8월 2일 사명이 국명을 받고 대마도로 떠날 때까지는 약 1개월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때도 사명은 몇 년을 두고 자기가 쌓아 올린 부산진성, 감만포, 좌수영을 순회하며 점검했다. 그때 사명은 감만포에서 한 유자를 만나 화답하면서 남긴 시가 있다.

시제는 ‘재감만유일유 문일로소시무두 허사지 在戡蠻有一儒 問一路所是無頭 許謝之’라 했으니, 감만포에서 어떤 유생을 만나서 대화하던 중 노정을 물으니 알려주기에 거기에 답한다. ‘란 말이다.

七月一日離京師	7월 초하루 서울을 떠나는데
庚雨盆傾夜不止	여름비 동이로 퍼붓듯 밤까지 내리네.
蓬山禪侶亦有情	동래의 중들이 인정이 두터워
追算拈花第一旨	따라오며 염화(拈花)의 으뜸 뜻을 묻노라.
征衣更把問回期	가는 이 옷을 잡고 돌아올 기약 묻는 것을
榮馬無語長驅耳	말을 채찍하여 말없이 돌아왔다.
炎炎大火發中腸	더운 불길이 창자에서 일어나고
滿身流汗成滄瘡	온 몸에 땀이 흘러 부스럼이 되었다.
常譏葉公多飲氷	일찍이 섭공(葉公)의 얼음 마심을 희롱했더니
不知非指喻非指	비지(非指)로서 비지를 비유함을 몰랐다.
寸心恒懼聖恩深	촌심은 언제나 임금 은혜 깊음이 두려워
寤寐忽忽戒行李	자나깨나 충충하게 행상을 단속한다.
登程再魄到天涯	길 떠나 달이 두 번 기울어 하늘가에 이르니
首秋已過中秋至	초가을을 이미 지나 중추가 되었다.
回看直此五雲遙	돌이켜 북쪽을 바라보니 오운은 먼데

沓沓長安何處是 아득하다 장안 어느 곳이고.
三韓路斷海茫茫 삼한의 길 끊어지고 바다가 망망한데
大鵬擊水三千里 대붕은 물을 가르고 삼천리를 나는구나.

이 시가 감만포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사명이 승려의 신분이었으나 이미 승군도총섭(僧軍都摠攝)으로 군영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신분인 것을 헤아릴 수 있고, 그러한 위치에서 그저 지나쳐도 될 사람에게 이렇게 긴 시를 써서 줄 까닭이 없다. 이 시를 분석해 보면 사명의 깊은 애국심을 통찰할 수 있다. 봉산(蓬山)은 옛 동래골 이름이다. 이곳의 중들이라 했으니 승가단(僧伽團)에 속해 있는 스님인 것 같다. ‘동래의 중들이 인정이 두터워’에서 몇년전 부산진성을 쌓던 동료들인 것 같다. 도일(渡日)하는 사명을 위해 꽃을 꽃고 기약없는 전정(前程)을 묻는다. 어쩌면 이때 양반계급이라 하옵시고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며 태평성대가 다시 왔다.’고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는 유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 같다. 마지막 결론부분에 ‘삼한의 길 끊어지고 바다가 망망한데, 대붕은 물을 가르고 삼천리를 나는구나’ 이 대구(對句)는 반의적(反意的)으로 자신이 섬 나라로 강화를 하러 가지만 예측불허의 앞날을 걱정하며 그래도 자신을 ‘대붕’에 가탁하여 삼천리의 생민을 구원할 꿈을 그린다. 다시 죽도(竹島 : 지금의 김해 비행장 근처)에서 늙은 유자(儒子)를 만나 희롱을 당하고 나서 쓴 시를 소개하면

西州愛命任家喬 서주에서 태어난 임씨의 후예로
庭戶推零苟不容 집안이 영락하여 몸 둘 곳이 없었다.
無賴生成逃聖世 살 길이 막연하여 성세를 피해왔고
有懷愚拙臥雲松 어리석은 생각으로 구름과 솔에 누웠더라.
山河去佳七斤衲 산하에 살다가 가는 곳은 일곱 근 누더기인 것을

宇宙安危三尺節 우주의 안위는 석 자의 지팡이에 있는데
是我空門本分事 이것이 우리 공문의 본분의 일이거니
有何魔障走西東 무슨 마귀의 장애가 있어 동서로 달리는고.

시제에 ‘재죽도 유일유로기산승 부득정식이줄 사지 在竹島 儒一儒老譏山僧 不得停息以拙 謝之’이라 했다. 곧 ‘죽도에 있을 때 한 늙은 유생이 조롱하기를 “산승이 쉬지도 못하네”하므로 줄한 글로서 답하다’라 했으니 사명으로서의 그 유자를 원망하기 전에 그의 철없음을 나무라고 싶었던 것이다.

‘살길이 막연하여 성세(聖世)를 피해왔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구름과 술에 누웠더라’ 이것이 진솔한 산승의 마음이다. 이 유생은 사명의 불타는 애국심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유한다. “이 산승아! 조용한 절간에서 목탁이나 치고 있을 것이지 무엇을 바란다고 이 속세에서 그렇게 허둥대고 있는가” 했다. 기가 찰 일이다. 시제에 너무도 어두운 이 유자가 오히려 사명을 조롱하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국명을 받고 기약없이 대마도로 떠나려는 전날 전국의 시인묵객들에게 격려의 시가 답지(還至)했다. 당대 일국을 대표하는 천신(薦紳 : 지체가 높은 사람), 학사(學士), 대부(大夫)들이었다. 이항복(李恒福), 이덕형(李德馨), 이정귀(李廷龜), 이산해(李山海), 이수광(李睟光), 이안눌(李安訥), 이식(李植), 김세렴(金世濂), 이시발(李時發), 정두경(鄭斗卿), 권율(權慄), 조희일(趙希逸), 이우(李瑀), 곽삼길(郭三吉), 임진(任鎰), 손기양(孫起陽) 등이 그들이다. 이 가운데 이덕형 시를 감상해 보자.

紛紛蛙坎自爲多 분분히 개구리의 구덩이는 많다마는
誰識搏風九萬餘 뉘 있어 구만리의 바람을 치는 대붕의 뜻을 알랴.
道可適機心要細 가시는 길 마침 때 맞추었으니 마음 자세히 먹고

言能驚俗氣須和 하시는 말씀 능히 속세를 놀라게 하니
 此間有味無人會 여기에 맛있는 음식 있으나 모여 먹을 사람
 難處輸君與世誇 없으니
 記得老師廻棹日 이렇게 어려운 때 그대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盡傳殊城伏降魔 자랑이로다.
 淸心老樹 늙으신 스님이 배를 저어 돌아오는 날
 盡傳殊城伏降魔 부디 이역 만리 요귀들의 항복을 받아 돌아
 오리라.

피눈물을 머금고 쓰는 혈서 같다. 섬 오랑캐의 종주국 행세를 했던 이 나라가 그들에게 짓밟혀 외교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성직자 스님이 화평을 위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이 불행한 사태가 꼭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 나라의 지체 높은 벼슬아치들의 심회가 착잡하게 기술되어 있다.

1604년 8월 2일 사명은 대망을 안고 부산포를 떠나면서 두 편의 시를 지었다. <부산양중 유별대연장로 釜山洋中 留別大然長老>와 <부산대양 釜山大洋>이다. 앞의 시는 대연장로와 이별하면서 썼고, 또 하나는 부산항을 떠나면서 그 감회를 읊은 시이다.

秋海狂濤夜雨寒 가을 바다 미친 물결 밤비도 찬데
 長因別離生熟惱 오랜 이별이라 마음 아프다.
 祝融峯前野鶴還 축융봉 들학은 돌아오는데
 松雲獨在舟中老 송운은 외로이 배 안에서 늙구나.
 關山月冷鬢如雲 관산달은 싸늘하니 구렛나루 더욱 희고,
 世事難危惜暮年 세상살이 위태하니 해 저무는 것 애석하다.
 海外三山如可到 바다 밖 삼신산에 이를 수만 있다면
 此生行止問寥仙 이 인생 행지를 신선에게 물어볼 것.

장로라 하면 불가에서는 상좌(上座), 상수(上首), 기숙(耆宿), 노숙(老宿)이라 하여 최고의 존칭으로 쓰인다. 과연 대연 큰 스님은 어느 절에 주석(住錫)했을까? 이 정도의 신분이면 아무 절에서나 기숙하지 않는다. 이 시에 보이는 장로, 축융봉, 군선 등의 기록들을 상고하여 사명과의 관계를 정립하려 한다.

대연이 주석할 만한 절을 부산진성, 감만포, 좌수영을 중심으로 찾는다면 백산사 뿐이다. 아마도 대연은 조실(祖室)의 위치에 있었던 스님 같고, 축융봉이 불가에 있어서는 화덕진군(火德眞君)이라 하여 남쪽 바다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으로 쓰인다. 고려시대 이후 산명에는 불·보살의 수적지(垂迹地 :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본지(本地)에서 내려와서 화신을 출현하는 곳)로 흔히 축융봉이라 많이 썼는데 여기에 군선(群仙)과 대조해 본다면 백산을 일러 큰산은 대백, 작은 산은 소백이라 했다. 이때 축융봉은 백산의 상상봉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사명은 오륙도(五六島)를 떠나면서 바다 위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 그래서 백산을 바라보며 부산포의 부상(扶桑 : 동해바다 속에 있다고 하는 신성한 나무)인 해운대(海雲臺)를 생각한다. 해운대는 예로 삼신산(三神山)이 있는 곳으로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을 일러 신선이라 했다. 여기서 말하는 군선은 바로 고운의 고장을 말한 것이다. 이 시의 ‘해외삼산여가도 海外三山如可到’가 더욱 그것을 뒷받침 한다.

一葦橫驅萬里波	한 조각 나무배로 만리 물결에 모니
彈丸孤島接天賒	탄환만한 외로운 섬이 하늘에 닿이도다.
河源應是天西此	황하의 근원은 응당 이 하늘의 서북쪽인데
何事東浮博望槎	무슨 일로 하여 동쪽으로 배를 띄우나.
邇來鬢逐逐年華	근래는 수염이 세기만 하여 희어지는데
又泛南溟八月槎	또 남쪽 바다에 8월 뗏목을 띄운다.

曲臂折腰非我意 팔을 굽히고 허리를 꺾는 것 내 본뜻 아닌데
奈我低首入讐家 내가 어찌 머리를 숙여 원수의 집에 들어가나.

이 시는 부산 대양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쓴다고 했다. 참으로 처참한 광경이다. 늙은 성직자가 기약도 없는 막연한 일을 ‘망치려 가는 것이 아닌가.’하고 마음 조이며 한탄하는 심회를 가슴 아프게 느낀다. ‘곡비절요비아의 曲臂折腰非我意’는 굴욕에 가까운 표현이다. 이 슬픔을 그 시간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이다. 사명이 부산포 중심의 활동은 짧은 시간이었으나, 가장 보람차고 뜻있는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된다.

1605년 4월 그토록 대망했던 사명이 국명을 무사히 수행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위대하다. 임진왜란 때 잡혀간 인질 3,000여명도 함께 귀환했다. 부산포는 환희에 찼다. 온 국가가 소용돌이쳤다. 같이 동행했던 삼준상인(三俊上人), 법원상인(法源上人), 혜구(惠球), 혜은(惠聞), 준사(俊師) 스님들도 무사히 돌아왔다. 기쁘고 장한 일이다.

한음 이덕형은 이 스님들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각자의 사찰로 돌아갈 때 각각 시를 지어 위로하였다. 그 중 삼준상인에게 준시를 감상해 보자.

踏遍名山意未閑 명산을 널리 돌아다녀도 뜻을 펴지 못하여
滄溟還作酒杯看 푸른 바다에 술잔을 만들어 기울이고 왔노라.
胸中但要天光發 가슴속에 천광을 만들려 하니
一片乾坤到處寬 한 조각 하늘땅 이르는 곳마다 너그러운 뿐이다.

삼준상인은 송운의 문도이다. ‘지난번 사명과 더불어 일본에 갔다가 돌아와서 오대산 예전에 살던 절로 돌아간다기에 시 한수를 지어 준다.’

이렇게 사명과 한음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두사람 사이를 잇게 한 것은 모름지기 임진왜란이라는 특수사정이다. 이 절대절명의 계기가 아니었던들 어찌 불가와 유가가 이렇게 친교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는 종교를 초월하여 나라와 겨레를 위한 생명의 동지로서 그의 문도들까지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방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방시대란 말은 한 지방의 독자적 행정의 특수성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역사성이다. 우리 부산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임진왜란이다. 임진왜란은 우리 부산의 역사를 특수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 특수한 역사가 향토사인데 이 향토사에 묻혀 있는 사실의 발굴은 지방시대를 살아가는 지역민이 해야할 중요한 과제가운데 하나이다. 그 가운데 어떤 것보다 먼저 기록해야 할 일이 사명에 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명대사와 임진왜란의 관계는 우리 부산사에 있어서 특수조건에 해당된다. 사명대사가 임진왜란에 끼친 업적은 대단하다. 그러므로 부산 지방의 활동을 통해서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학문적으로 재정립하여 부산정신의 보존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는 전후 3차에 걸쳐서 부산에 머물렀다.

첫번째는 1594년 서생포에 주둔했던 가등청정의 영중을 삼차 정탐할 때이다. 이때는 해인사에서 군비를 정비하고 의령에서 군량미를 비축할 때라서 서생으로 가는 길에 울주를 통해서 갔던 것 같다. 그러나 정탐을 마치고서는 부영(釜營)과의 사무연락 때문에 울주를 통하지 않고 동해안을 통해 기장, 송정, 해운대 길을 통한 것 같다.

부영에서 서생포까지는 하룻길이다. 말을 타면 서생포에서 좌수영까지는 한나절이면 될 것 같다. 그때 이 근처에 스님이 묵을 큰 절로는 백산사가 있어 이곳에서 주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스님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자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명의 부산포에서 유숙은 반드시 승당과 백산사이였을 것으로 믿는다.

두번째는 1601년 자성대(부산진 지성)를 수축할 때이다. 이 때는 이덕형과의 관계가 깊었고, 세번째는 1604년 왕명을 받들고 일본으로 갈 때이다. 이때는 부산포에 있었던 죽도와 감만포의 두 유생을 만나 수작했다. 더욱이 도일 직전에는 대연장로(大然長老)와의 뜨거운 이별이 있어 문장으로 화답했다. 이 사실이 우리 부산 향토사에 있어서는 특기할 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헌상의 기록을 찾기는 어려우나 사명이 부산에 머무를 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1598년 노계 박인로가 태평사를 좌수영에서 지을 때도 성윤문, 박인로와는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것으로 믿는다. 그것은 박인로와 이덕형과의 관계로 미루어 심증이 간다. 그 후 1605년에 와서 노계는 다시 부산포에서 선상탄(船上嘆)을 지었는데 이 해가 사명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해이다. 박인로와 이덕형은 동갑이고, 사명은 14년 선배가 된다. 이덕형이 사명을 위해 ‘유송운수축부성유감(遺松雲修築釜城有感)’, ‘위축성제승(慰築城諸僧)’ 시를 짓고, 또 사명이 일본에서 돌아와서는 그 때 함께 일본에 갔던 스님들이 각자의 절로 돌아갈 때에도 일일이 시를 지어 송별한 것을 고려한다면, 애국지사들의 동병상련(同病相憐)이 서로의 인간관계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사명이 가신 지 390년, 이제 우리는 부산사(釜山史)에서 사명의 업적을 재조명하려 한다. 과연 그가 남긴 업적은 부산의 향토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의 후예로서 그의 각령(覺靈)에 머리 조아리며 우리 부산사에 그의 공적을 영원히 기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금 부산의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는 유정대사충의비(惟政大師忠義碑)를 번역하여 붙여 놓는다.

오호라, 임진년의 왜변(倭變)을 말로 다 하겠는가! 송운(松雲)의 명성은 오랜 수록 더욱 빛나리라. 위대한 즈음에 창의(倡義)함은 마침내 충효(忠孝)에 근원을 두었음이요, 자비의 가르침에 도를 깨쳤음은 평소 경사(經史)에 힘을 얻었음이로다. 세 번 범의 굴에 들어가서 적장의 머리를 보배로 여겨 구하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멀리 고래등 같은 파도를 건너가 고혼(孤魂)을 두루 제도하였다. 두 나라의 외교를 맺어서 수천년 약조를 미리 정하였고, 온 세상이 모두 의지하여 억조창생(億兆蒼生)이 번식하게 되었네. 추증(追贈)의 절차를 받들어 이미 충애의 영광을 입었지만, 상소문을 올려 물리나기를 간청하니 부귀에도 뜻이 바뀌지 않았음이로다. 가야 산에서는 왕이 내리신 약을 사양하고 대화(大化)에 장차 순응할 것에 상서로운 광채 하늘을 밝혔고, 밀양에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성대한 예식 펼치는 곳에 풍성(風聲)을 영구히 수립하였도다. 네 진(鎭)에 성을 쌓으면서 이 곳 성을 완공하였고, 십년 애쓴 공적 이곳에서 가장 드러났네. 세월이 오래되어 지난 자취 아득해지고, 예전에 미처 서두르지 못하다가 이 빗돌에다 사라지지 않도록 새기노라. 당당한 충의(忠義)는 유불(儒佛)에 함께 광채나니, 아아 후손들이여 이를 보고 본받을 지어다.

諡號 慈通弘濟 品階 賈宜大夫 號 泗溟鍾峰 松雲

嗚呼龍蛇之變 可勝言哉

卓爾松雲之名 久益彰也

倡義危難之際 竟推源於孝忠

覺道慈悲之教 素得力於經史

三入虎穴 寶首願賅

遠涉鯨波 孤魂普濟

交隣兩國 豫定幾千年之約條
雨露一天 咸賴億萬生之繁息
追承闕鼻 □已擬於寵榮
抗章乞骸 志不易於富貴
謝宣藥於伽倻 大化將順 祥光燭天
創祠宇於密州 盛典攸暨 風聲永樹
四鎮築役 旣完此城
十載勳勞 最著茲土
歲月滋久 往迹蒼茫
迺昔未遑 勒此不泯
堂堂忠義 儒釋同光
嗟嗟後昆 鑑茲爲則 ■ 동국대 객원교수 김무조

10. 박인로(朴仁老)



노개 가사비

부산 수영구 민락동

노계(蘆溪)는 1561년(명종 16) 6월 12일에 경북 영천시(永川市) 북안면(北安面) 도천리(道川里)에서 태어났다. 공의 성은 박(朴)이고 이름은 인로(仁老)이다. 자(字)는 덕옹(德翁), 호(號)는 노계(蘆溪)이다. 신라 시조왕 혁거세왕(赫居世王)이 공의 비조(鼻祖)이며

경명왕(景明王)의 왕자 밀성대군(密城大君) 언침(彦忱)이 밀양을 관향으로 삼는 조상이 된다.

밀양 박씨 문중은 고려조에 와서 작록(爵祿)과 공훈(功勳)이 대대로 이어졌으며, 중조(中祖)로 모신 언부(彦孚)는 고려 문종(文宗) 때 급제하여 최충(崔冲)과 더불어 태사중서령 문하시중 도랑평의사(太師中書令 門下侍中 都郎評議事)를 지냈다. 9대조 진록(晋祿)은 호가 국간(菊澗)으로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함께 문과에 급제하여 보문각 대제학(寶文閣 大提學)에 올랐으며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하고는 도의지교(道義之交)가 되었다.

조선조에 와서는 고조(高祖) 영손(英孫)은 성종(成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弘文館) 교리(敎理)·수찬(修撰)·장악원정(掌樂院正)의 벼슬에 오르고,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과 옥서(玉署)를 맡았으며 그와도 도교지교(道教之交)로 지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반대파에 몰리어 외직인 풍천군수(豊川郡守)로 좌천되어 갔는데 그때 고을을 잘 다스려 어사(御史)가 청백리(淸白吏)로 천거하여 임금이 청풍당(淸風堂)이란 호(號)를 내렸다.

증조부(曾祖父) 정(挺)은 호가 승선헌(承先軒)이고 집경전 참봉(參奉)이며 조부 윤청(允淸)은 호가知足당(知足堂)이고 의성교수(義城敎授)를 지냈고, 아버지 석(碩)은 승의부위(承議副衛)의 벼슬에 올랐다.

노계는 13세 되던 해에 대승음(戴勝吟)이란 시를 지었는데 그것의 평판이 높아 세인들을 놀라게 하고부터는 차차 문명을 떨치게 되었다. 32세(1592) 때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어 시골집에서 그 묘책을 찾고 있을 때 같은 고장 출신인 의병장 정세아(鄭世雅)와 뜻이 맞아 별시위(別侍衛)가 되어 많은 공적을 남기게 되었다.

이 활동이 인정되어 38세 때에는 경상좌도 군절도사(慶尙左道 水軍節度使) 성윤문(成允文)에 발탁되어 우리 고장 좌수영에 부임하여 혁혁한 공적을 쌓았다. 그때 지어진 노래가 태평사(太平詞)이다. 39세 때에는 무과에 급제하고 곧 수문장(守門將), 선전관(宣傳官)이 되더니 거제도(巨濟島) 조라포(助羅浦) 만호(萬戶)가 되어 고을 사람들로부터 청백리로 칭송이 자자했다. 이 고장에는 지금도 그의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가 그대로 남아 있다.

41세 때에는 임진왜란으로 인연을 깊이 맺은 경상도 체찰사(體察使)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과 교우하여 유명한 조홍시가(早紅柿歌)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난 지 몇 해가 지나서도 왜병은 바다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생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때 노계는 통주사(統舟師)가 되어 다시 경상좌수영에 부임하여 전후 처리 작전을 훌륭히 수행했다. 이때 지어진 노래가 선상탄(船上嘆)이다.

51세 때에는 모든 벼슬을 그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 선현들의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작품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주 안강(安康)에 있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옥산서원(玉山書院)을 배알하고, 한강(漢岡) 정구(鄭述)와 함께 울산(蔚山) 초정(椒井)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67세가 되던 해에 다시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났다. 고령이 되었으나 나라 안의 사정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 이명(李溟)에 의해서 용양위 부호군(龍驤衛 副護軍)에 발탁되어 지방행정에 크게 공헌하였다. 76세가 되어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라 생각하고 경주 산내(山內)에 있는 노계곡(蘆溪谷)으로 은거하여 작품활동에 몰두했다.

77세 때에는 경북 포항시 죽장면(竹長面)에 있는 입암(立巖)에서 성리학(性理學)에 심취해 있는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서실을 방문하고 그와 학문에 대한 문답을 나누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해는 1642년(인조 20) 향년 82세였는데 그의 생애는 전쟁과 문학으로 점철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가 경상좌수영에서 남긴 두 편의 가사 태평사와 선상탄은 우리나라 전근대 전쟁문학사의 금자탑이라 할 것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가사문학의 대가 세 사람을 꼽는다면 노계와 함께 송강(松江) 정철(鄭澈) 그리고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가 될 것이다. 문학은 사상의 반영이다. 노계의 사상은 한 마디로 안빈낙도(安貧樂道)와 이웃사랑일 것이다.

일찍이 정규양(鄭葵陽)은 노계의 행장에서

그의 성품이 염결(廉潔)하기가 빙옥(氷玉)같고 초개(草芥)라도 의가 아니면 취하지 않았다. 어느 때 그의 논밭을 침경(侵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양도해 주기도 했다. 어릴 때에는 귀중한 것을 갖고 길거리에 놀다가 도적을 맞은 적이 있었으나 공은 태연히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이웃에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볼 수가 없어 집의 것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젊은 시절부터 그의 사상이 청빈과 인애에 있었으니 자연 문학의 주제도 자연의 관조를 통해 인생을 탐구하는 것이 많았다. 한 때

에는 구인산(九仞山)에 들어가 산의 정기를 통해 성훈(聖訓)을 얻고 사람됨의 근본이 인의(仁義)에 있음을 깨달아 “인은 안택(安宅)의 본이며 의는 정로(正路)의 길이다”라고 했다.

그의 작품은 한시(漢詩)가 대승음(戴勝吟)을 비롯하여 110수, 시조는 조홍시가(早紅柿歌)를 비롯하여 60수, 가사는 모두 7편이다.

그의 가사를 좌수영에서 지어진 태평사와 선상탄을 제외하고 시대순으로 적어 보면

①사제곡(莎堤曲) : 임진왜란 때 혈맹(血盟)으로 사귄 한음 이덕형의 고향인 광주(廣州) 용진강(龍津江)을 찾아 지은 것인데 51세 때 작품이다.

②누항사(陋巷詞) : 이덕형과의 인연 때문에 써진 것으로 전해진다. 어느 날 한음이 살아가는 형편을 묻길래 화답하는 형식으로 쓴 것인데 가장 수작으로 꼽힌다. 이것도 51세 때 작품이다.

③독락당(獨樂堂) : 경주 회재의 옥산서원을 참배하고 지어진 것이다. 선현의 일월같은 도맥(道脈)과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남기는 교훈을 읊은 것이다. 작품의 연대는 53세 전후라고 생각된다.

④영남가(嶺南歌) : 이 노래는 영남(嶺南) 안찰사(按察使)로 내려 온 이명(李溟) - 이근원(李謹元)이라 한 것은 문집 편찬 때 오류 - 의 치적(治績)을 요순(堯舜)시대에 빗대어 노래했다. 이 작품은 공이 71세 때 지은 것이다.

⑤노계가(蘆溪歌) : 경주 산내에 있는 노계곡에 은둔하였을 때 지은 것이다. 내용은 노계골짜기의 청산유수와 청풍명월이 이 모두가 나라의 것이라 생각하고 오로지 성주만세(聖主萬歲)와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기원하는 것이다. 공이 76세 때 작품이다.

이제 동래부 좌수영에서 창작된 태평사와 선상탄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 태평사는 공이 38세 되던 1598년(선조31)에 경상좌도병사(慶尙左道兵使) 성윤문(成允文) 휘하(麾下)에 있을 때 왜군이 야음을 틔타 도망쳤다. 이것을 지켜보던 성윤문이 이곳에 10일 동안 머물다가 본영으로 돌아갔는데 병사들의 노고가 너무도 극심하여 노계로 하여금 태평사를 짓게 하고선 위로했다.

태평사(太平詞)

나라히 偏小(편소)하야 海東(해동)에 버려셔도
箕子遺風(기자유풍)이 古今(고금)업시 淳厚(순후)하야
二百年來(이백년내)에 禮義(예의)을 崇尚(숭상)하니
衣冠文物(의관문물)이 漢唐宋(한당송)이 되야찌니

① 편소 : 치우치고 작음. ② 기자유풍 : 기자가 다스려 끼친 풍속. ③ 의관문물 : 한 나라의 모든 문화. ④ 한·당·송 : 중국 역대에 문화가 가장 발전한 나라가 한·당·송이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다.

나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작다하더라도 기자유풍에 힘입어 조선조시대의 우리의 문화도 한·당·송에 버금가는 훌륭한 나라이다. 이 부분은 서사(序詞)에 해당된다.

島夷百萬(도이백만)이 一朝(일조)에 衝突(충돌)하야
億兆警魂(억조경혼)이 칼빛출 조차나니
平原(평원)에 사헌썩는 피두곤 노파있고
雄都巨邑(웅도거읍)은 豺狐窟(시호굴)이 되얏거늘

淒涼玉輦(치량옥련)이 蜀中(촉중)으로 비와드니
 烟塵(연진)이 아득하야 一色(일색)이 열워져니

① 도이백만 : 수많은 섬나라의 오랑캐. ② 억조경혼 : 많은 사람의 놀란 혼백. ③ 시호굴 : 승냥이나 여우가 사는 굴. ④ 치량옥련 : 쓸쓸하고 슬픈 임금의 행차. ⑤ 촉중 : 옛날 당나라 때 안록산란을 만나 현종이 촉나라로 피난한 것에 비유. ⑥ 연진 : 연기와 먼지.

섬오랑캐가 예기치 않게 쳐들어와서 삼천리 강토가 시호굴이 되었도다. 임금은 의주까지 몽진가고, 백성은 수없이 모두 죽어 시체가 피처럼 쌓여 있음을 통탄하고 있다.

聖天子(성천자) 神武(신무)하야 一怒(일노)를 크게내야
 平壤羣兇(평양군흉)을 一劒下(일검하)의 다버히고
 風驅南下(풍구남하)하야 海口(해구)에 더져두고
 窮寇(궁구)을 勿迫(물박)하야 몇몇히를 디내연고
 江左一帶(강좌일대) 孤雲(고운)갓흔 우리물이
 偶然時來(우연시래)에 武侯龍(무후룡)을 幸(행)혀만나
 五德(오덕)이 불근아래 獵狗(엽구)몸이 되야써가
 英雄仁勇(영웅인용)을 喉舌(후설)에 셋겨시니(中略)

① 신무 : 신과 같은 무력. ② 평양군흉 : 평양에 머물고 있던 왜군. ③ 풍구남하 : 바람처럼 남쪽으로 몰아내는 것. ④ 궁구 : 궁지에 몰린 도적 떼. ⑤ 무후룡 : 제갈무후(諸葛武侯)란 말인데 여기서는 명장 이여송(李如松)을 말한다. ⑥ 오덕장군이 갓춘 다섯가지 덕 <智・信・仁・勇・嚴> ⑦ 후설 : 목구멍과 혀, 여기에서는 외교술을 말한다.

거룩하신 중국 천자가 신과 같은 무력으로 평양에 머물고 있는 왜군을 바람처럼 좌수영 앞바다까지 쓸어 붙이고 몇 해 동안 그대로 지내왔는데 명장 이어송이 종군하여 영웅들과 재상을 잘 만나 평정의 기미가 마련되었도다.

投兵息戈(투병식과) ①고 細柳營(세류영) 돌아들제
太平簫(태평소) 노푼솔의에 鼓角(고각)이 섰겨시니
수궁(水宮)깊은 곳의 魚龍(어룡)이 다우는듯
龍旗偃蹇(용기언건) ②야 西風(서풍)에 빗겨시니
五色祥雲(오색상운) 一片(일편) 半空(반공)에 썩러딘듯
太平模樣(태평모양)이 더욱 ③나 반가올사

- ① 투병식과 : 병기를 던지고 창을 쉬게 하다. ② 세류영 : 가는 벼들가지가 늘어진 병영. ③ 태평소 : 태평을 알리는 통소소리. ④ 고각 : 북과 피리. ⑤ 용기언건 : 천자의 깃발이 하늘 높이 휘날리는 것.

이제 태평성대가 다가옴을 암시한다. 병기를 던져두고 창칼도 쉬게 하니 수궁의 어룡들도 즐겨 반긴다. 천자의 군기가 승리를 알리려고 하늘 높이 휘날리니 상스러운 오색구름도 공중에 떠 있구나.

華山(화산)이 어디오 이 말을 보내고져
天山(천산)이 어디오 이 활을 노피거자
이제야 ④호을일이 忠孝一事(충효일사) 썩이로다.
營中(영중)에 일이 업서 긴 줄드러 누어시니
뜻노라 이날이 어너적고
義皇盛時(희황성시)를 다시 본가 너기로다.

天無淫雨(천무음우)하니 白日(백일)일 더욱 불다.
 白日(백일)이 보그니 萬方(만방)에 비최노라.

① 화산 : 중국 오악의 하나. 주 무왕이 은을 멸망시키고 ‘전쟁에 쓴 말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 하여 화산에 방목했다. ② 천산 : 중국 신강성에 있는 산. 일명 운산(雲山). ③ 희황성시 : 북희씨의 태평성대. ④ 천무음우 : 하늘에서 굿은 비는 내리지 않는다.

임진왜란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제 곧 태평성대가 찾아 올 것이다. 그러면 남은 것은 충효를 하는 일 뿐이다. 하늘에도 굿은 비 내리지 않으니 어찌 임금의 덕이 아니겠는가. 바로 <태평사>의 의미가 이 속에 잠재되어 있다.

處處溝壑(처처구학)에 호터잇던 老羸(노리)드리
 東風新鷺(동풍신연)가치 舊巢(구소)을 츠차오니
 首丘初心(수구초심)에 뉘 아니 반겨 흐리
 爰居爰處(원거원처)에 즐거움이 엇더흐노
 子遺生靈(혈유생령)들아 聖恩(성은)인 줄 아느손다.
 聖恩(성은)이 기픈아리 五倫(오륜)을 발켜스라.
 教訓生聚(교훈생취)라 절로 아니 닐어가랴.

① 처처구학 : 곳곳에 있는 구렁텅이. ② 노리 : 늙은 사람. 파리한 사람. ③ 동풍신연 : 봄바람에 새로이 날아든 제비. ④ 구소 : 옛집. ⑤ 수구초심 : 여우도 죽을 때는 제가 났던 언덕에 머리를 향하게 하여 죽는다. ⑥ 원거원처 : 이리저리 옮겨 산다. ⑦ 혈유생령 : 외롭게 살아남은 백성. ⑧ 교훈생취 : 군생(群生)을 가르쳐 다스린다.

전쟁은 슬픈 것이다. 아니 처참한 것이다. 곳곳에 깔려 있는 피난민들은 전쟁이 끝나자 봄바람에 제비가 날아들 듯 모두가 옛 집을 찾아든다. 그것은 오로지 임금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라. 모름지기 이것이 오류를 지켜 나가는 군생의 참 모습이 아닌가. 오로지 참된 삶을 지키며 살아 갈 것이다.

天運循環(천운순환)을 아옵께다 하느님아
佑我邦國(우아방국) 萬世無疆(만세무강) 누리소서
唐虞天地(당우천지)에 三代日月(삼대일월)비최소서
於萬斯年(어만사년)에 兵革(병혁)을 그치소서
耕田鑿井(경전착정)에 擊壤歌(격양가)를 불니소서
우리도 聖主(성주)를 띄우고 同樂太平(동락태평) 喜오리라.

① 천운순환 : 하늘의 운이 돌아옴. ② 우아방국 : 우리나라를 돕다. ③ 당우 : 요순시대와 같이 태평성대. ④ 삼대일월 : 중국의 태평시대, 곧 夏·殷·周 때. ⑤ 어만사년 : 오랜 세월. ⑥ 경전착정 : 밭 갈고 우물 파서 편안하게 살다. ⑦ 격양가 : 태평시대에 부르던 노래. ⑧ 동락태평 : 백성들이 다함께 즐긴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 이르렀다. 전쟁이 끝을 맺으니 우리도 옛날 중국의 태평성대처럼 백성들이 격양가를 길거리에서 부르며 잘 살 때가 왔구나. 이 좋은 세월을 임금님 띄시옵고 잘 살아 볼 것을 바라고 바란다.

노제는 군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노래로서 백성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때에도 좌수영은 아직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지만 전쟁에 신물이 나는 생민들에게 이 노래는 환희의 찬가가 되었다.

다음으로는 선상탄(船上嘆)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이 노래는 1605년(선조 38) 공의 45세 때 작품이다. 태평사를 짓고 향리로

돌아가서 쉬고 있는데 다시 통주사(統舟師)에 임명되었다. 그때도 좌수영은 조용하지가 못했다.



오륙도

부산 남구 용호동

선상탄

늙고 病(병)든 몸을 舟師(주사)로 보니실시
 乙巳三夏(을사삼하)에 鎭東營(진동영) 느려오니
 關防重地(관방중지)에 病(병)이 깊다 안자실랴
 一長劒(일장검) 비기츠고 兵船(병선)에 구테올나
 勵氣瞋目(여기진목)하야 對馬島(대마도)를 구어보니
 ㅼ람조친 黃雲(황운)은 遠近(원근)에 사혀잇고
 아득한 滄波(창파)는 긴하늘과 혼빛칠쇠

- ① 주사 : 수군. ② 을사삼하 : 1605년(선조 38) 여름 석달.
 ③ 진동영 : 부산진 병영. ④ 관방중지 : 중요한 요새지대.
 ⑤ 여기진목 : 기운을 내고 눈을 부릅뜬.

옛 사람으로 45세면 벌써 늙은 나이였다. 그래도 나라의 부름이 다시 있어 통주사가 되어 부산진에 부임하여 대주도가 바라보이는 좌수영에서 적과 대치하여 있는 모습을 그렸다. 서사(序詞)라서 도입(導入)부분이 생략법으로 잘 처리되었다.

船上(선상)을 徘徊(배회)하며 古今(고금)을 思憶(사억)하고
어리미친 懷抱(회포)에 軒轅氏(헌원씨)를 애다노라
大洋(대양)이 茫茫(망망)해야 天地(천지)에 둘러시니
진실로 비아니면 風波(풍파) 萬里(만리)밖의 어니 四夷(사이)
엿볼넉고
무슴일 何려(하야) 비뭇기를 비뭇하고
萬世千秋(만세천추) ㄴ 없슨 큰 弊(폐)되야
普天下(보천하)에 萬民怨(만민원) 길우는다. (中略)

① 배회 : 왔다갔다 거닐다. ② 헌원 : 황제, 헌원씨가 배를 만
들다. ③ 사이 : 사방의 오랑캐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
(南蠻)·북적(北狄)

만약 중국의 황제가 배만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배위를 거닐면서 원망 섞인 뜻으로 되뇌인다. 정말 배만 없다고 가정하면 오대양 넓은 바다를 어느 오랑캐가 침범할 수 있겠는가.

慷慨(강개)계운 壯氣(장기)는 老當益壯(노당익장) 하다마는
도고마는 이몸이 病中(병중)에 드러시니
雪憤伸冤(설분신원)이 어려울 듯 何건마는
그러나 死諸葛(사제갈) 生仲達(생중달)을 멀리쫓고
발업슨 孫臏(손빈)도 龐涓(방연)을 잡아거든

흐믓하며 이몸을 手足(수족)이 ㄱ자잇고 命脈(명맥)이 이어지니
鼠竊狗偷(서절구투)를 저그나 저홀소냐.

① 강개 : 일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② 노당익장 : 늙어 갈수록 더욱 씩씩해지는 것. ③ 설분신원 : 분함을 씻고 원통함을 펴다. ④ 사제갈 : 죽은 제갈공명. ⑤ 생중달 : 살아 있는 중달이. ⑥ 손빈 : 병법가 손자. ⑦ 방연 : 중국 위나라 장수. 손자에게 패하다. ⑧ 서절구투 : 쥐와 개새끼 같은 도적 떼, 왜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늙어 갈수록 더하구나. 죽은 제갈량은 살아 있는 중달도 바깥으로 내쫓고, 발 없는 손자도 방연을 잡았다는데 하물며 이 몸은 성한 몸으로 어찌 왜를 무찌르지 못하겠는가.

飛船(비선)에 돌려드리 先鋒(선봉)을 거치면
九十月(구시월) 霜風(상풍)에 落葉(낙엽)가치 헤치리라.
七縱七禽(칠종칠금)을 우린들 못홀것가.
蠡彼島夷(준피도이)들아 수이 乞降(걸항) 해야스라.
降者不殺(항자불살)이니 너를 구티 殲滅(섬멸)하라.
吾王聖德(오왕성덕)이 欲并生(욕병생) 하시니라.
太平天下(태평천하) 堯舜君民(요순군민)되야이서
日月光華(일월광화)는 朝復朝(조복조) 하얏거든
戰船(전선)트딘 우리 몸도 漁舟(어주)에 唱晚(창만) 하고
秋月春風(추월춘풍)에 눕히 베고 누어이서
聖代(성대) 海不揚波(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하노라.

① 비선 : 나는 듯이 빨리 가는 배. ② 칠종칠금 : 일곱 번 놓아주었다가 일곱 번 다시 잡다. 제갈량이 맹획(孟獲)을 잡을 때의 고사. ③ 준피도이 : 꾸물대는 섬 오랑캐. ④ 항자불살 : 항복하

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 ⑤ 옥병생 : 함께 살기를 바라다. ⑥ 일월광화 : 해와 달의 밝은 빛, 선왕의 덕. ⑦ 조복조 : 아침에 또 다시 이튿날 아침. ⑧ 창만 : 고기잡이 노래를 부르며 늦게 돌아오다. ⑨ 해불양파 : 바다의 풍파가 일어나지 않음.

마지막 단락이다. 왜의 전선이 나는 듯이 바다 위를 누빈다. 그래도 그 배에 달려들어 적군의 목을 구·시월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목을 자른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정유재란이 끝나고도 몇 년이 지났어도 아직 좌수영에서 철수하지 않고 전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될 수록 이면 설득해서 태평성대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 임금님의 성덕이 높으시사 지금까지 전선을 타던 우리가 이제는 어선으로 갈아타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가을달 밝고, 따뜻한 봄바람 불 때 높이 배게 배고, 편안히 누워 변방이 조용하기만을 바란다’라고 읊고 있다.

우리 부산시민은 임진왜란의 역사적 현장에 살고 있다. 그러나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지는 못했다. 노계 박인로가 410년 전에 오륙도 앞바다에서 이러한 노래를 지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역사의 진실은 알려고 하는 자에게만 발굴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역사의 뒤편길에 묻혀버린 조상들의 유혼을 찾아 그 공적을 찬양하며 반성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부산에서 20년간이나 향토정신발굴에 공헌하고 있는 토향회에서는 2002년 4월 6일에 수영구 민락동 민락공원 안에 노계 박공 인로 가사비(蘆溪朴公仁老歌辭碑)를 세워 역사의 증표로 삼고 있다. ■ 동국대 객원교수 김무조

11. 이 선(李 選)

정철(鄭澈)과 송강가사(松江歌辭)

우리겨레의 노래인 가요(歌謠)는 신라시대는 향가(鄉歌)로, 고려 시대는 고려가요와 경기체가(景幾體歌)로, 조선시대는 가사(歌辭)와 단가(短歌)가 형태면의 주류를 이루면서 우리의 정서 감정을 노래했다. 이 가요의 시대적 변천은 시가(詩歌)란 이름으로 국문학의 변천과정이자 흐름을 이루었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 수사방법이 우리 민족의 호흡에 자연스레 일치한 가사와 간결·소박한 단가인 시조가 섬세하고도 유려한 언어로 우리의 성정에 맞게 창작된 작품은 정철(鄭澈)의 여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정철(1536~1593)은 조선시대의 문신·시인. 자는 계함(季涵), 호 송강(松江), 1561년 진사시(進士試)에, 다음해 별시 문과에 각각 장원으로 급제하고 함경도 암행어사를 지내고 사간(司諫), 집의(執義), 승지(承旨), 강원도·전라도·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냈다.

그는 지방장관으로서 보다는 한 사람의 시인으로 천재적 재질을 나타낸 작품을 썼다고 하면서 그의 작품 관동별곡(關東別曲)은 금강산을 비롯한 관동팔경을 두루 유람하면서 산수(山水)를 노래하고 고사(故事), 풍속까지 삼입하였고 훈민가(訓民歌) 16수는 백성을 교화함에 있어 포고문이나 유시문을 대신하여 시조의 형식을 빌어 지은 것이고 1584년 고향에 돌아가서는 사미인곡(思美人曲), 속사미인곡(續思美人曲), 성산별곡(星山別曲) 등 수많은 가사와 단가를 지어 가사문학의 대가로서 시조의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와 더불어 시가사상(詩歌史上) 쌍벽으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했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라 적고 있다.

세계명저대사전(1992년 고려출판사)에는 송강가사를 평가(評價)하기를 이들 송강작품에 대해 역대 학자들은 많은 찬사를 보냈다. 《동국악보 東國樂譜》에서는 관동별곡을 악보의 절조라 극찬하고 또 사미인곡을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출사표(出師表)에 비겼고, 순오지(旬五志)에서는 송강가사들이 신기한 조어(造語)의 구사와 실물표현의 절묘함을 칭찬했고,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는 자고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문장이라 하면서 아동(我東)의 이소(離騷)라 표현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송강 정철의 송강가사가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기는 목판으로 된 세 종류의 이판(異版)이 있다. 그 하나는 단 한권밖에 없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이선본 李選本》이고 둘째는 《성주본 星州本》이고 셋째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관서본 關西本》이다.

이 가운데의 이선본은 이선(李選)이 찬록(撰錄)한 것이라 하여 방중현(方鍾鉉)이 이선본으로 이름한 것인데 김사엽(金思燁)은 이선본을 황주본(黃州本)으로 고증하고 있다.

목판본으로 간행된 이선본은 단권(單券) 26장의 완책(完冊)으로 책 끝에 쓴 발문(跋文)에 경오원월상한 완산후인이선 서우차성지유란현(庚午元月上澣 完山後人李選 善于車城之幽蘭軒)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 연기(年記)의 경오는 1690년에 해당된다. 완산은 지금의 전주(全州)로서 완산 이씨의 후손인 이선이 차성의 유란현에서 썼다고 쓴 곳을 밝히고 있다. 차성은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이나 《기장현지 機張縣志》들이 기장현의 군명(郡名)을 밝히는 자리이면 의례 나타나는 甲火良谷(갑화량곡)과 車城(차성)의 그 차성으로 기장의 옛 이름이다.

그러니 송강가사(松江歌辭) 이선본은 전주 이씨의 후손인 이선이 기장의 유란현에서 1690년 정월 상순에 쓴 것이 된다. 쓴 날짜가 발문 맨 끝에 있는 것으로 보면 쓰기를 마친 날짜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선은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낸 사람으로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 : 숙종 15년 장희빈 소생에 대한 원자 정호에 관한 분류로 송시열 등 서인이 이를 지지한 남인에 의해 축출당한 일) 으로 이선이 기장으로 유배된 사실은 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는데 귀양 온 기장의 유란현에서 송강가사를 정리 찬록(纂錄)한 것이다.

이선(李選)이 찬집(纂輯)한 송강가사

이선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앞서 말한 《한국인명대사전》과 《국학대백과사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선(1632~1692)은 문신으로 자는 택지(擇之), 호는 지호(芝湖) 또는 소백산인(小白山人)이라 하고 본관은 전주(全州)다. 우의정 후원(厚源)의 아들로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었다. 1657년(효종 8)에 진사가 되고 1664년(현종 5) 춘당대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고 이듬해 봉교(奉敎), 1667년에 정언(正言), 다음 해 교리(敎理), 이조좌랑(吏曹佐郎) 등을 역임하고 1673년 응교(應敎)로 제직 중 노산군(魯山君)의 묘소(墓所)에 시제(時祭)하고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등의 신원(伸冤)을 상소했다.

1675년(숙종 1) 형조참의(刑曹參議)로 있다가 송시열이 쫓겨나고 남인이 득세하자 사직했다. 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함경도 관찰사로 등용되고 1683년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1686년(숙종 12) 개성부 유수, 예조참판을 역임,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후 이조 참판을 지내고 1689년 기사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숙청당하자 기장(機張)에 유배되었다고 하였는데 《숙종실록》은 적소(謫所 : 배소인 기장을 말함)에서 1692년

(숙종 18) 2월 62세로 졸(卒)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694년 신원(伸冤)되었으며, 시호는 정간(正簡)이다.

그러니 이선이 기장에 유배로 왔을 때는 나이 58세 때가 된다. 유배지인 기장에서 돌아갔을 때는 62세가 되니 유배로 해서 기장에 있는 것은 4년간이다. 하지만 송강가사를 기장에서 찬집하기를 마친 것은 귀양 온 이듬해의 일이다.

그런데 이선은 정철이 작고한 39년 뒤에 태어났다. 이선은 전주 이씨로 왕가계보인 광평대군(廣平大君) 여(瑣)의 8대손이다.

이선은 당시 흐트러진 서인(西人)을 규합시킨 송시열(宋時烈 : 1607~1689)의 문인이었고, 송시열은 김장생(金長生 : 1549~1631)의 문인이었는데 이선의 아버지 이후원(李厚源 : 1598~1660) 또한 김장생의 문인이면서 우의정으로 있을 때 송시열을 이조판서에 천거한 사람이다.

이선의 할아버지 이육(李郁 : 1558~1619)은 송강가사의 저자 정철과 극진한 교유를 가졌던 성혼(成渾 : 1535~1598)의 문인이었다.

그러한 연고로 이선의 할아버지 이육은 송강보다 나이 22세나 아래라 해도 1588년 천거로 봉선전 참봉(奉先殿 參奉)이 되어 조정에 들 때 송강 정철은 우의정이란 높은 벼슬이었다 해도 이육이 성혼의 문하로서 정철의 영향을 입었을 것이다.

정철이 서인의 영수가 되고 1589년에는 동인(東人)으로 인해 진주(晋州)에 이어 강계(江界)로 유배당했다가 임진왜란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선의 할아버지 이육은 경상도에 있다가 분호조좌랑(分戶曹佐郎)이 되었다.

정철과 이선의 할아버지 이육은 그 무렵 선비사회에서 동서분당이 형성되어 갈 때 서인으로 기울어져 아들 이후원을 서인을 중심한 기호학과인 김장생의 문하가 되게 했을 것이다.

정철이 동인으로 인해 유배가 되었듯 이선 또한 1689년 동인

으로 인해 기장에 유배되었을 그때 이선은 서인 형성기의 영수격이었던 송강의 글들을 모아 왔을 만도 하다.

이선이 기장에 유배된 것은 정철이 진주로 유배된 때에서 100년 사이가 된다. 이 백년 사이는 선비사이의 당쟁이 극심했을 때이면서 서인의 동요도 컸을 때다.

유배란 그 모든 정치적 행위는 물론 사회적 행위도 금지된다. 그 유배가 몇 년을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 무렵 송강가사는 유가(儒家)나 민간인 사이 노래로도 불리고 글로도 읽히고 있어서 필사본도 있었을 것이고 전해지는 노래로서 취록(取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배길로 나서는 이선이 유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러한 자료를 거두어 올 만도 하다.

그러한 정황은 이선본 말미에 이선이 발문(跋文)으로 밝히고 있다. 그 발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관동별곡 關東別曲〉, 〈사미인곡 思美人曲〉, 〈속사미인곡 續思美人曲〉, 이 3편은 송강 상국(相國) 정문청(文淸은 송강에게 내린 시호) 공이 지은 것이다. 공의 작품은 청신 경발(警拔)하여 일찍부터 세상에 널리 애독되었으나 그 중에도 그의 가곡은 고금을 두고 한 층 더 절묘하였다. 그의 장편 단편의 가사들이 매우 성히 전해져서 비록 굴원(屈原)이나 소동파(蘇東坡)의 시부(詩賦)라 할지라도 이보다 별반 나을 것이 없다. 목청을 들어 낭랑하게 부르는 송강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그 성운(聲韻)이 청초하고 뜻 또한 초홀(超忽)하여 홀연 나도 모르게 온 몸이 허공에 두둥실 떠서 바람을 타고 날개가 돋혀 하늘을 나는 신선이 된 느낌을 갖게 한다. 그의 애군(愛君) 우국(憂國)의 지성은 글귀마다 정감으로 드러나 감동케 하니 타고난 충의가 아니고 어찌 이같은 풍류를 자아내게 하겠는가.

공의 깨끗한 성품과 곧은 행실은 마침 당쟁이 치열해지고 참소가 함부로왔던 때를 맞아 위로는 왕에게 죄가 되고 아래로는

동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어 여러차례 귀양살이를 입고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생명을 부지했던 일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언짢은 말은 죽은 후가 더 심했다. 옛날 소동파가 설화(舌禍)를 입은 것도 심하다 하겠지만 송강의 애군(愛君)시편들은 소동파와 어깨를 겨룰만하나 끝내 왕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말았으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청음(淸陰) 김문정(金文正 : 문정은 좌의정을 역임한 바 있는 金尙憲 1570~1652의 시호)공이 송강의 생애를 논평하면서 송강을 초나라 굴원의 충절에 비한 바가 있다. 이는 송강을 아는 말이라 하겠다.

관북(關北)에 옛날 공의 가곡을 간행한 것이 있었으나 돌이켜 보건대 연대가 오렐 뿐만 아니라 병화를 겪어 전해지지 못했다. 참으로 가석한 일이다.

내가 나라에 공훈을 세우지 못하고 죄를 얻어 태평한 시절에 임금 곁에서 멀리 떨어진 하늘가 먼 곳으로 내려와 실로 회포를 풀 길 없어 귀양살이의 틈틈이 이 3편의 와전된 것을 바로잡아 정서하여 책상머리에 두고 때때로 읊어보니 소일에 도움이 없지 않다. 생각건대 주부자(朱夫子 : 朱熹)가 초사(楚辭)를 집주(集註)한 뜻을 외람히 본뵈었다고나 할까. -때는 경오 정월 상순, 완산 후인 이선이 차성(車城 : 현 기장군) 유란헌(幽蘭軒)에서 쓰다-

이는 이선이 송강가사를 찬록(纂錄)한 뜻을 밝힌 글이다.

그 뜻은 관북에 송강의 가곡을 간행한 것이 있었으나 전해지지 않아 애석하게 여긴 나머지 주희가 초사(굴원, 송옥 들의 시부를 모은 책)를 집주한 것을 본뵈었다고 했다.

이 발문은 이선본보다 훨씬 늦은 1768년 관서지방에서 간행된 관서본에도 실려 있다. 이로 보아 이선본은 관서본에도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 이선의 이 발문이 송강가사를 정확하게 평가했음도 알 수 있다.

이선은 기장으로 귀양와서 송강의 가사 가운데 흠어진 것을 간추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만일 이선이 기장으로 귀양오는 일이 없었다면 송강가사의 참스러움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선으로 보아서는 귀양이란 어려움을 겪은 기장이었다 해도 국문학사상으로 보아서는 이선으로 해서 송강가사가 그 빛을 크게 되살렸다고 할 수 있다.

유란헌(幽蘭軒)의 위치

그런데 송강가사 이선본의 발문에 쓴 자리를 밝히기를 차성(車城)의 유란헌이라 했다. 차성은 기장을 말하지만 그 당시는 기장에도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이 있어도 행정적인 영역을 말할 때면 오늘날의 기장군 전역을 기장이라 했다.

그러면 그 기장에 유란헌이 어디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전해 내리는 여러 사실에서 오늘날의 철마면 웅천리에 있었던 정헌대부(正憲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문세명(文世鳴) 공의 사량채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를 문세명공의 후손이 엮은 기록인《집승록集勝錄》에 있는

有十景勝賢 而以供遊賞文 肅宗朝吏部李迪(迪은 選의 誤記로 봄) 謫來車城 窩居此洞曰 遊亭上離遺謫愁 而改號愁離亭

경관이 빼어난 곳이 열곳 있어서 그 경관으로 글을 즐길 수 있었다. 중종조 때 이부의 이선이 차성으로 귀양와서 이 마을에서 머물렀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 정자에 오르면 귀양살이의 근심을 멀리할 수 있었다



수리정비와
집승정 유허비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 하였다. 그리하여 수리정으로 이름을 고쳤다는 것이다.

이는 집승정이 수리정으로 바뀐 내력이 되는데 이때 귀양온 사람은 이선이다. 이선이 이곳으로 귀양오기 전에는 숙종조에 이이조참판(吏曹參判)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중리마을에는 옛 정자가 있었던 터에 수리정비(愁離亭碑 : 1974년 3월 山水會에서 건립)와 집승정유허비(集勝亭遺墟碑 : 1977년 同知公 後孫 文盛運, 文德洙 건립)가 있다.

전해 오는 말로는 집승정이자 수리정에서 50보(步)쯤 떨어진 곳에 문세명공의 집이 있고 그 집 사랑채를 유란헌(幽蘭軒)이라 했는데 이선이 유란헌에 머물면서 송강가사를 찬집하면서 한가하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면 집승정으로 올라 주위 경관을 바라보며 귀양살이의 근심을 달랬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문세명공과 이선공, 그리고 유란헌과 집승정을 밝힌 사람은 기장의 향토사학자이자 국문학자이며 기장의 노래인 차성가(車城歌)를 완전히 풀이한 홍영식(洪永植 : 1907~1988)님이다. 홍영식님은 향토사와 국문학사를 연구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구전을 참고하여 이선의 유배지를 철마면 웅천리 중리마을임을 고증했다. 그 고증에는 문세명 후손이 남긴 집승록(集勝錄)도 크게 참고가 되었다. 그리하여 1969년 10월 수리정터를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기장지역이 동래군에서 1973년 양산군에 편입되는 등으로 해서 그 끝맺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선의 후손은 선대(先代)가 귀양살이를 한 이곳으로

찾아든다고 한다. 광복 직후에는 문세명공의 후손 문의순(文義純)씨를 찾고 1995년경에는 역시 이선의 후손이 문병진(文柄珍)씨를 찾았다고 한다.

이선의 기장 귀양살이는 불후(不朽)의 작품 송강가사에 그 가치를 드높혔을 뿐만 아니라 이선으로 보아서는 귀양살이를 값지게 한 곳이라 할 수 있다. ■ 향토사학자 최해군

12. 변 박(卞 璞)

17~19세기의 부산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일본에 대한 외교·무역의 창구 역할을 한 도시였다. 동시에 부산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최전방의 국방 요충지였다. 이러한 부산의 정체성(Identity)과 관계 깊은 삶을 산 18세기의 대표적인 부산 사람으로 변박(卞璞)을 든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변박은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진 전근대 부산 출신 화가로는 최초가 아닌가 생각한다.

변박은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일본인이 쓴 《한객인상필화 韓客人相筆話》라는 책에 보면, 1764년 당시 23살이라 하였다. 따라서 1741·2년 경에 태어난 것 같다. 변박의 작품 가운데 1783년에 그린 ‘왜관도’가 있으므로, 1783년 이후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자는 성지(成之), 탁지(琢之), 호는 술재(述齋), 형재(荊齋)이다. 본관은 밀양이고, 동래에서 살았다. 1764년 당시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4살된 어린 동생이 있고, 아직 자식은 없었다.

조선후기에는 각 지방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6방 중심의 작청(作廳)과 치안이나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무청(武廳)이 있었다. 국방의 요충지인 동래에는 다른 지역보다 무청이 많았다. 중군청, 군관청, 교련청, 장관청, 수성청, 별기위청, 별무사청, 도훈도청 등이 그 중심이었다. 각 무청에는 여러 직임이 있었다. 변박은

장관청의 최고직인 천총, 별군관청의 최고직인 행수, 수첩청의 최고직인 별장을 비롯하여, 별군관청의 군기감관 등 각종 무임직을 역임하였다. 이들 무청 가운데 장관청(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8호), 군관청(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21호) 건물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이처럼 변박은 동래부 소속 무임으로서, 오늘날의 경찰이나 군인과 같은 임무를 맡은 공무원이었다. 각종 무임직을 역임한 것으로 보아 그의 신분은 중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1781년에 글씨를 쓴 「사처석교비」에는 「유학 변박(幼學卞璞)」이라 쓰고 있어 양반임을 밝히고 있다.

변박은 1763~1764년에 일본에 갔다온 통신사행에 참여하여 화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이 통신사행의 최고 책임자인 정사(正使)는 조엄(趙巖)이었다. 조엄의 사행일기인 『해사일기(海槎日記)』에는 변박과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 기술되어 있다. 1763년 10월 10일 통신사행이 대마도의 사스우라(佐須浦)에 머물 때, 대마도의 지도와 인쇄된 일본 지도를 구할 수 있었다. 조엄은 변박으로 하여금 옮겨 그리도록 하였는데, 변박은 동래사람으로 문자에 능하고 그림을 잘 그리어, 기선장(騎船將)으로 데려왔다고 하였다. 당시 변박은 22살이었다. 조엄은 1757년 7월~1758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동래부사를 역임한 적이 있었다. 당시 변박은 이미 화가로서 이름을 날렸다고 생각된다. 조엄은 그때 변박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기선장으로 삼아 통신사행에 데려간 것 같다.

통신사행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원(畵員)이 따라 갔다. 1763~1764년 통신사행의 공식적인 화원은 김유성(金有聲)이었다. 1764년 1월 24일 오사카(大坂)에 머물 때 일본 지도를 얻어 김유성이 보고 그리다가, 일본 <대지도>가 너무 번잡하여 그만 두었다. 이때 조엄은 기선장 변박이 그림을 잘 그리므로 도훈도(都訓導)와 교대시키고, 항상 옆에서 수행하게 하였다. 이 정도로 변박은 그

림 솜씨로 조엄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

1764년 1월 27일 요도우라(淀浦)에 머물 때, 성 밖에 수차(水車) 두 대가 있었는데 물레같이 생긴 것이 스스로 돌면서 물을 떠서 통에 부어 성 안으로 보내는 것이 보기에 매우 이상하다고 조엄은 생각하였다. 조엄은 별파진(別破陣) 허규(許圭)와 도훈도 변박을 시켜서 그 제도와 모양을 자세히 보게 했다. 조엄은 수차 제작 방법을 옮겨다가 우리 나라에 사용한다면 논에 물을 대기에 유리하겠는데, 허규와 변박이 꼭 이룰런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조엄은 수차가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됨을 알고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허규와 변박에게 이를 상세하게 그리게 한 것이다.

1764년 6월 8일 조엄의 일기를 보면, 수륙의 각 참(站)을 지날 때, 명산 대천 중에서 좋은 풍경을 골라 변박을 시켜 그리게 하였는데, 그 초본이 미처 완성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으므로, 그를 시켜 자세히 수정하게 하였다. 공식 화원인 김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박은 화가로서 정사인 조엄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통신사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본의 학자·문인·의사·승려·화가 등 식자층과 시문이나 그림 등을 주고 받으면서 여러 분야에 걸쳐 문화교류를 하였다. 따라서 통신사행이 지나간 지역을 중심으로 통신사행이 남긴 작품들이 현재도 많이 남아 있다. 시즈오카(靜岡)현 시미즈(清水)시 오키츠(興津)에 있는 세이겐지(清見寺)에도 현판의 글씨, 그림, 시문 등 통신사 관련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조엄 등이 사행 임무를 마치고 에도(현재 일본 도쿄)에서 돌아 오는 길인 1764년 3월 19일 요시하라(吉原)에 머물 때, 조엄은 여러 문인을 불러 ‘왕명을 전하는 일에 대한 운(韻)’, ‘회정(回程)에 대한 운’, ‘청견사에 대한 운’ 등 시를 짓게 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일 세이겐지에서 점

심을 먹었다. 세이겐지에는 변박이 지은 <제청견사용전은 題淸見寺用前韻>이라는 제목의 시가 남아 있다. 변박이 지은 시로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것이다. 조엄은 변박이 ‘문자에 능하다(能文字)’고 하였다. 이 시는 변박의 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시는 오언율시로서,

地接三山界(지접삼산계) 天低萬里波(천저만리파)
 禪家元勝絕(선가원승절) 槎客暫經過(사객잠경과)
 詩意春花在(시의춘화재) 羈愁夕照多(기수석조다)
 徘徊還惜別(배회환석별) 惆悵更如何(추창갱여하)

땅은 삼산 경계와 접하고 하늘은 만리 바다에 닿아 있네
 절은 원래 절경인데 사행 객은 잠시 지나네
 시심은 봄꽃에 있고 나그네 수심은 석양에 더하네
 노닐다 다시 석별의 정 나누니 슬퍼함을 다시 어찌하랴

이 시는 변박이 만리 바다 밖에 있는 일본에 통신사행으로 갔다 돌아오면서 세이겐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헤어지는 슬픔을 읊고 있다.

통신사행에 따라간 화원들의 활동은 그림 교류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주변 모습을 스케치하거나, 대마도나 일본지도를 옮겨 그리거나, 행로의 지형을 그리는 공식적인 활동 외에 사람·새·사군자 등 그림도 많이 그렸다. 변박이 1763·4년 사행 때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렸으며, 또 현재 일본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현재 일본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대나무 그림에는 ‘조선국형재(朝鮮國荊齋)’라는 글씨에 ‘성지(成之)’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변박의 호인 형재와 자인 성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변박의 작품이 틀림없다. 다만 간지(干支)가 없어서 연대를 정

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조선국’이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1763·4년 통신사행 때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나무 아래의 호랑이 그림(松下虎圖)은 그림 뒷면에 「갑신삼월」이란 글씨가 있는 것으로 보아, 1764년 3월 통신사행의 귀환 때 그린 것이 틀림없다.

일본의 다카마쓰(高松)시 호넨지(法然寺)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의 말 그림(柳下馬圖)에는 ‘세기해초하(歲己亥初夏) 동화술재사(東華述齋寫)’라는 글씨에 변박의 호인 ‘술재(述齋)’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기해년인 1779년(정조 3)에 그린 그림이다. 1763·4년 이후에는 통신사행이 1811년에야 파견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변박이 동래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이다. 통신사행이 아닌 때에 그린 변박의 그림이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 그림이 부산 왜관을 통해 일본에 전해진 것임을 말해준다. 어떤 경로를 통해 이 그림이 일본에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양국간의 그림 교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변박은 통신사행에 갔다 온 다음해인 1765년(영조 41)에 ‘동래 독진대아문 東萊獨鎭大衙門’이란 글씨를 썼다. 이 문은 동래부 동헌 앞에 서 있는 대문으로, 오늘날 부산시청의 정문과 같은 문



사처석교비 부산 남구 부산박물관

이다. 전형적인 관청 대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문이다. 이 현판에 보면 ‘세을유동서(歲乙酉冬書)’라는 글씨와 함께 전서(篆書)체로 쓴 ‘변박(卞璞)’이란 도장이 찍혀 있다. 1765년 겨울에 변박이 썼음에 틀림없다. 도장에 주목하지 않아 누가 쓴 것인지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동래부 대문 이름을 변박이 쓴 것으로 보아, 동래부에서 차지하는 서예가

로서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변박의 글씨는 사처석교비 비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비석은 동래성 남문 밖에 있던 네 곳의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바꾼 것을 기념하여 1781년(정조 5)에 세운 비석이다. 비 앞면에는 상단에 전서체로 ‘사처석교비 四處石橋碑’라 쓰고, 그 밑에 세로로 7행 142자가 예서로 새겨져 있다. ‘유학 변박서 幼學卞璞書’라 하였으므로 변박이 쓴 것임에 틀림없다. 비문은 아담하고 단정한 글씨로 쓰여 있어, 변박의 필체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변박의 작품 중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1783년에 그린 초량왜관도이다. 이 그림에는 ‘왜관도 세계묘하사(倭館圖歲癸卯夏寫)’라는 글씨와 함께 ‘술재(述齋)’와 ‘변박(卞璞)’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따라서 1783년 여름에 그려진 것이다. 그림의 중앙에는 왜관의 책임자인 관수의 숙소이자 집무소인 관수가(館守家)가 있고, 그 양쪽에 동관과 서관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왜관의 밖에는 연향대청, 성신당, 빈일헌, 초량객사, 설문 등이 있다. 왜관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높은 각도에서 조감도식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림에는 건물과 함께 약 60곳의 건물 이름이 적혀 있어, 왜관 실태를 연구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일급 자료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변박의 작품 중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1760년에 그린 부산진순절도와 동래부순절도이다. 이 두 그림은 각각 보물 391, 392호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그림이며, 변박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림이다.

부산진성 전투는 1592년 4월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운 최초의 전투다. 부산진순절도는 부산진성에서 일본군과 전투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부산진순절도는 1709년(숙종 36)에도 그려졌으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760년에 변박이 고쳐 그린 것이다. 전쟁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리기 위해 높은 각도에서 조감도식으로

그렸다. 그림 오른쪽에 부산진성을 두고, 반달 모습으로 겹겹이 에워싸고 성을 공격하는 일본군을 그렸다. 그 뒤에는 바다에 일본 병선(兵船)을 뺑뺑하게 그렸다. 성문 위에는 검은 갑옷을 입은 부산진첨사 정발(鄭撥)을 중심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조선 병사를 그렸다. 정발은 임진왜란 중 가장 용감하게 싸운 장군으로 칭송되었으며, 흑의장군이라 불리었다. 사람과 건물들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림의 격이 높지 못하여 구도나 필치 등에서 딱딱함이 두드러진다. 회화의 우수정보다는 사료적 가치가 큰 작품이다.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곧 동래성을 공격하였다. 당시 동래부사는 송상현(宋象賢)이었다. 일본군은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달라’는 투항을 유도하는 글을 동래성 남문 밖에 걸었다. 이에 송상현은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라고 답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뜻을 보였다. 동래부순절도는 동래성에서 일본군과 전투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1709년(숙종 36)에도 그려졌으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760년에 변박이 고쳐 그린 것이다. 전쟁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리기 위해 높은 각도에서 조감도식으로 그렸다. 부산진순절도와는 달리 싸우는 모습을 다양하게 그렸다. 그림 중앙에 동래성이 둥글게 자리잡고 있다. 아랫부분에 남문을 중심으로 수비하고 있는 동래부 병사와, 이를 공격하기 위하여 반달 모습으로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일본군을 그렸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던지는 여인의 모습도 그리고 있다. 객사 앞에는 붉은 조복(朝服)을 입고 북쪽을 향하고 있는 송상현을 중심으로 한 순절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왼쪽 윗부분에는 울산에서 지원하러 왔다가 도망가는 경상좌병사 이각(李珪)을 그려 송상현과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 그림의 주제에 비해, 그림의 격이 그다지 높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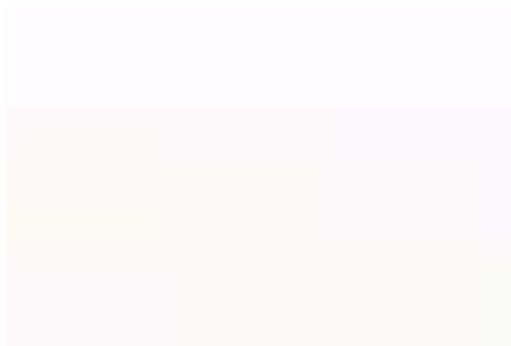
여 필치·형태 등에서 다소 경직된 면이 보인다.

순절도는 임진왜란 때 순절하신 분을 기리기 위해 동래부에서 그리게 한 의미있는 그림이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린 변박으로서는 큰 영광이었다. 당시 변박은 스무살 정도였다. 약관의 변박이 순절도를 그렸다는 것은 당시 부산 최고의 화가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두 순절도는 원래 동래 안락서원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변박의 작품은 현재 보물 2점, 부산시 문화재 2점(글씨가 있는 유물 자체가 지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18세기 후반 동래 출신의 지방 서화가로서는 큰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되며 역사적 의미도 중요하다. 변박이 남긴 작품은 부산지역사, 임진왜란·왜관·통신사 등 한일관계사는 물론 미술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변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통해서 그의 작품이 새롭게 발굴되고, 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서 변박의 작품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부산대 교수 김동철

13. 안용복(安龍福)



안용복장군 충혼탑

부산 수영구 수영공원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인접 해양에 관한 한국의 주권을 선언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사회 내부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던 인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한국 국민들은 대부분 크게 격분하였다. 한국 국민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에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 내의 일부 인물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리하여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독도는 일본과의 영유권 시비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다.

조선후기에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가 왜국(倭國)의 영유권 시비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울릉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가운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이는 17세기에 일어났던 왜국과의 영유권 시비 과정에서 조선이 울릉도 영유권을 확고하게 지켰던 결과이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인물이 부산의 보통 사람 안용복이다. 그 당시 울릉도 영유권 시비 과정에서 왜국 대마도의 침탈 간계를 막는데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이하 ‘안용복 사건’으로 줄임). 이러한 이유로 해서 20세기 이전 국토수호 분야에서 부산을 빛낸 인물로서 조선후기의 안용복이 꼽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안용복에 관한 구체적인 신상 정보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거의 없다. 당시 사회의 지식인 가운데 관심을 갖고 그의 신상을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어떠한 활동을 주로 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의 성품은 어떠한지 등에 관해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단편적인 정보가 전해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이용하여 부분적이거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안용복에 관한 신상 기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안용복은 동래부 진선(戰船)의 노군(櫓軍)인데, 왜관에 출입하여 왜말에 능하였다’, ‘안용복은 동래사람이다. 수영 수군에 소속되어 왜관에 출입하면서 일본어에 익숙했는데’, ‘본디 동래에 살았는데 어머니에게 문안하려고 울산에 갔다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는 동래부 관할 지역에 살던 수영의 수군으로서 초량에 있던 왜관에 출입하면서 왜국말을 배운 사람이다. 울산에 그의 어머니가 살았으므로 그가 울산에서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일본에 남아있는 안용복의 신상 기록이 소개된 바 있다. 안용복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그는 한번은 끌려서 또 한번은 스스로 모두 두 차례 왜국에 갔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적인 문서와 사적인 기록이 남게 된 것이다. 여러가지 기록 가운데 눈길을 끄는 자료는 당시 안용복이 허리에 찌던 목패 내용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안용복이 처음 왜국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갔을 때 당시 왜국인이 남긴 기록을 뒷날 다른 왜국인이 옮겨 적음으로써 전해질 수 있었다. 그 목패는 조선후기 수군이 신분 증명을 위하여 허리에 찌던 수군 목패로 알려졌다.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그는 서울에 사는 어떤 인물의 사노(私奴)로서 이름은 ‘용복(用卜)’이며 당시(1693) 나이는 36세였고, 초량왜관에서 가까운 좌천동에 살았다.

이로써 알 수 있게 된 새로운 사실은 우선, 그가 사노로서 주인과 함께 사는 솔거노비가 아니라 주인과 떨어져 사는 외거노비로서 천민 신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첫 번째 왜국에 끌려갔을 때 동행한 동료 박어둔이 울산의 염간(鹽干)으로서 안용복과 비슷한 사회적 처지였다는 점과 부합된다. 염간이란 조선 시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던 사람을 일컫던 용어이다. 이들은 신분은 평민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천시되었던 계층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박어둔은 안용복과 거의 같은 사회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당시 수군 목패에 기록된 그의 이름 글자가 ‘用卜’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가 천민 신분층임을 암시해 주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의 이름 글자는 ‘龍福’이다. 당시 사회에서 천민 신분층의 이름 글자를 기록함에 있어서 발음만 같고 글자가 다른 예는 흔히 발견되는 일이다. 대개 천민 신분층은 문자를 모르는 문맹자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안용복 역시 당시 정부의 기록에는 문맹자로 파악되어 있다.

원래 조선의 군역은 평민 신분이 담당하였다. 수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천민 신분은 수군이 될 수 없었다. 안용복은 천민 신분인데 조선의 수군으로 근무하였을까. 이 점은 조선후기 수군제도의 변화와 연관지워서 설명될 수 있다. 안용복이 활동하던 17세기 말엽의 수군은 지원병에 의한 직업군인으로 바뀌었다. 그러한 추세 속에서 천민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원할 경우 수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안용복은 조선후기 들어 군역제도가 변화하는 가운데 천민신분으로서 하급의 수군이 될 수 있었다.

안용복은 초량왜관에 출입하면서 왜국 말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는 현재의 좌천동에 거주하였다. 거주지가 초량왜관

과 가까운 곳이어서 왜국 사람들과의 접촉이 용이했던 모양이다. 그는 문자를 쓰고 입을 줄은 몰랐지만 초량왜관에 있던 왜국 사람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하여 왜국 말을 익힌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가 울릉도에서 왜국 어부들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또 일본에 갔을 때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왜국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당시 왜국 기록에는 안용복과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이 언급되고 있었다. 체계적으로 배운 언어가 아니어서 복잡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안용복은 이름을 ‘용복(龍福)’이나 ‘용복(用卜)’으로 썼으며, 1693년 왜국에 붙잡혀 갔을 때 36세였다. 그는 초량왜관과 가까운 좌천동에 거주하면서 왜국 말을 익혔다. 그는 조선사회의 양반·중인·평민·천민 네 신분 가운데 천민에 속하였고, 동래부 좌수영의 하급 수군이였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안용복 장군이라고 높여 부르기를 원한다. 안용복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와 탑에서도 모두 ‘안용복 장군’으로 기록되었다. 그러한 호칭에는 당시 안용복이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보인 활약상을 오래도록 기억하자는 바램이 깃들여 있다.

안용복이 장군으로 불리게 된 유래는 1954년 뜻있는 부산의 지식인들이 그를 ‘독전왕 안용복 장군’으로 높여 불렀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후 1960년에 들어서 역시 지식인들이 ‘수포장 울릉군 안용복’으로 높여 불렀다.

이와 같이 안용복을 장군으로 높여서 기억하려는 부산 사회의 노력은 해방 이후 전개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와 맞물려 있다. 즉 1952년 한국정부의 평화선 선언으로서 한국의 해양 주권이 공포되자, 이후 일본인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분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산사람들은 조선후기 왜국과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시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던 안용복을 상기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안용복이 장군으로 불린 것은 그만큼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부산 시민들의 정서, 나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안용복이 활약하던 당시 어째서 울릉도가 왜국과의 영유권 시비에 휘말렸을까. 그 시비의 뿌리는 일본해적, 즉 왜구의 약탈에 대한 조선정부의 대책에서 찾을 수 있다. 울릉도는 일찍이 서기 512년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후 고려와 조선이 통치하였다. 말하자면 울릉도는 6세기 초 이후 항상 한국의 영토였다. 그런데 고려 후기부터 조선초기에 걸쳐 왜구의 약탈이 자행되었다. 이에 조선 초기 무렵 왜구의 약탈로부터 거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외딴 섬 거주민을 내륙지역으로 이주시켜 섬을 비워두었다. 이를 공도정책(空島政策)이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울릉도 거주민들도 내륙으로 이주하였다.

왜구가 소멸된 후에도 정부는 백성의 울릉도 거주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 당시 부역과 군역을 피하여 울릉도에 숨어드는 백성이 있었지만 뱃길이 멀고 험하여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울릉도가 조선정부나 어부들에게 잊혀진 것은 아니었다. 울릉도에는 배를 만들 재목과 각종 수산자원 등이 풍부하였다. 그 때문에 정부 몰래 남해와 동해 연안의 조선 어부들 가운데 일부가 고기잡이를 나가는 일이 가끔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며 한동안 조선 어부들의 발걸음이 끊어졌다. 그 무렵 왜국에서는 도쿠카와막부(德川幕府)가 통치하였는데 엄격한 쇄국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왜국 어부들이 공식적으로는 울릉도

에 고기잡이를 나가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는 대마도의 울릉도 탐사 시도 사건이고, 또 하나는 도쿠카와막부가 왜국 어부들에게 울릉도의 고기잡이 허가증을 발급한 사건이다.

대마도의 울릉도 탐사 시도 사건이란, 1614년(광해군 6) 대마도 도주가 울릉도를 탐사하겠으니 조선인 안내자를 부탁한다는 뜻을 조선정부에 통고해온 사건이다. 조선에서는 그것이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 대마도가 장차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판단하고, 울릉도가 명백히 조선 영토임을 밝히고 그 제의를 거절하였다.

대마도의 울릉도 탐사 시도 사건 직후인 1618년 도쿠카와막부는 왜국 어부 2명에게 울릉도의 고기잡이 허가증을 발급하였다. 호키슈(伯耆州 : 현재의 돗토리현[鳥取縣])에 사는 오타니(大屋甚吉)가 1617년 풍랑으로 울릉도에 우연히 표류하였다. 그는 울릉도의 물산이 풍부함을 알고 본국에 돌아가 동업자인 무라카와(村川市兵衛正純)와 더불어 막부에 고기잡이 허가를 신청하여 받았다. 당시 막부는 그 전의 대마도 울릉도 탐사 시도 사건에 의해서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어쨌서 어업 허가권을 발급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왜국 막부가 그들에게 조선 영토인 울릉도 어업권을 허가하였고, 이후 두 가문은 안용복 일행을 만날 때까지 울릉도 고기잡이를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사건은 임진왜란 이후 울릉도를 둘러싸고 왜국에서 일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잘 보여준다. 조선정부가 울릉도의 공도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마도가 울릉도를 탐내고 있었고, 또 왜국 어부가 막부의 허락을 빌미로 울릉도 어장에 접근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조선 어부들도 때때로 정부 몰래

울릉도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일이 있었다.

당시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두 나라 어부들 사이의 울릉도 영토의식은 서로 달랐다. 이 당시 울릉도에 고기잡이 나온 왜국 사람들에게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생각이 없거나 회피하였다. 반면, 조선 어부들은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생각이 명백했다. 이것은 큰 문제거리였다. 두 나라 어부들이 영유권 시비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두 나라 어부들이 서로 충돌할 분위기가 이미 조성된 가운데 실제 안용복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건에 휘말렸던 안용복은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이 확정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안용복은 1693년(숙종 19) 봄에 동래·울산의 어부들 40명과 더불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호키슈(伯耆州) 오타니가문의 어부들과 만나 울릉도의 영유권을 놓고 충돌하였다. 그 과정에서 안용복은 동료 박어둔과 함께 왜국 호키슈에 인질로 끌려갔다. 40여 명의 어부들 가운데 왜 안용복이 끌려갔을까. 그 이유로서 두 가지 측면을 들 수 있겠다. 첫째는 안용복이 일행 가운데 왜국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안용복은 성격이 대범하여 조선 어부들의 분위기를 주도하였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왜국에 잡혀간 상태에서도 안용복은 굴하지 않고 호키슈 태수를 통하여 중앙정부인 막부에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왜국 어부들의 침범 부당성을 따졌다. 그 결과 막부의 조치에 따라 안용복 일행은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당시 이름은 자산도)가 조선 영토라는 점을 인정한 문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대마도주의 농간에 걸려

안용복 일행은 그 문서를 탈취당하고, 초량에 있던 왜관에 3개월 동안 붙잡혀 있다가 동래부로 보내졌다.

안용복이 왜국에 잡혀있을 때의 왜국 기록에는 그의 거동이 매우 난폭하다고 기술되었다. 왜국사람들이 인질로 잡아온 안용복이 난폭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강인한 의지의 인물임을 웅변으로 말해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달리 생각하면 그러한 의지의 인물이었

기에 그가 왜국에 맞서 울릉도·독 안용복 장군 충훈비 울릉도 도동도의 조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한편 안용복 일행을 조선에 송환하는 임무를 맡았던 대마도는 막부를 대신하여 조선 정부에 편지를 보냈다.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竹島 : 울릉도)라는 섬에 조선 어부들이 침범하였기에 잡아들였다가 돌려보내니 앞으로 조선 어부들을 단속해서 다시는 침범치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왜식 이름이었다. 대마도의 편지에서 울릉도란 명칭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왜국 영토 다케시마"라고만 언급한 점은 농간의 극치였다.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별개의 섬이라고 언급된 가운데 다케시마는 왜국 영토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가 그 점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항의 문서를 그대로 수용하면 대마도가 장차 이를 빌미로 울릉도를 탈취하려는 속셈이었다.

대마도의 편지를 받은 조선 정부는 대마도의 속셈을 알아채고

그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이에서 강경대응책과 온건대응책이 제시되었다. 강경책은 왜국말로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은 조선의 울릉도로서 그 섬은 삼국 이래의 역사적 기록으로 조선의 영토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대마도에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반면 온건책은 대마도측의 의도는 알지만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면 양국간에 분쟁이 일어나므로 완곡하게 표현하자는 것이다. 결국 온건책에 따라 회답 내용이 구성되었다. 조선 어부들로 하여금 멀리 떨어진 탓에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도 못나가게 하는데 어찌 왜국 영토인 다케시마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언급된 것이다. 이는 조선 정부가 다케시마가 조선의 울릉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점을 명백히 드러내자는 강경책 대신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것만을 언급하자는 온건책을 따른 내용이다. 이로써도 대마도의 간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회답을 받은 대마도는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언급된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거듭 조선에 요청하였다. 그동안 조선에서는 대마도의 편지에 대한 강경대응책을 주장하던 인물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응책이 강화되었다. 이 무렵, 안용복이 초량 왜관에서 동래부로 송환되면서, 그가 겪은 전후 사정이 소상하게 조선 정부에 알려졌다. 정부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일관되게 강경책을 고수할 수 있었다. 대마도 역시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협을 하면서까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언급된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시비는 1693년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어 1696년 1월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대마도의 집요한 획책과 안용복 사건에 의해서 대마도의 의도를 파악한 조선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대립된 것이다.

장기적인 시비의 해결 전환점은 대마도주가 사망하고 후계자가 새 도주로 임명되면서 마련되었다. 새 도주를 맞은 대마도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울릉도 영속 시비의 전말을 막부에 보고한 것이다. 이리하여 막부는 전후 사실들을 검토하여 1696년 1월 왜국말로 다케시마로 부르는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 사실을 분쟁과 관련된 대마도와 호키슈(伯耆州)에 통보한 것이다.

대마도는 관례에 따라서 막부에서 결정한 이 내용을 조선에 통보해야 했지만 미루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제2차 안용복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용복은 1696년 봄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왜국 어부들을 발견하고 동료 11명과 함께 왜국으로 쫓아들어갔다. 그는 해당 지역의 태수에게 항의하고, 막부에 항의 문서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마도가 그간에 조선과 왜국의 중계무역을 행하면서 범했던 불법적 농간 사실들을 폭로하는 동시에 왜국 어부들이 불법적으로 조선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 침범했음을 보고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안용복의 항의 문서가 막부에 접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막부에 항의 문서를 올린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번째 일본에 갔을 때 안용복은 ‘울릉·우산감세장(鬱陵·于山監稅將)’이란 깃발을 배에 걸었다. 여기서 우산은 자산(子山)을 잘못 쓴 글자이며 독도를 가르킨다. 시비의 초점은 울릉도에 있었지만, 인접한 독도를 왜국 어부들이 마쓰시마(松島)라 부르며 거기서 고기잡이를 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해두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세장이라 칭한 것은 안용복 자신의 항의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조선 관료의 입장임을 보이려 했음을 나타낸다. 이때 막부에 항의 문서를 올리는 것 등에서 안용복 스스로가 일행의 통솔자로서 활약하였다.

제2차 안용복 사건은 대마도에게 크게 당혹스러웠다. 이 문제가 막부에 보고되어 확대되면, 대마도에게는 울릉도 영속 시비 이외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

이다. 더구나 울릉도 영속권 문제는 이미 막부에서 조선의 영유권을 공인한다는 결정을 내린 마당이었다.

이리하여 대마도는 안용복이 해당 지역 태수에게 요청하여 올린 항의 문서가 막부에 전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용복 등은 공식적으로 울릉도 문제와 무관한 단순 표류민으로 처리하여 송환되도록 하였다. 대마도는 막부가 조선의 울릉도 영유권을 인정했던 공식문서를 1697년에 조선 정부에 보냈다.

이로써 1693년 제1차 안용복 사건으로 촉발된 조선과 왜국 사이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시비는 1696년 제2차 안용복 사건을 거치면서 1697년 공식적인 해결을 보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선 정부는 시비에 휘말렸던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영유권 시비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대마도는 울릉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된 주요 원인은 대마도가 극히 척박한 섬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대마도는 거의 대부분 산지이며 경작지는 섬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대마도는 일찍부터 왜구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왜구토벌이 강화된 조선초기부터는 울릉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1407년(태종 7) 대마도주는 울릉도로의 집단 이주를 조선 정부에 건의했으나 거절당하였다. 또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1612년(광해군 4)에는 대마도주가 울릉도의 지형 조사를 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안용복 사건에 나타난 울릉도에 대한 대마도의 집요한 관심이 갖는 궁극적 의미를 잘 말해준다.

현재의 울릉도 영유권은 17세기말(1693 ~ 1697)의 왜국과의 영유권 시비를 극복함으로써 확립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천민 신분의 수군 군졸 안용복의 용기와 의지가 영유권 시비를 극복,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그를 높여 장군이라 부르며 기리고 기억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직면한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무언으로 가르치고 있다. 시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만 다른 나라의 침탈을 저지하고 영토를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부산교육대 교수 오인택

14. 이안눌(李安訥)



동악 시단 서울 동국대학교

동악 이안눌은 서울 사람이다. 그가 부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나이 38세 때인 1608년(선조 41) 2월 동래부사로 부임하면서 부터이다. 동악은 1609년 7월 선위사의 장계로 파직될 때까지 동래부사로 재직하여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황폐해진 동래(부산)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문물을 정비하는 한편, 부산항을 통하여 다시 개설된 일본교역에 있어서 외교의 원칙을 수립하는 데 힘써 국가의 체통을 지켰다.

소년 문장

동악은 1571년(선조 4) 서울에서 태어났다. 동악의 아버지 이행(李沔)과 조부 이원정(李元禎)은 모두 벼슬하지 않고 진사(進士)에 그쳤으나, 중종조(中宗朝)에 문학으로 명성이 높았던 증조부 용재(容齋) 이행(李荇) 이래 대대로 문학의 명성이 높았던 가문이었다.

동악은 어려서부터 영민하였다. 나이 10세에 이미 경전과 역사 서적을 두루 외고, 시문을 짓는데도 탁월한 재능을 보여, 벗들과 지은 시문이 10권에 이를 정도였다. 16세에 성균관에서 정기적으로 치뤄진 백일장에서 여러번 장원을 차지하였다.

어린 시절 동악의 재능은 장안에 자자하여, 그 이름이 궁중에 까지 알려졌다. 선조 임금이 어느날 성균관 대사성 김응남에게 문기를, “성균관 학생 가운데 장래 이 나라의 문학을 주장할 만한

자가 누군가?” 하고 물었는데, 김응남은 “이안놀”이라고 하였다. 선조는 이때 동악의 집안과 나이 등을 두루 물어보고는 그 성명을 탁자 위에 적어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재능과 명성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는 법이다. 동악은 18세 때 진사 초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2차 시험인 한성시에도 무난히 합격하여 명성을 크게 떨쳐, 마지막 3차 시험인 회시의 관문만 남겨 놓고 있었다. 그런데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트리는 자가 있어서, 회시를 치르기 직전에 뜻밖에도 시험자격을 박탈당하는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다. 나중에 유언비어를 날조한 자도 붙잡혀 처벌을 받았지만, 이 일로 동악은 세상 일이 순리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더 이상 과거 시험에 연연해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불운은 겹쳐 온다고 하던가. 그럴 무렵 동악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쳤다. 자신이 후사로 들어가 모시고 있었던 감찰공이 별세하고 잇달아 생부인 진사공이 별세하여, 두 분의 장사를 치르고 대소가 집안 일을 감당해야 할 일이 생긴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임진왜란이 터졌다. 동악은 난리를 당하여 집안의 노약자를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피난 다니면서도 장례의 범절을 지키고 학문도 그만 두지 않았다.

난이 조금 안정되고, 상례기간도 끝나자 동악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동악이 서울로 돌아오자, 당시 사대부 사이에 문학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고옥 정작, 석주 권필 등은 물론, 문단의 원로인 월정 윤근수, 오봉 이호민 등이 찾아와 함께 교유하면서, 동악에게 과거시험에 응시하기를 권하였다.

동악은 29세 되던 1599년(선조 32)에 문과 정시에 2등으로 급제하였다. 급제하자 곧 전례에 따라 권지승문정자로 임용되고 몇 달만에 승진하여 북도평사로 진출되었다. 곧 이어 형조, 호조, 예조의 좌랑으로 임용되고 다시 예조정랑으로 승진하였다.

관직에 나간 이후 동악의 시문은 빛을 발하였다. 1601년에는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서장관으로 사신 행차에 합류하여 중국의 명나라에 다녀왔고, 귀국하자 곧장 왕명을 문서로 작성하는 지제교의 직책을 맡았고, 성균관 직강이 되어 성균관의 선발된 인재들을 교육하였다. 이 때 중국에서 사신이 나왔는데 이들은 평소 문장으로 명성이 있어 자부심이 높은 이들이었다. 조정에서는 조선에서 문학으로 이름이 높은 이들을 선발하여 이들을 접대하게 하였는데, 월사 이정귀와 오봉 이호민이 원접사로, 동악이 종사관으로 차출되어 중국사신과 응수하였다.

동악은 여러번 지방관으로 부임하였다. 1602년 겨울에 함경도의 단천군수로 임명된 것이 최초이다. 단천군은 은이 산출되는 고을이라 이전부터 관리들의 비리가 많이 있었다. 더구나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의 수요가 많아져서 은 생산을 늘임으로써 이런 병폐가 더욱 불어났고, 그에 따른 민폐가 적지 않았다. 동악은 단천군에 부임하여 동헌 마루에 “불역심(不易心)” 세 글자를 써 붙여 놓고는, 광산 일을 감독하는 책임자를 선발하여 은의 생산량을 점검하고 광산을 시찰하는 일 등 은 생산에 관한 모든 책임을 맡기고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 군수가 광산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니, 관리들이 군수에게 뇌물을 바칠 일이 없어졌고, 모든 책임을 감독자에게 맡기니, 감독자는 제 책임이 걸린 일이라 군수를 속이거나 백성을 감히 괴롭히지 못하였다. 그러자 고을의 하급 관리들도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백성들도 부질없는 부역에 시달리지 않게 되어 칭송이 자자하였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길주목사로 발탁하도록 추천하였다. 그러나 사헌부에서는 급작스런 발탁은 옳지 않다고 반대하여 계급만 승진시키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다가 모친의 상을 당하여 상제를 치르고는 그대로 묘소 아래에 머물다가, 1607년 가을에 다시 예조정랑으로 복관되었다. 복관되고 얼마 안되어 홍주목사로 임명되었다. 그

때 마침 일본과의 통상을 재개하는 외교정책이 결정되었다. 비변사에서는 일본과의 국제교역에 직접으로 관여할 동래부사의 정책을 맡을 책임자로 동약을 추천하였던 것이다.

동래성 사월 보름날

동약이 동래부사로 임용된 것은 충청도 홍주목사로 재임하고 있었던 1607년(선조 40) 12월 21일이었다. 동약은 이듬해 정월 29일 홍주를 출발하여, 다음날 2월 초하루에 대홍에서 홍주목사로 부임하는 신임 목사와 만나 업무를 인계하고 곧장 남하하여, 그달 11일 밀양의 작원관에 도착하여 전임 동래부사였던 이춘원과 만나 업무를 인계받았다. 동래에서 마중나온 아전들과 함께 길을 떠나 2월 15일에 동래부에 도착하였다.

동약은 동래부사 재임시절의 시를 모아 《내산록 萊山錄》이라 하였다. 이 시집에는 동래부사로 임명되어 충청도 홍주를 출발할 때부터 시작하여 그 이듬해 6월 21일 금정산 범어사를 출발하여 양산 통도사를 거쳐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지은 시 276수가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오고 간 노정에서 지은 59수를 제외한 217수는 모두 부산지방에서 지은 시이다. 내산록의 시들은 임진란을 겪은 부산지방의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려준다.

동약이 동래부에 처음 도착하여 본 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년이 되도록 아물지 않고 도처에 남아 있는 전쟁의 상처였다. 동래성에 들어가던 날 지은 시에 보면,

낡은 성문에는 덩굴풀이 어지러이 우거지고
타고 남은 여염집은 무너진 담 뿐이로다.
귀신 모신 사당에는 바람마저 어둡고
저자 거리에 사람없이 참새만 조잘댄다.

성 아래 버려진 해자엔 백골이 쌓여
비 오면 차가운 인불이 황혼에 번뜩인다.

하였다. 또 기장성에 들어가서 지은 시에는,

무너진 성곽 빙 둘러 옛 고을 텅비었고
절레 쑥 말오춤폴 덩굴져 우거졌네.
천년 세월 백대가 지나도 뼈에 사무칠 일
하물며 목전에서 전쟁의 상흔 차마 보랴.

하였다.

임진왜란 전쟁이 나기 전에 동래 부산은 물자가 풍성하고 인물이
번화한 도회지였다. 관청에도 정원루와 적취헌 등의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서 동남지방의 명승지로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전쟁을 겪으면서 관청 건물은 물론 시가지도 모두 불에 타버리고,
사람들은 떠나가 농토마저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던 것이다.

4월 15일은 임진왜란에 동래성이 함락되었던 날이다. 임진왜란에
철저히 파괴된 동래지역의 참상은 동악이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처음 맞은 4월 보름날에 목도한 충격적인 사실을 읊은 사월보름
날[四月十五日] 시에 잘 나타나 있다.

四月十五日	사월 보름 날
平明家家哭	이른 아침 집집마다 곡소리
天地變蕭瑟	천지가 스산하게 변하여
淒風振林木	치량한 바람 숲을 흔드네.
驚怪問老吏	깜짝 놀라 늙은 아전에게 물었네
哭聲何慘怛	“곡 소리 어찌 그리 애달으냐”고.
壬辰海賊至	“임진년 바다 건너 도적떼 와서
是日城陷沒	오늘 성이 함몰되었지요.

惟時宋使君	그 당시 송부사께서는
堅壁守忠節	성문 닫고 충절을 지키며
闔境驅入城	온 고을 사람을 성에 몰아 넣어
同時化爲血	동시에 피로 변하고,
投身積屍底	시신 더미 아래 몸을 던져
千百遺一二	백 명 천 명에 한 둘이 살았습니다.
所以逢是日	그래서 이 날이 되면
設奠哭其死	제물 차려 죽은 이에 곡한답니다.
父或哭其子	혹은 아버지가 아들 곡하고
子或哭其父	혹은 자식이 아비 곡하며
祖或哭其孫	혹은 할아버지 손자 곡하고
孫或哭其祖	혹은 손자가 할배 곡하며
亦有母哭女	또한 어미가 딸을 곡하며
亦有女哭母	또한 딸이 어미 곡하며
亦有婦哭夫	또한 아내가 남편 곡하고
亦有夫哭婦	또한 남편이 아내 곡하며
兄弟與姊妹	형이든 아우든 언니나 동생
有生皆哭之	산 이면 모두가 곡한답니다.”
蹙額聽未終	이마를 지푸리고 듣다 못하여
涕泗忽交頤	눈물이 갑자기 주룩 흐르네.
吏乃前致詞	아전이 나서서 드리는 말씀.
有哭猶未悲	“곡하는 이 그래도 슬프지 않소.
幾多白刃下	시퍼런 칼날 아래 모두 죽어서
擧族無哭者	곡할 자 없는 이 그 얼마겠소?”

1592년(선조 24) 4월 13일 수백 척의 무장한 왜선이 바다 건너 조선을 침략하여 부산의 감만포에 상륙함으로써 시작된 임진왜란은, 당초부터 일본의 무모한 약탈 전쟁이었다. 4월 13일 저녁 무렵 부산진성을 포위한 왜군은 이튿날 중과부적으로 농성하고 있었던 부산진첨사 정발 이하 조선군사들을 무참하게 살육하였고, 곧장

동래성으로 몰려들어 동래읍성을 포위하였다. 동래읍성에는 왜란의 소식을 듣고 놀라 미쳐 피난가지 못한 백성들과 남은 군사들이 동래부사 송상현공의 지휘 아래 모여 성을 고수하였으나, 4월 15일에 감행된 왜적의 살륙은 이렇게 참혹하였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다만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려 무수한 사람들을 살륙하였던 어이없는 침략에 대한 증오심은 부산 동래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터이다. 그러기에 동약은 난후에 새로 복구된 부산성에 올라가 바다 건너 대마도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海中孤島賊咽喉	바닷가 외로운 섬 적의 목구멍,
本是鷄林舊屬州	본디 신라 소속 고을의 하나였네.
忍與通和天共載	어찌 차마 불공대천 원수와 화친하나?
終須伐叛地全收	끝까지 토벌하여 땅을 모두 거둬야지.
擒吳霸越平生計	국가의 모욕을 씻으려는 평생의 결심
舉郢燒陵百代讐	백 대가 지나도록 원한을 갚아야 하리.
杖劍高城向東望	높은 성에 칼 짚고 동쪽을 바라보나
世無人解讀春秋	세상에 춘추를 읽은 사람이 없구나.

임진왜란은 살륙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보전하려고 외국을 침략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던 폭압적 권력자들의 터무니없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난은 평화를 사랑하고 침략을 증오하는 사람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평화를 깨트린 자는 응징되어야 한다. 아무런 까닭없이 남의 나라를 침략한 자는 응징되어야 한다. 침략자가 응징되지 않으면 세상에 정의를 세울 수가 없고, 정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인류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다. 이것이 춘추의 의리이다. 이런 이유로 동약은 동래 사람으로서 임진왜란 때 왜적과 맞서 싸운 이들의 사적을 탐방하여 포상하고, 동래지방에 산재한 임진왜란의 사적을 보존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를 통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바램을 나태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국가의 체통

침략의 원흉이 죽고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일본정부에서는 조선 정부에 대하여 꾸준히 화해와 통상을 요청하여 왔다. 당시 조선 사람들로서는 당초 무모한 살륙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하여 추호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북쪽으로 여진족이 강성하여 국경을 위협하게 되자 조선정부는 일본과의 화해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국제관계의 평화는 백성의 평온한 삶을 보장하는 데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화의가 성립된 것은 1608년(선조 40)의 일이었다. 화의가 성립된 후 이 일을 추진해 온 선조 임금이 승하하고 광해군이 등극하였다. 화의가 성립되자 일본측에서는 승려 현소(玄蘇)를 화해와 통상을 위한 사절로 보내왔다.

현소는 부산항에 도착하여 곧 바로 서울로 들어가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승하한데다가, 전쟁이 끝난지 겨우 10년 만에 적의 사절을 도성으로 맞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백성들의 민심이었고 조정의 여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소는 사절단을 이끌고 서울로 들어가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겼다. 일본국의 사절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조정의 선위사는 하다 못하여 동경인 경주까지 들어와 사절의 의례를 행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조정에서도 이를 허락하였다.

이 때 동악은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 “경주까지 가도록 허락한다면, 이는 이미 저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이니, 끝내 서울로 들어가겠다고 말릴 명분이 없다.”는 요지였다. 한편으로 동악은 역관들을 통하여 일본사절단에 알리기를, “화의를 주관한 것은 선조대왕과 그 때의 재상 유모인데, 국왕이 승하하고 유모도 유배되어 있으니 이 일의 성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현소를 비롯한 일본의 사절들도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수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그들도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므로 결국 일본의 외교사절은 부산에서 영접하는 것으로 낙

착을 보았다.

동약의 임기응변으로 이루어진 일본사절의 부산영접은 이후 대일외교의 관례가 되어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외교사절의 접대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었다. 외교사절이 지나가는 행로마다 관원을 비롯한 수많은 인원과 물자가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때 일본 사절이 경주를 거쳐 서울까지 들어가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경비와 그에 따른 민폐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터이다.

동약은 거기에서 한 술 더 떠 대마도를 거쳐 들어오는 일본 무역선의 척수를 반 이상으로 줄여버렸다. 일본측에서 요구한 한해 무역선의 내왕 척수는 40척이었다. 무역선은 국가에서 공식으로 거래하는 공무역의 물자를 실어왔다. 대마도를 거쳐 들어오는 무역선에 실어온 물자를 조선정부에서 사들이고, 그 값으로 미곡 또는 포목을 내려주는 것이 이른바 공무역이었으나, 실은 저들에게 교역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편의를 보장해 주는 일이었다. 저들로서는 조선무역을 통하여 조선에서 여러가지 상품가치가 되는 물자를 들여가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이었지만, 조선정부로서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국내에 긴급하게 소용될 것이 별로 없고, 오히려 국내의 중요한 물자가 외국에 유출됨으로써 국내 물가가 앙등되고 민폐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동약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교역에 재개되는 시점에 있어서,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일본 사절들로 하여금 더 이상 억지스런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위신을 세울 수 있었다.

만년의 동약

동래부사로 부임한 지 일년 반만에 동약은 동래부사의 직을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듬해 봄에 다시 담양부사로 임명되었다, 그 뒤 금산군수로 임용되었다가 다시 경주부윤으로 부임하는 등 여러 곳의 지방관으로 고을살이를 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청렴하고 공정하다는 칭송을 들었다.

1615년에 비로소 동악은 호조참의를 거쳐 승정원 동부승지, 우부승지 등의 요직에 등용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권신이 정권을 마음대로 자행하여 광해군시대의 어지러운 정치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다. 동악은 정치에 뜻을 잃고 조정에 잘 나가지 않고 거둬서 사직을 청하였다. 조정에서는 명망이 높은 그를 쉽사리 놓아 주지 않고 여러 벼슬을 번갈아 내렸으나, 또한 시기하고 모함하는 이들이 있어 한 직책에 오래 있지 못하였다.

1623년 무렵 압록강변에서 국경문제로 중국과의 마찰이 일어나 중국측에서 감군 전모를 경략사로 파견한다고 통보해왔다. 조정에서는 중국측 경략사를 맞이하여 국경문제를 논의할 접반사로 동악을 지목하였다. 동악은 접반사의 책임을 받들고 평안도 정주로 나가 중국측 경략사를 기다렸는데, 그 해 3월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반정 이후 정부에서는 동악을 예조참판, 호조참판으로 잇달아 임명하였다. 동악은 인조의 반정에 공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목사의 한직을 청하였다가 도리어 새 정부에 이의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진관으로 인조 앞에 나아가 조정의 상벌이 사심에 기울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여, 시류에 이끌리지 않는 강직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 해 겨울 명나라의 장수 모문룡이 군사를 일으켜 청나라의 내침에 저항하고 있었다. 명나라에서 모문룡의 진영에 관원을 보내어 변방정세를 시찰하게 하였다. 그러자 조선 조정에는 또 동악을 사문재진사로 임명하고 접반사 김덕함과 함께 모문룡의 진영이 있는 피도로 들어가 명나라 조사관과 협력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그때 마침 이괄이 영변에서 난을 일으켜 국경의 정세가 복잡하게

되었다. 접반사로 나간 김덕함은 모문룡에게 군사를 청하여 이괄의 군사를 막고자 하였다. 이안눌은 이르기를 “지금 나라에서는 조사관에 대해 사실을 고하고 있는데 홀연 나라 안에서 대장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는 의심을 일으키는 사단이 된다. 조사관은 오래잖아 떠날 터이니 조사관이 떠난 뒤에 출발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여 청병을 만류하였다. 이로써 조선과 명나라, 청나라 사이의 미묘한 외교 알력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악은 마침내 이일로 인하여 북쪽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1627년 청나라 군사가 국경을 침략하자 동악은 유배지에서 풀려나 인조 임금에 피신해 있었던 강화도로 달려갔다. 강화도는 앞서 10년 전 동악이 부사로 재임하면서 여러가지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 놓은 곳이었다. 인조는 그 준비의 치밀함을 보고 칭찬하였고, 다시 강화유수로 임용하고 이어 형조참판으로 발탁하였으며, 이어서 함경도 순찰사로 나갔다. 1632년에는 다시 명나라로 가는 주청사의 부사로 발탁되었다. 당시 청나라의 세력이 날로 비대함에 따라 명나라로 가는 바닷길마저 위태하였다. 동악은 예순이 넘은 나이임에도 어려운 길을 마다 않고 왕명을 받고 뱃길로 명나라에 이르러 외교업무를 완결하고 돌아왔다. 중국에서 돌아와서는 다시 정헌대부 예조판서와 예문관제학을 겸하였으나 사직하고 면천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조정에서 다시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되자 마지 못해 나가 임기를 마치고, 청백리로 선발되어 승정대부의 직급을 받았다. 이 무렵 한성부에서 동악의 효행을 상신하여 정려를 내리게 하였다. 병자년 겨울 청나라 군사가 다시 국경을 쳐들어오자 동악은 노구를 이끌고 인조 임금을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가 군사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고통을 함께 하였으나, 그 길로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이듬해 1637년 3월 29일에 별세하였다.

이와 같이 남쪽으로 일본, 북쪽으로 중국 등 외교문제와 관련된 어려운 일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동악이 있었다. 그런 일을 당하여 동악은 회피하지 않고 진력하여 신중하게 처신함으로써 국가의

위신을 보전하고 외교관계를 원만하게 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고,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성심을 다하였다.

동약은 평소에 이르기를, “대장부가 뜻을 얻으면 한 세상을 경영 할 것이요, 뜻을 잃으면 골짜기에서 낚시질로 보낼 것이지, 어찌 세상의 영화를 바라며 평생을 허비할 것이냐!” 하였다고 한다. 지금 해운대 바닷가에 가면 동약 이안눌이 해운대에서 천년 전 신라의 학사 최치원을 기리며 지은 시를 새겨 놓은 시비가 서 있다.

石臺千尺勢凌雲 석대는 일천 척 높이 구름에 치솟을 듯
下瞰扶桑絕點氛 부상을 굽어보면 티끌 한 점 없는데,
海色連天碧無際 바닷빛 하늘에 이어져 끝없이 푸르고
白鷗飛去背斜曛 흰 갈매기 나는 등뒤로 비끼는 저녁놀.

구름 한 점 없는 해운대에서 갈매기 등뒤로 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이 고장을 거쳐갔던 시인 동약 이안눌을 상상하면서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본다면 시국한탄에 응어리진 가슴을 다소나마 풀 수 있을 것이다. ■ 경성대 교수 정경주



동약 시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15. 조 엄(趙 曠)

조엄(1719~1777)의 자는 명서(明瑞), 호는 영호(永湖), 본관은 풍양이다.

아버지 조상경(1681~1746)은 40년동안 병조판서·이조판서·대사헌을 두루 거치고 사은사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는 명문집안 출신으로 아버지처럼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1738년(영조 14) 생원에 합격하고 문음(門蔭)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는데 1752년(영조 28) 문과에 급제한 후 홍문관·성균관 등 학문기관에 종사하였다. 특히 그는 동래부사·경상도 관찰사·평안도 관찰사 등 외방 요직을 거치면서 구휼·애민

조 엄 영정

정신을 잘 실천한 지방관이었다.

1757년(영조 33) 7월 그는 홍중효의 뒤를 이어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다. 1758년 12월 경상도 관찰사로 승진 발령될 때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동래부사로 재직하였다.

동래부에 내려와 우선 충렬사에 가서 선렬에 대해 참배를 하였다. 그런데 충렬사에는 임진왜란 때 전사한 송상현 부사·정발장군, 함께 싸운 향리·노비까지 배향하고 있으나 다대포 전투에서 전사한 윤홍신 장군은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징비록》, 《재조변방지》와 같은 임진왜란 관련 문헌 및 동래 관련 지리지를 조사하고, 백성들에게 수소문하여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

혀진 윤홍신 장군의 업적을 되살리는데 노력하였다. 그는 <다대포첨사 윤공전망적서 多大浦僉使 尹公戰亡蹟敍>를 지어 다대포 전투의 치열함과 윤홍신 장군 및 백성들의 장렬한 죽음을 알렸다. 또한 조정에 알려 윤홍신장 군을 칭송하고 포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몇년 뒤에 동래부사로 부임하는 강필리 역시 윤홍신 장군을 추모하는 글을 지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1765년 윤홍신 장군을 모시는 '윤공단(尹公壇)'이 세워졌다. 조엄이 없었더라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의로운 한 분이 역사에 잊혀질 뻔하였다.

동래부에 부임하니 천년 고찰인 범어사를 비롯하여 사찰이 많았다. 그런데 승려들이 금정산성을 방어하는 군역에 모두 동원되고, 관청에 바치지 못한 세금이 너무 많아서 사찰은 거의 파탄해진 상황이었다. 이에 승려의 부담을 크게 줄여 주고 잡세는 혁파해 주었다. 이러한 당시 사찰의 어려움과 폐단을 혁파한 그의 치적은 현재 '순상국조공엄 혁거사폐영세불망단 巡相國趙公嚴 革祛寺弊永世不忘壇'이라고 쓰인 비석에 잘 남아 있다. 이 비석은 1808년(순조 8)에 승려들이 세운 것으로 현재 범어사 입구 산 중턱에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조 엄 불망단

부산 금정구
범어사 입구

동래부사는 다른 지방관과는 달리 대일(對日)관계를 담당하였다. 당시 동래부에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와 무역이 이루어지는 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왜관(초량 왜관)은 오늘날 용두산 공원 주변에 있었다. 동래부사는 일본사절이 오면 이들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관리이며, 외교교섭을 하는 외교관이며, 조선인과 일본인의 불법적인 무역, 접촉, 기밀누설 등을 막는 치안 책임자였

다. 이 외에도 왜관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으므로 동래 부사는 대일관련 업무로 늘 분주하였다.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징계를 받는 일이 많았다. 그는 징계를 받지 않고 훌륭히 동래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오히려 대일관계로 발생하는 부산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부담과 폐해를 많이 시정하였다.

왜관에서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국제무역이 이루어졌다. 양국 상인들간의 무역 외에 국가 차원에서 정액·정량으로 거래하는 공무역이 있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4대 공무역품은 동(銅)·납(鐵)·물소 뿔·단목(丹木)이었다. 이 물품들을 수입하고 조선에서 지불하는 것은 목면이었다. 이때 사용된 목면은 공무역용이라고 하여 공목(公木)이라 하였다. 그런데 17세기 중엽 이후 일본에서도 목면이 생산되고, 공목을 받아가는 대마도에서는 식량이 부족하여 1651년부터 공목의 일부를 쌀로 바꾸어 줬다. 나머지 공무역값은 목면으로 계속 지불하였다. 농민들은 애써 목면을 짜거나 구입하여 관청에 바치면, 관청에서 이것을 모아서 일본인에게 지불하였다. 그런데 목면의 질이 예전과 같지 않고 품질이 크게 떨어져 일본인들은 규격에 맞지 않는 목면이라고 하여 번번히 받기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농민들은 다시 짜거나 비싼 값으로 좋은 목면을 구입해야 했다.

그래서 목면을 거두는 대신 목면 1필을 2냥 3전으로 환산하여 백성들이 돈으로 바치게 하였다. 일본인에게는 돈을 거두어 그들이 원하는 물품을 관청에서 구입해서 주니 일본인들도 품질이 좋지 않는 목면을 받는 부담감이 없어 좋았다. 농민들은 목면이 반환되어 오면 다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고통이 없어졌으니 크게 기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조엄 앞의 동래부사였던 홍중효는 조정으로 돌아가서 일본과의 관계로 가지게 되는 이 지역 백성들의 부담을 국왕에게 말하였다. 국왕의 허락을 받고 당시 동래부사인 조엄과 상의하였는데, 그 결과 백성들은 동래부에서 빌려간 1만여 냥의 빚을 탕감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그가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을 때 예물로 일본에 보

내는 예단삼[山蔘]의 품질이 나빠져 양국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었다. 그는 호조판서와 의논하여 예단삼을 관리하는 체계를 바꾸어 불신에 가득찬 일본인의 인식을 바꾸어 놓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산삼 대신 조삼(도라지에 산삼껍질을 붙여 만든 산삼)이 동래 지역에 크게 나돌게 되자 조삼을 만든 자를 찾아내고 죄를 엄격하게 물었다. 또 일본인들과 산삼을 밀무역한 조선인들을 사형에 처하는 등 변방지역의 해이해진 분위기를 크게 개선하였다.

조업은 동래부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이후 경상도 전지역을 관할하는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파격적인 승진을 명받아 1759년 1월부터 1760년 12월까지 2년동안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우선 관찰사가 되어 경상도의 오랜 고심거리였던 조운(漕運)의 폐단을 시정하였다. 국가에 바쳐야할 세곡은 마땅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운선으로 운송해야 했다. 하지만 조운선이 부족해지고 선운업(船運業)이 전문 영업분야로 바뀌면서 민간 선운업이 발달하였다. 이에 경강상인을 중심으로 한 사선(私船) 운송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18세기 중엽부터 사선에 의한 세곡 운송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임을 턱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고의로 세곡을 물에 빠뜨려 무게를 늘이거나 하는 등의 비리가 많았다. 영조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조운선과 조운선의 선원들을 확보하고 조운선을 재가동하였는데 그 대상지역을 충청도·전라도로 국한하였다. 경상도는 여전히 경강상인의 배를 이용하였는데 경강상인은 기한을 넘기거나 과적을 일삼았고 게다가 높은 운임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업은 1760년 전라도 조창의 사례를 본받아 창원에 마산창, 진주에 가산창을 설치하여 경상도 지역도 조운선의 혜택을 보도록 하였다. 각 창마다 조운선 20척을 확보하여 인근 여러 읍의 세곡을 운송하였다. 1765년에는 밀양 삼랑창까지 더해져 경상도 남부 지방 20개 고을이 조운 영역에 포함되었다. 그

리하여 경상도의 백성들은 세금 외에 따로 운임가를 내어 세곡을 수송하던 폐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경강상인들의 농간으로 중간에서 없어지던 세곡이 온존하게 서울까지 운송되었으니 국가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치적은 노비에게까지 미쳤는데 도내 관청에 속한 노비 만여명의 노비신공(奴婢身貢)을 건감시켜 그 불만을 가라앉혔다.

경상도 관찰사로 업적을 남긴 그는 1760년(영조 36) 12월에 부제학을 임명받아 중앙 정계에 복귀하였다. 이후 이조참의, 승지, 부제학, 대사간 등을 두루 거치면서 국왕의 측근에서 학문과 정책을 보좌하였다.

1763년(영조 39) 7월에 조엄은 일본으로 파견되는 국왕사절인 통신사의 정사로 임명받았다. 함께 임명받은 통신사 부사는 이인배, 종사관은 김상익이었다. 1년 전부터 통신사의 구성원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당초 통신사 정사는 정상순이었다. 그런데 정상순이 죄를 받아 김해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통신사 출발 얼마 전에 정사·부사·종사관을 모두 바꾸는 돌발적인 인사가 단행되고, 조엄이 임명되었다. 이것은 그가 동래부사,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일본 사정에 밝았고, 일본과 관련된 일처리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그 해 8월 영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였다. 영조는 통신사 세 사람에게 호왕호래(好往好來 : 잘 가서 잘 돌아오라)라는 글을 직접 써서 내려 주었다. 부산에 내려온 후 그는 동래부사·경상도 관찰사 시절의 옛 부하와 인근 고을 지방관들의 배웅을 받았다. 10월 6일 부산을 출발하여 그날 저녁 대마도 사스우라(佐須浦)에 도착하였다.

그는 대마도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식물을 보았다. 그의 통신사 기행문인 《해사일기》에 따르면 ‘이 섬에 먹을 수 있는 풀뿌리가 있는데 감저(甘藷) 또는 효자마(孝子麻)라 불린다. 왜음

으로 고귀위마(古貴爲麻)라고 하는 이것은 생김새가 산약과 같고 무뿌리와 같으며 오이나 토란과도 같아 ... 그것은 생으로 먹을 수 있고 구워서 먹을 수도, 삶아서도 먹을 수 있다. 떡을 만들거나 밥에 섞든지, 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가히 흉년을 지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라고 하였다. 사스우라에 도착하여 고구마를 본 후 종자(種子) 몇 말을 구하고 바로 부산진으로 보내 심도록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고구마 종자를 구해와서 동래 아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재배하도록 하였다. 종자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심는 법, 재배법, 저장법까지 함께 배워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고구마를 조저(趙藷 : 조엄이 가져온 감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고구마의 넝쿨이 잘 자라면 대마도와 토양이 비슷한 제주도 와 여러 섬에도 함께 재배하여 섬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고구마의 재배가 고려 말 문익점이 목면을 퍼뜨린 것처럼 우리 백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애민정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교토(京都)에 도착하기 전 요도우라(淀浦)라는 곳을 지나다가 수차(水車) 두 대를 보았다. 그는 함께 간 허규·변박에게 그 제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수차를 이용하면 논에 물대기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또한 배를 가로로 이어 만든 배다리(舟橋)를 보고 우리나라 서남해안 제언(堤堰)에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 외에도 대마도와 일본 지도를 구해 베껴오도록 하였고, 당시 국내에서 오류가 많은 채로 사용하던 일본어를 역관들로 하여금 일본에서 배워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본 과학을 이국 문물을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실천하였다. 그의 이러한 실천적인 정신이 후세의 큰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1764년(영조 40) 6월 부산에 도착하였는데,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통신사에게 벼슬이 내려졌다. 조엄은 대사간, 이인배는 헌납, 김상익은 지평이었다. 이후 그는 한성부 우윤·도승지·공조참판·형조참판·예조참판·대사헌·이조참판·이조판서 등의 요직을 지냈다. 1768년(영조 44)에는 재해를 당한 밭에 대해 감세 비율을 적용하여 백성들의 토지세 부담을 줄여 주기도 하였다.

1770년(영조 46) 홍문관 제학으로 있을 때 영의정 김치인의 천거로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평안도 감영에서 지방민들에게 오랫동안 받지 못하였던 공채(公債) 30여 만냥을 일시에 징수하여 관청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하지만 지방민을 탐학하였다는 정언 송취행의 모함을 받아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조판서로 복직되었으나 곧 사퇴하였다. 1766년 정조 즉위에 이르러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지만 홍국영의 무고를 받아 평안도로 유배되었다. 아들 진관의 호소에 의해 죽음을 면하고 김해로 옮겼으나 이듬해 병사하였다. 사람됨이 강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한 것이면 끝까지 고집하므로 세상에서 조고집이라 불렸다. 이후 좌이정 김이소, 평안도 안핵어사 이상황의 노력으로 신원되고 1814년(순조 14)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그의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한 평생 홍문관과 같은 학문기관에서 국왕의 학문을 보좌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의 묘소는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에 있다.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풍양조씨 회양공파 종중에서 묘역을 보호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봉분 앞에는 제사음식을 차릴 수 있는 상석, 동물석 2기, 묘비가 세워져 있다. 묘비의 글은 손자인 조만영이 쓴 것이다. 이곳에서 100m 떨어진 묘소 진입로 쪽에 1835년에 세워진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신도비는 손자인 만영과 인영에게 부탁을 받은 남공철이 글을 짓고 김이재가 글을 썼으며 신도비의 전서는 김재창이 썼다.

그의 저서로는 통신사로 파견되었을 때 쓴 일기체 기행문인 《해사일기 海槎日記》, 풍양 조씨 가계를 정리한 《풍양조씨세록

《豐壤趙氏世錄》이 있다. 또한 선조인 조종경(趙宗敬)의 《독암유고獨菴遺稿》를 중간(重刊)하였다.

그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장남은 진관, 차남은 진의이다. 진관은 만영, 원영, 인영 3남을 둔다. 신정왕후의 아버지로 풍은 부원군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의 장손인 조만영이다. 신정왕후는 24대 임금 헌종을 낳은 분으로 순조의 장남 효명세자(익종으로 추존)의 부인이며 흔히 조대비라고 불리운다. 그의 집안은 왕의 외척으로 19세기 최고의 세도가문으로 자리한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양흥숙



조 엄 묘역

강원도 원주시

16. 강필리(姜必履)

강필리(1713~1767)는 자는 석여(錫汝), 호는 경독자(耕讀子)·독립정(獨立亭), 본관은 진주, 전라도 강진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진사인 전(櫓)이며 어머니는 윤육의 따님이다. 1741년 생원이 되고 1747년(영조 23)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정5품 사헌부 지평의 자리에 있으면서 관리들의 감찰과 언론을 주도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도세자가 영조를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할 때에 세자의 신임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의 성품이 강직하고 사도세자를 옹호하다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곧 복직되었다. 문과 급제자와 기존 관리 가운데 학문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홍문관 관리로 임명하는데 그 기초자료가 도당록이다. 복직과 아울러 도당록에 오르고 이어 홍문관 교리로 역할한다. 궁중 서적의 관리·출판, 교지 및 문서작성, 경연 참여 등 학문에 관한 업무와 왕의 자문 역할도 아울러 맡았다.

지방에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해지자 탐관오리를 밝혀내어 민생을 안정시키는 어사로도 활약하였다. 1762년 7월 서울 남쪽의 요충지인 남양부의 어사가 되었다. 그곳 부사가 악형을 일삼아 백성들이 흩어지고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지만 기우제를 핑계로 오히려 나쁜 짓을 일삼은 것을 밝혀냈다. 그는 남양의 굶는 백성들이 끼니로 먹는 해초(海草)를 영조에게 바쳐 그곳의 어려운 사정을 자세히 알리고 탐관오리를 고발하였다. 영조는 이를 애석하게 여기고 당시 남양부사 김치귀를 잡아오도록 명하였다.

그 해 11월 다시 강화도에 흉년이 들어 수백의 백성들이 호소하자 영조는 강필리를 강화순심어사로 파견하였다. 흉년이 들어 강화도의 땅이 모두 붉게 변해 있었다. 백성들은 끼니조차 거르는

상황이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다. 특히 농민들은 봄에 곡식을 빌렸다가 가을에 수확을 마치고 환곡을 관아에 갚아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다. 강필리는 백성들이 아직 바치지 못한 환곡 가운데 절반을 탕감해 주도록 조정에 요청하고 그것이 그대로 성사되었다.

남양과 강화도에서 백성을 구하고, 탐관오리를 밝혀낸 후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다. 그 해 12월 정3품 호조참의가 되어 국가의 재정에 몰두하게 된다. 1763년 봄,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승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다시 외직으로 나가 왕을 대신하여 백성을 보살피는 지방관이 되었다. 2개월 남짓 순천부사를 지내다가 1764년(영조 40) 8월에 병으로 사직한 송문재(宋文載)를 이어 동래부에 부임하였다. 1766년 11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동래부사를 역임하였다.

우선 임진왜란의 첫 격전지였던 동래·부산지역을 돌아보고 송상현·정발 장군과는 달리 다대포첨사 윤홍신 장군이 다대포 전투에서 세운 공(功)이 밝혀지지 않음을 애석하게 여기었다. 몇 년전 동래부사였던 조엄처럼 윤홍신 장군의 전공이 세상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을 안타까워 하였다. 이에 〈윤공사절기 尹公死節記〉를 짓고 또한 윤홍신, 유생 문덕검·양조한 등을 기리어 우선 송공단(宋公壇)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 후 정공단, 윤공단이 조성되면서 동래성에서 순절하지 않은 분들은 각각 제자리를 찾아 제사지내게 되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일본군에 항전한 원혼을 달래고, 백성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래부사는 여느 지방관과는 달리 일본과 관련된 업무가 있었다. 조선과 일본의 외교와 무역이 이루어지는 왜관이 동래부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왜관(초량왜관)은 오늘날 용두산공

원 주변에 있었다. 동래부사는 일본사절이 왜관에 도착하면 접대는 물론이고 외교교섭을 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불법적인 무역, 접촉, 기밀누설 등을 막아야 하는 등 일본과 관련된 일이 많았다.

특히 동래부사로 재임하던 1766년에 문위행으로 파견된 사절의 배가 침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문위행은 역관을 정사로 하여 대마도에 파견되던 사절이었다. 부산포를 떠나 대마도에 닿기 직전에 동풍이 갑자기 불어 40~50명이 수장되었다. 수십명이 죽는 변고였으므로 사건을 해결하러 오는 사절, 조문하러 오는 사절 등 부산에 일본인의 도항이 증가하였다. 사절 규례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관계없이 조선에 오는 일본 사절이 급증하여 이를 어떻게 접대해야할지, 또한 사절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즉 왜료(倭料)가 부족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묻는 강필리의 장계가 조정에 도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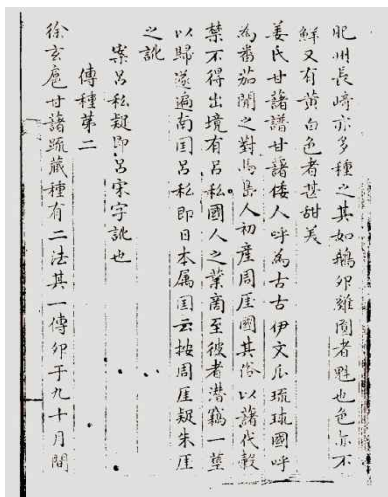
또한 왜관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국제무역시장이 열렸다. 개시(開市)라고 하는데 조선인은 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동래상인이 참여하였다. 관청에서는 이들에게 무역을 허락하고 무역세를 거두었다. 관청의 허가없이 일본인과 무역을 하면 밀수죄로 사형을 당하였다. 그가 부임하여 개시를 살펴보니 호조에서 파견된 세금을 거두는 관리가 유명무실해져 지출은 늘어가는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너무나 적었다. 그는 이런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고자 동래부에서 직접 무역세를 전담하여 거두어 들여 세금에 대해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하였다. 그래서 거둔 세금을 호조에도 보내고 나머지는 동래부 재정으로 사용하여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미 앞서 호조참의를 지낸 경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런데 그는 동래부로 부임하였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식물을 보았다. ‘고구마’라고 불리던 것이었다. 이 식물은 두 달

전에 일본에서 돌아온 통신사가 대마도에서 가져와 동래에 두고 간 것이었다.

흥년이 들면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잘 아는 그는 고구마를 보고 백성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구황작물로 생각했다. 어렵게 구해온 고구마 종자가 사라지기라도 한다면 큰일 날 일이었다. 그리하여 고구마 재배에 몰두하게 되고 그 과정을 《감저보》라는 책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이 책은 조선후기 여러 문헌에

인용되고 있는 《강씨감저보》를 가리킨다. 《감저보》는 우리나라 최초로 고구마 재배법과 이용법을 기술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유중림(柳重臨)의 《증보산림경제》 권1 치농(治農)에 부록된 〈감저종식법 甘藷種植法〉이 《감저보》의 내용이라는 견해가 있다. 〈감저종식법〉은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책 뒷면에는 장화홍련전이 쓰여 있고 앞면에 감저종식법이 적혀있다. 이 기록에 감저는 일명 주저(朱藷)·번저(蕃藷)·주모(朱暮)·홍산약(紅山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적우(赤芋)라고 한다고 하였다. 모두 고구마의 붉은 색깔과 토란, 마와 같은 생김새를 본떠 이름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유구우(琉球芋, 오키나와 토란), 장기우(長崎芋, 나가사키 토란) 등의 속칭도 가지고 있는데 오키나와에서는 번여(蕃茹)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번여는 아마도 고구마의 덩굴이 엉킨 모습을 본떠 이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에는 고구마의 생김새는 물론 맛·재배환경·토질·수확량·경작법·



종저보 서유구의 종저보에 인용된 강필리의 감저보 기사

종자보관법·경작의 장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813년에 편찬된 김장순의 《감저신보》에는 강필리를 고구마의 시조라 하였다. 또한 서유구의 《종저보 (1834년)》에는 1765년(영조 41) 을유년(乙酉年)에 고구마가 전래되었다는 기록하고, 아울러 강필리가 일본으로부터 구입한 씨고구마를 동래부에 심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참봉집 李參奉集》 1805년에 동래부사 강필리가 고구마 재배에 관심을 가져서 을유년에 씨고구마를 보냈다고 기록하였다. 이를 미루어 《감저보》는 1766년경에 강필리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는 동래부사로 있으면서 고구마 재배를 장려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저술을 통해 그 재배법을 일반 백성에게 지도·보급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조선의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먹거리를 찾아 유랑하는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동래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다. 부산의 자랑거리인 동래온천을 대대적으로 수리·개축하였다. 앞서 1691년(숙종 17)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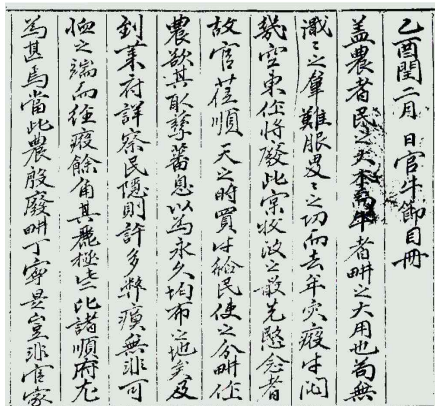
온정개건비 동래 온천을 크게 확충, 수리하여 백성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

세워진 온천과 부속 건물을 1766년(영조 42)에 크게 증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온정개건비(溫井改建碑)를 세웠다. 동래온천은 이미 신라 때부터 많은 왕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녀간 곳으로 유명했지만 그가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을 때는 10여명 정도가 목욕할 수 있는 작은 규모였다. 크게 증축하여 돌로 만든 두 개의 탕과 아홉 칸의 목욕탕 보조건물을 짓고 남녀의 구분을 두었다. 이후에도 증축이 계속 되고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크게

확장되었다.

현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온천장 목욕탕 거리 안에 있는 온정 개건비는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비에는 ‘공(강필리)께서 고을을 다스리니 백성들이 힘입어 살게 되고 공께서 온정(온천)을 수리하니 사람들의 질병이 없어졌다. 천만년이 되도록 입으로 또 비석으로 전하리라’고 쓰여져 있다.

그 외에도 동래부 백성들을 위해 한 일은 많다. 1764년 동래부에는 돌림병이 돌아 농사짓는 소가 많이 죽었다. 전답을 갈아야 할 소가 없어서 봄 농사를 거의 못하게 되었다. 그는 부족한 동래부의 재정을 쪼개어 농우 70마리를 구입하고 관내 소 없는 마을에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다. 또한 이 소들을 잘 사육하여 송아지를 생산하



관우절목책

동래부사 재임시 관청에서 농사 짓는 소를 마련하여 농사를 일으키도록 한 일을 기록한 책

게 함으로써 소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였다. 관아에서 소를 구입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그가 순천부사일 때에도 행한 일이었다. 그가 순천부사일 때 직접 자신의 녹봉으로 32마리의 소를 구입하여 농가에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조현범은 순천지역의 역사·풍류·학문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엮은 《강남악부 1784년》에서 〈사팔우(소 32마리)〉라는 글을 지어 강필리의 애민정신을 기리고 있다. 오로지 백성의 근심을 보살피고 농사를 권장하는 뜻을 잘 엿볼 수 있다.

그가 2년 3개월의 동래부사 업무를 마치고 교체되는데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동래부사는 40% 정도가 징계에

의해 교체되는데 징계에 관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다. ‘사체(辭遞)’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사직을 청하여 교체되었을 것이다.

동래부사의 명단을 보면 강필리를 위해 백성들이 생사비(生祠碑)를 세웠다고 하였다. 생사비, 생사당 등은 해당 지역 수령의 업적을 기념한다는 뜻에서 흔히 보는 선정비와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당, 사비는 죽은 이를 위해 세운 것으로 생사비·생사당은 기념하는 이가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남양어사·강화순심어사 때부터 애민정신을 잘 실천하였다. 특히 동래부사가 되어 흉년이 닥쳐도 백성들이 소나무 껍질 대신 고구마를 먹을 수 있게 하고, 병 치료를 위해 온천에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술선수범하여 농우를 관에서 구입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행적은 백성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아 백성 스스로가 생사비를 세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목민심서》에 생사당이 늘어남으로써 백성들에게 미신이 만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실제 19세기에는 생사당이 없는 고을이 없을 정도로 유행되었다고 한다.

그는 동래부사에서 물러나 조정으로 돌아왔는데 이듬해 바로 동부승지가 되어 다시 영조의 곁에서 왕명을 출납하고 자문역할을 하였다. 그는 승승장구 관직생활을 하는데 1767년 대사간으로 임명되었다.

대사간은 사간원의 최고직이다. 사간원은 관리의 임명, 법령의 개폐 등 국왕의 시정을 비판하는 기관이다. 또한 젊고 강직한 신하를 사간원에 두어 여론을 수합하고, 공론화하는 등 언론을 전담하였다. 사간원,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는 사헌부, 그리고 국왕의 정치 및 학술고문과 교지작성을 맡은 홍문관에는 가장 우수한 신하를 임명하였다.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은 정사를 비판하는 임무를 함께 맡았으므로 언론 3사라고 불리었다. 3사의 관원은 벼슬

등급은 높지 않았으나 학문이 높은 엘리트층으로 구성되었다. 3사의 관원들은 때로는 합동으로 상소를 제출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반대하는 기풍이 있었다. 그들은 일반 국정은 물론 왕의 사생활까지 서슴없이 비판하여 왕비와 왕의 종친 및 외척의 생사를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연산군은 사간원을 철폐시킨 일도 있었다.

이러한 사간원의 수장인 대사간이 된다는 것은 학문과 경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그는 홍문관, 승정원, 사간원 등에서 관직생활을 하며 국왕의 눈과 귀가 되고 또한 줄곧 국왕의 정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였다. 외직으로 나오게 되면 오직 백성만을 생각하는 훌륭한 목민관이었다.

그의 저서로는 《감저보》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순천부사 시절에 임금에 대한 충성을 노래한 〈연궐사 戀闕詞〉와 〈강남요 江南謠〉라는 작품이 남아 있다. 묘소는 신림리 낙골(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었으나 1972년 시흥시 정왕동으로 이장하였다. 최근 시흥시 도시계획에 따라 다시 이장되었다.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양흥숙

17. 정현덕(鄭顯德)

정현덕(鄭顯德)은 동래(東萊) 사람으로 1810년(순조 10)에 태어나 1883년(고종 20)까지 살다 간 사람이다. 자는 백순(伯純)이고, 호는 우전(雨田) 또는 해소(海所)라 했다. 1850년(철종 1) 그의 나이 40세 때 증광문과(增廣文科)의 병과(丙科)로 급제했다.

1862년에는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대원군(大院君)이 집권하고부터는 그의 심복으로서 1867년(고종 4)에 동래부사(東萊府使)에 임명 되었다. 그 후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역임하면서 배일(排日)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얼마 안 있어 대원군이 실각하고부터는 파면되어 야인으로 소일하고 있었으나 1882년(고종 19) 6월에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되자 형조참판(刑曹參判)으로 기용되었으나 대원군이 물러나자 원악도(遠惡島=서울에서 거리가 멀고 도살기가 어려운 섬)로 유배되어 그 곳에서 사사되었다.

정현덕이 동래부사로 부임한 때는 1867년(고종 4) 6월이었다. 1867년 9월 임기가 다 되어도 그만 두지 않고 계속하여 1869년(고종 6) 12월까지 잉임(仍任=갈릴 기한이 된 관리를 그대로 두는 것)하게 되어 1874년(고종 11) 정월까지 동래지방에서 선정을 베풀다가 승지(承旨)로 임명되어 임지로 떠날 때 도감(都監) 문규형(文奎滢)에 의해 부사 정공현덕 흥학비(府使鄭公顯德興學碑)가 세워졌다.

지금 이 비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221번지에 있는데 건립 연대는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5갑술(甲戌=1874년, 고종 11)이다. 비의 형태는 갓이 없고 윗부분은 둥글고 대는 있다. 글씨는 해서(楷書)로 세로로 쓰고 건립의 간기가 명기되어 있다.

근래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국역추호유고 秋湖遺稿》에

의하면 추호(秋湖) 박필채(朴苾彩 ; 1841 ~ 1925)가 쓴 ‘무진년 동각 해소 정현덕의 신년 시에 화답하여 (奉和東閣鄭顯德海所新年韻 戊辰)’에 의하면 정부사가 동래에 와서 1년도 채 못되었는데도 지방 선비와의 교류가 대단히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금당의 화기가 새해에 풍기더니,
갓옷에 띠를 띠고 소요하며 변방을 진압하네.
충성스런 마음 북극성에 길이 걸렸고
은혜와 위엄 멀리 동녘 하늘에 미치네.

琴堂和氣動新年 裘帶逍遙坐鎮邊
誠憫長懸星北極 恩威遠暨日東天

이웃나라와 교류하는 도리로 남은 세곡 없고,
관청의 맑은 바람 돈이 들지 아니하네.
남방에는 지금부터 아무 일도 없을 터라
강촌과 산촌 사람 모두 봄잠이 편안하네.

隣邦交道無遺糶 官閣清風不用錢
南土從今無一事 水村山郭穩春眠

이 시를 통해서 보면 정현덕 부사의 행정력을 잘 살필 수 있다. 정 부사가 동래에 부임하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찬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선정의 모습과 교학의 진흥을 잘 알게 한다.

정현덕 부사가 동래에서 전후 한 7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그가 남겨 놓은 공적은 변방의 수자리의 정리, 세제의 변혁, 서민들의 부역감면 같은 것이 많이 있으나 더욱이 그가 베푼 풍교

(風教=교육과 정치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시키다)는 동래 인심을 바꿔 놓을 정도였다. 그것은 추호(秋湖)의 이 긴 시제(詩題)에서 입증이 된다.

상원절 밤에 홀로 앉아 당을 지키다가 53년 전 이날 밤에 해소정사군과 해산 강상사를 모시고 광제교에서 달을 감상하던 시가 생각나서 그 때의 경치를 서술하면서 가슴속의 감개무량한 회포를 푼다. 그 때 정부사는 부임한 날짜가 일천하였다.

上元夜獨坐守堂 思到五十三年前此夜 陪鄭使君海所姜上舍海山
賞月于廣濟橋詩 遂以其時景色述之 遣諸胸中感慨之懷 此時鄭
侯蒞任日淺

이 시제에 담겨 있는 것은 친한 벗과 헤어지고 53년이 지난 정월 대보름날 밤 달을 완상하며 옛 추억이 되어 버린 해소(海所) 정현덕(鄭顯德)을 사모하여 지은 것이다. 추호(秋湖)가 벼슬살이 온 해소와 지음(知音)의 사이로 고우가 되어 흘러 간 시간 속에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해소가 동래 땅 부사로서 그 소임을 다했을 뿐 아니라 지난날 그가 이 고장에 남긴 자취가 대단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제 이 긴 시제가 붙은 시를 감상해 보자.

벼슬 없는 몸으로 쓸쓸하게 변방에 있는데
다행히도 황하 맑아 태평성대를 만났네.
도소술을 마시는 것은 옛 풍속 따름이요
악부에 올린 시는 새 곡조가 있네.
서리 겪은 대나무는 아마도 털이 없고
물 가까이 매화는 정을 이기지 못하네.
사람마다 불러다 다리 위를 보게 하려니
곱디고운 달빛이 그림다리에 비꼈네.

다시 기쁜 것은 이 고을 봄은 다리가 있어
강촌이나 산촌이나 태평시대 즐기네.

* 도소술 - 약초를 술에 넣어 두었다가 연초에 마시는데 이것을
마시면 '일년 내내 병이 나지 않는다.'라고 함.

白身簫散在邊城 何幸河清遇聖明
酒飲屠蘇循古俗 詩登樂府有新聲
經霜竹樹應無恙 近水梅花不清情
欲喚人人橋上看 嬋娟月色畫橋橫
重喜茲州春有脚 水村山郭樂昇平



금정산

부산 금정구

광제교는 지금 미남 로터리 근처 동래천에 걸쳐 있던 다리다.
지금은 교통으로 그 자취조차 헤아리기 어려우나 50년 전만 해도
금정산에서 내려오는 세병천(洗兵川)의 물이 맑고 연어 떼가 무리를
지어 헤엄칠 때라서 광제교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며
즐거웠다. 해소(海所)가 이곳에 부임하여 정사를 잘 돌보아 백성들의
인심이 훈훈하고 시절이 좋아서 동래지방에는 격양가(擊壤歌=풍년이
들어 농부들이 부르는 태평성대의 노래)가 사통오달(四通五達=
교통이 잘 뚫려 있는 길)에 불려진 것 같다.

정현덕이 동래 부사로 있으면서 동래 땅을 추로지향(鄒魯之鄉

=공자 맹자의 고향)으로 만들려고 애썼으며 집집마다 비옥가봉(比屋可封=집집마다 충신·효자·열녀가 나서 포상 하는 것)의 가풍을 유전시켜 순후한 고장을 만들려 했다. 그래서 태평원(太平園), 금강원시비(金剛園詩碑)를 남겼다.

이 두 편의 시는 1868년(고종 5)에 세워진 것인데 태평원시비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246번지에 있다. 일찍이 정 부사가 만년대(萬年臺)에 올라서 요순(堯舜) 같은 태평성대를 노래 불렀고, 금강원시비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0-12번지에 있는데 금강공원 안 독진대아문(獨鎭大衙門)이 있는 뒤쪽에 있다.

태평교 다리 아래 태평원 뜨락에는
정월의 풀과 꽃 날로 무성하여라.
돌 위엔 큰 글자 셋 새로이 새기었고,
길 가에 한 지방 얘기 많이도 듣는다네.
큰 일 있어도 변방을 괴롭히지 않아
밭갈이 농사꾼도 임금 은혜 모두 아네.
촌 늙은이 살펴보니 머리는 눈 같은데
떨어진 들매 주워 손자 아이 희롱한다.

太平橋下太平園 園艸園花日以繁
石上新題三大字 路傍多得一方言
征輪不作邊城苦 耕稼皆知聖主恩
督見村翁頭似雪 野常榆落戲兒孫
(以下省略)

정묘년에 내가 동으로 오니
이 고을 백성과 물자 번성하구나.
주민은 모두 태평시절 즐기니
늙은 몸 자리만 지켜 공적은 없다.

붉은 연밥 정자에 달을 노래하고
 푸른 버들 성곽에 술집 깃발 날리우네.
 계림의 옛 이야기 의연히 있는데
 만파식저는 한 피리 속에 들린다.

丁卯三年我馬東 此邦民物見繁雄
 居人盡有昇平樂 老殊珠無捍蔽功
 紅藕池臺歌扇月 綠揚城郭酒旗風
 鷄林故事依然在 萬萬波波一簾中
 (以下省略)

앞의 시는 동래 도호부가 있었던 태평원과 만년대를 중심으로 그 서경(敍景)을 노래했다. 이때 동래에는 의창(義倉=흉년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비상미 저축창고)을 세우고 전국에 당백전(當百錢=한 푼이 엮진 백 푼과 맞먹던 돈, 조선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할 때 있었던 화폐)의 통용을 명령했다. 임금은 경복궁(景福宮)을 완성하여 이주하게 되니 정 부사로서는 대원군의 후광을 크게 입고 있는 터라 변방에 와도 그의 공적은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뒤의 시는 그가 동래로 부임하던 1867년(고종 4), 이 해가 정묘년(丁卯年)이다. 국가에서는 근정전(勤政殿), 경회루(慶會樓)가 완성되어 대원군으로서는 기쁨이 대단할 때다. 정 부사는 동래에서 지내는 이 시기가 자신에 있어서는 최대의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이다. 이 시 끝 구절에 ‘임금 은혜 갚지 못한 채 몸은 헛되이 늙고, 옥저와 매화꽃에 또 봄을 보내네. (君恩未報身空老 玉蕊梅花又送春)이라.’ 했으니, 그의 화려했던 벼슬살이의 기쁨을 헤아릴 수 있다.

정현덕은 매천(梅泉) 황현(黃玹)과 더불어 근세팔가(近世八家)에 속한다. 그는 동래 땅에 있는 동안 문인의 향취를 크게 발휘하였다. 한시는 말할 것 없고, 한글 가사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우리 부산은 국문학의 불모의 땅이다. 그러나 정과정곡(鄭瓜亭曲) 이후 정

현덕의 봉래별곡(蓬萊別曲)이 있어 자랑거리가 된다.

이 봉래별곡은 임진왜란을 회고하면서 금정산성(金井山城)에서 절영도(絶影島) 봉래산(蓬萊山)까지의 유적지(遺迹地)를 돌아보면서 그 감회



봉래산

부산 영도구

를 가사(歌辭)형식으로 노래 불렀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모르지기 이 가사를 외울 정도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부산 정신의 발굴과 향토 사랑의 진작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봉래별곡(別曲)

봉래산(蓬萊山) 옛말 듣고, 예 와 보니 지척이라
동해수(東海水) 청명(淸明)한데 노중련(魯仲連)이 간 곳 없다.
서불(徐市)의 채약주(採藥舟) 동남동녀(童男童女) 못 보아라
안기생(安期生) 적송자(赤松子)는 백운 심쳐 자취 없다.
신선(神仙)말이 황당하니 다 후려더터 두고
소견을 말을 내니 별곡(別曲)이 되엿도다.

① 노중련 : 중국전국시대의 웅변가. 만년에 신선이 되어 바다에서 살았다. ② 서불 : 진시황의 사자로서 3,000 동자를 이끌고 삼신산에 불로초를 구하러 갔다 돌아오지 못했다. ③ 안기생 :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다는 옛날 중국의 신선 ④ 적송자 : 중국의 신선의 이름.

이것은 서불이다. 동래는 예로 신선의 고장으로서 그 이름과 같이 동해수는 청명하고 산수가 수려하니 여러 신선들이 약초를 얻으러 바다로 오고, 안기생, 적송자 같은 선자들은 백운심처로 숨었는가. 따지고 보면 정현덕이 자신을 바로 신선으로 생각한 것이다.

장부기개 못 이겨서 다유(多遊)하여 살펴보니
 금정산성(金井山城) 대배포(大排布)에
 범어사(梵魚寺)가 더욱 좋다.
 소하정(蘇蝦亭) 들어가니 처사는 간데없고,
 유선대(遊仙臺)에 올라가니 도사는 어데 간고,
 온정약수(溫井藥水) 신호하니 병인 치료 근심 없다.
 배산(盃山)이 안산(案山)되고 수구막이 되엿도다.
 정원루(靖遠樓) 바라보니 노(盧)교수 어대옌고
 안락서원(安樂書院) 들어가니 충신열사 기록하다.

① 소하정 : 소정마을에 있었던 정자인데 선인 소하가 흰 사슴을 타고 놀았다는 정자. ② 배산 : 망미동의 뒷산. 과정(瓜亭) 정서(鄭敼)가 개성(開城)을 바라보며 의종(毅宗)에게 술잔을 바쳤다는 전설에서 이른다. ③정원루 : 동래 부사청 곁에 있었던 객사. 임란(壬亂) 때 노개방(盧蓋邦)이 이 아래서 임금께 하직인사를 드리고 자결했다.

금정산에서 안락서원(지금의 충렬사)까지의 경관을 말로써 그림을 그렸다. 지금은 다 없어진 정자이지만 우리 부산지방의 누정 문화의 특색을 음미할 만하다. 더욱이 안락서원에 모셔진 임란공신들의 충절을 되새겨 다시는 불행의 역사를 만들지 말자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진다.

황령봉 올라갈 제 죽장망혜(竹杖芒鞋)취한 몸이
 좌편은 수영(水營)이요, 우편은 부산이라.
 대마도 일기도(一岐島)는 해외에 들려 있다.
 해운대, 물운대는 승지라 이르니라.
 영가대(永嘉臺) 높은 집은 부산 경계 제일이다.
 절도사(節度使) 주진(主鎭)하고

**양포만호(兩浦萬戶) 부용(附庸)되어
왜관(倭館)을 방위하여 남요쇄약(南徭鎖鑰) 여기로다.**

① 수영 : 지금의 수영공원. 조선조 때에는 절도사영이 있었고, 그 서쪽에는 임란 때 항전하다 순절한 25의용단이 있다. ② 물운대 : 다대포 남쪽 10리에 있는 명승지. ③ 영가대 : 범일동 성남초등학교 서쪽 철길 곁에 있었던 정자. 순찰사 권분(權盼)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 ④ 남요쇄약 : 부산진성의 군사적 중요성을 말한다. 부산진성의 남쪽은 목구멍과 같고 뒤는 자물쇠와 같다는 말이다. 곧 <南徭咽喉 西門鎖鑰>의 준말이다.

항령산에서 바라보면 좌수영과 부산진이 한 눈에 들어온다. 멀리 대마도를 바라보면 일기도까지 바라보인다. 원수의 땅이다. 그래서 좌수영의 주진과 양포인 개운포(開雲浦)·두모포(豆毛浦)에 있던 만호 벼슬들의 용맹했던 그 시기를 상고 한다. 옛부터 이 지역은 섬 오랑캐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이라서 어느 때이고 방위를 맡고 있는 관리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다.

임진년(壬辰年) 팔년병화(八年兵火) 충신열사(忠臣烈士) 그 님시고
송충열(宋忠烈) 정충장(鄭忠壯)은 흑의자의(黑衣紫衣) 거룩하다.
형색천추(形色千秋) 못 잊어서 순절(殉節)터에 축단(築壇)하니
열녀(烈女)로 부식(附食) 하고 장사(將士)로 배향(配享) 한다.
자성대(子城臺) 일편석(一片石)은 만고사적(萬古事蹟) 그 너아리
大明恩德(대명은덕) 값으라면 호천(昊天)이 망극(罔極) 하다.

① 팔년병화 : 1592년(임진)부터 1599년(정유) 정유재란 그 이듬해까지 8년 동안 있었던 전쟁. ② 송충열(宋忠烈)·정충장(鄭忠壯) : 송상헌 부사와 정발 첨사. ③ 열녀 : 금섬은 송부사, 애향은 정첨사와 죽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르는 말. ④ 축단 : 단을 쌓아

추모하는 것. 여기서는 송공단·정공단을 말한다. ⑤ 대명은덕 : 명나라에서는 만세덕(萬世德)을 파견하여 대일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성대 위에 그의 공을 그린 비를 세우고, 죽기 전에 생사당을 쌓아 그의 공을 찬양했다.

이 내용은 모두 임진왜란과 관계있는 사적지를 돌아보며 적었다. 그 날의 아픔을 생각하면 다시는 ‘이런 굴욕의 역사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부사의 심사였던 것이다.

정묘(鄭墓)라 이른 말은 동래정씨 시조(始祖)로다.
 동평현(東平縣) 고읍(古邑)터에 인가도 즐비하다.
 열녀각 효자비는 대로변(大路邊)에 포량이라.
 증대성상(甌臺城上) 둘러보니 왜성(倭城)터가 분명하다.
 구봉봉(龜峰烽) 태평(泰平)하니 변방(邊方)에 일이 없다.
 개운(開雲) 두모(豆毛) 다 지내니 草梁浦村(초량포촌) 분명
 (分明)하다.

① 정묘 : 거제리 화지산에 있는 정문도(鄭文道)의 묘. ② 동평현 : 동래부의 속현. 지금의 당감동 일대. ③ 증대성 : 좌천동 뒷산에 있던 성. 정발장군의 웅거지. 임진왜란 후 왜가 고쳐 쌓았다.

정묘는 동래 정씨의 제2대조 정문도의 사당이 있는 곳으로 지금 거제리 화지산(華池山) 소재의 명소로서 지리풍수설에 명당지로 알려져 더욱 이름이 높다. 이곳에서 다시 걸음을 재촉하여 옛 동평골이었던 지금의 당감동 일대를 돌아 한길에 즐비한 삼려각(三閼閣=충신·효자·열녀각)을 보면서 증산을 지나 초량까지의 경치를 노래 불렀다.

수설문(守設門) 엄숙하니 객사대청(客舍大廳) 웅장하다.
사병산하(四屏山下) 연대청(宴大廳)은 왜사(倭使) 접대 무삼 일고
동서관(東西館) 완담 안에 동향사(東向寺)가 더욱 좋다.
대치(大峙)를 넘어가니 다대진이 거룩하다.
강선대(降仙臺) 어대매오 신선(神仙)이 노단 말가
육지(陸地)를 다 본 후에 도중(島中)을 향하리라.

① 수설문 : 수문과 설문. 수문은 동광동에 있었던 문인데 왜관을
드나들던 잡상인들을 막았다. 설문은 초량화교학교 근처에 있었
는데 일본사람들의 나들이를 단속했다. ② 사병산 : 대청동의 배
산. ③ 연대청 : 연향대청의 준말. 외국인을 접대한 곳인데 18칸
으로 광일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④ 다대진 : 다대포진. 임진왜
란 때 윤홍신 첨사가 이곳에서 전사했다. ⑤ 강선대 : 지금의 에
텐 공원이다.

이제 여로가 대청동 왜관마을에 이르렀다. 이 지역은 부산 역사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그것은 왜의 사신들이 주로 이곳을
출입하면서 외교를 하고 무역을 했다. 그러나 결국은 국권을 그들
에게 강탈당했다. 이곳에서 대치고개를 넘으면 다대진과 하단 낙
동강변을 볼 수 있다. 정부사가 여기까지 살필 수 있었다는 것은
민정을 살살이 돌보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절영도(絶影島) 들어가니 수로 십리(水路十里) 적실하다.
산하는 목장되어 삼천 준마 용동(聳動)이다.
산상은 봉산(封山)되어 외시입금(外柴入禁) 다사(多事)하다.
점점 깊이 들어가니 수삼(數三) 어촌 뿐이로다.
벌목(伐木) 겨경 찾아가서 태종대(太宗臺) 다달으니,
해상(海上)의 높은 바위 천장만장(千丈萬丈) 뿐이로다.
관청대가 그 앞이요 동우섬이 압임이라.

오륙도(五六島)는 동편이요 우암포(牛岩浦)는 북편이다.
 창랑가(滄浪歌) 한 곡조에 선경이 적실하되
 선연(仙緣)이 없듯던지도 홍진(紅塵)에 일이 많다.
 진시황(秦始皇) 한무제(漢武帝)도 이 곳을 어이 보리.

① 절영도 : 지금의 영도. ② 봉산 : 나라에서 나무를 베지 못하게 금지한 산. 여기서 나오는 나무는 군용으로만 사용한다. ③ 동우섬 : 태종대 앞바다에 있는 섬. ④ 우암포 : 지금 우암동 포구.

이제 영도에서 바다를 끼고 쇄바위 물을 지나 용당동, 용호동을 돌아 오륙도를 바라보는 바닷가에서 창랑가 한 곡조를 불러 선경의 경지를 스스로 즐긴다.

이내 몸 무삼 연분(緣分) 선경(仙境)을 편답(遍踏)하고
 불사약(不死藥) 있다 말이 방사(方士)의 빈말이라.
 오도자(吳道子)의 복중(腹中) 산천(山川) 그 누라서 달아 내리.
 이내 몸 허랑(虛浪)하여 강산(江山)을 周遊(주유)하니,
 세월이 여류(如流)하여 삼년이 여몽(如夢)이라.
 돌아가 전하고저 낙양(洛陽) 친구 이르리라.
 이바 봉래(蓬萊) 벗님들아 내 길 막아 무어하리.
 나도 가기 싫다마는 성은(聖恩)이 망극(罔極)하니 갇으려 가노라.

① 방사 : 신선의 술법을 닮는 도사. ② 오도자 : 중국 당나라 때 화가. ③ 봉래 : 동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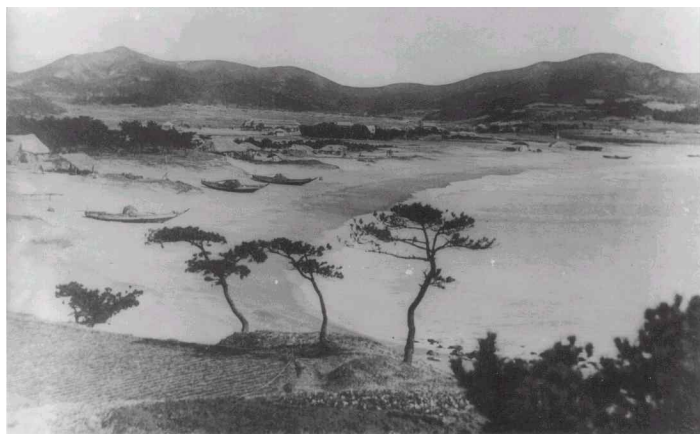
아름다운 부산포의 경계를 주유(周遊)하고 정부사는 잠시 신선의 경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내 고장 부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 산수가 수려하여 자랑할 만한 고장이다. 어느덧 벼슬살이가 끝나고 서울로 가야 할 터인데 봉래에서 사귄 친구를 못 잊고

그 인심을 멀리할 수 없다. 그러나 임금의 부름이 망극하여 봉래별곡의 끝을 맺는다.

부산문화의 원류는 거칠산군(居漆山郡)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장산국(莠山國), 내산국(萊山國) 등의 정신을 다분히 계승하여 발전해 왔다.

정현덕이 활약했을 때의 부산은 장산국계의 영웅적 기질과 내산국계의 신선적 선비정신이 잘 조화되어 풍교를 이루고 있을 때이다. 더욱이 정현덕은 선비적 취향의 부사였기 때문에 동래지방에 많은 문화적 공적을 남겼다. 정치, 문화, 교육이 어느 때 보다도 큰 발전을 기했다.

이제 지방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현덕 같은 선비적 벼슬아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방문화가 외롭지 않다. 정현덕은 근세 8대 한시의 대가이다. 그는 충분히 그의 문학성을 동래지방에 심었다. 더욱이 고전문학의 불모인 이 고장에 <봉래별곡>을 남겼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봉래별곡>은 이 고장의 역사를 그대로 읊고 있다는데 더욱 큰 보람을 갖는다. ■ 동국대 객원교수 김무조



◆ 집필위원 명단

(가나다 순)

집필위원	소 속	집 필 분 야
김동철	부산대학교 교수	변 박
김무조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박인로, 사명대사, 정현덕
손숙경	동아대학교 강사	윤홍신, 이정현, 정 발
양홍숙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강필리, 조 엄
오인택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안용복
이원균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노개방, 송상현, 조영규
이종봉	부산대학교 교수	장영실
정경주	경성대학교 교수	이안눌, 최치원
정용숙	부산대학교 교수	정 서
최해균	소설가, 향토사학자	임란 동래 24공신, 수영 25의용, 이 선

釜山을 빛낸 人物 選定委員會 委員 名單

성 명	소 속
김 임 식	동의대학교 이사장
안 영 근	전 부산광역시의원
황 수 택	전 부산광역시의원
최 해 군	소설가, 향토사학자
김 무 조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이 원 균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최 원 규	부산대학교 교수
강 대 민	경성대학교 교수
정 영 일	시인, 성모여자고등학교 교사
전 상 수	전 국제신문 논설고문
김 숙 현	전 부산일보 논설고문
김 희 로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이사장
송 정 제	전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성 병 두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 재 헌	한마음상호저축은행 회장
최 상 윤	예총 부산지회장
정 진 채	부산광역시 문인협회 회장
임 정 덕	부산대학교 교수
홍 완 식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장

부산을 빛낸 인물 20세기 이전 인물편

인 쇄 2002. 12. 20

발 간 2002. 12. 31

편 집 부산을빛낸인물선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발행처 부산광역시

인쇄소 성진종합인쇄사

<비매품>